

수원공공예술

도시총:동
예술총:동

결과보고집

수원공공예술

도시총;동
예술총;동

결과보고집

2	들어가며
3	기획자의 말
5	프로젝트 리뷰
7	역할소개
8	프로젝트 소개
12	사전 프로그램
14	교동예술실험단
26	도시충;동 예술충;동
30	도시충동단
43	기록생산자
101	흥미로운전달자
146	부대행사
150	왕좌게임
152	도슨트투어
156	포럼
172	기록
176	만남
188	홍보

인구 120만, 수도 서울 메갈로폴리스의 중요한 축 수원. 철저히 자족도시로 계획된 1796년 조선의 화성이 현재 수원에게 묻는다. 어떤 꿈이 있나요? 1949년 수원시로 승격할 때 인구 52,772명으로 시작한 수원은 산업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사람들로 인해 도시 인프라와 시민 복지는 부족하다. 노후한 기반시설과 도시의 재구조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수도권 사정과 맞물려 개발이 가속되었다. 개발은 여러가지 질문을 낳는다. 모든 개발은 속도와 방향에 대해 더 깊고 입체적인 소통을 필요로 하지만 한국의 속도는 너무 빠르다. 지금도 진행중인 개발을 포함하여 메갈로 폴리스의 일원인 수원이 스스로 수원의 비전 지도를 만들 수 있는가? 서울과 인천 경기 일대가 연결된 메갈로 폴리스의 큰 구조의 기획 안에 수원이 있다. 한국에 서울이 있다면 동아시아에는 도쿄 베이징 상하이 오사카가 있다. 더 남쪽으로는 방콕 호치민 자카르타가 있다. 거대도시 단위로 주변 도시들과 연결되어 국제 경쟁적으로 작동한다. 개별 도시들은 산업 구조와 인구배치를 독자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고 경제권도 묶여 있다. 묶여 있어서 변형하는 논리는 강력하다. 개발에 동의하는 시민 스스로의 이유도 차고 넘친다.

그럼 수도권 변형 논리의 이해관계와 다른 시민들의 욕구는 어떻게 도시 운영에 반영되고 있을까? 큰 도시의 혜택을 누리면서 개성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일견 모순적인 의견을 가진 시민들의 욕구는 어떻게 조정되고 있을까? 장애 질병 가난 국적 성별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 사람들의 들리지 않는 외침, 도시에 갇혀 사는 다른 생명체들의 존재는 명확히 인식되고 존중 받고 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들의 존재를 일깨워준 미증유의 사건. 백신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조차 우왕좌왕 당하는 변이들의 출현이 지속되고 있다.

인간이 잘 알지 못하는 위험한 어떤 것을 스스로 차단 하려고 하는 '행동 면역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밀어 내거나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이방인이나 소수자에 배타적이 되기도 한다. 백신주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행동면역체계는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위기의 시민문화, 경보를 울리고 있는 문화정치

많은 단체와 활동이 관이 기획한 행사의 틀 안에 갇혀 있거나 지원금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 공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고 다양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 하거나 사업운영에 관여하는 경우에 '협치'라는 외관을 갖추지만 사적 이해관계에 오염되기 일쑤다. 다양한 변수가 있는 복잡계 사회를 최소한의 형식적차를

통해 통제하려는 욕구가 앞서면 실질적인 삶을 위한 민주주의는 작동을 멈춘다. 다양한 층위를 가진 문화의 암묵지들을 놓치게 된다. 기능적인 도시에 개입해 다른 활력을 만들어 내려는 공공미술도 경직된 Public에 맞는 형식의 통과에 집중한다. 강조되고 있는 참여는 공민 성격의 Civic에 머무른다. 삶을 생기있게 바꾸려는 구체적 의지가 있는 시민Civil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려는 의지가 약하다. 문화도시 사업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문화정책은 관료적 편의주의와 공민적 공정성에 치우쳐 있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논리 개발에 집중하고 생기 넘치는 올바른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책임은 회피한다. 경직된 구조에 참여해서 균열을 만드는 창조적 활동과 예술이 필요하지만 협력의 취약성 때문에 상호작용이 지속되기 어렵다.

흔들기<흔들리기(파장을 감지하기

한국에서 공공미술은 1980년대 군사정치 권력의 모순을 끝내려는 강렬한 분노와 의지에서 출발했다. 역사와 권력과 사회의 모순에 눈 뜨며 온전한 삶을 세우는 일에 예술이 결합했다. 1990년대 군사정권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감각적 열망과 문화적 욕구가 분출했다. 개인적 조건과 욕구를 사회의 요구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하는 고민이 공공미술에서 논의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대안들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 다양성과 두께를 더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충분하지 못했다. 예술은 더 미묘하고 더 집요하게 누적된 삶에 대한 통찰이 필요했고 전에 없던 과학의 발견과 기술의 진화가 만들어 내는 파장을 감지해야 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마다 대응하는 태도는 제각각이고 이전시대에 편중되어 있던 권력과 권위들이 무너져 내렸다. 미시와 거시의 새로운 발견은 우주와 물질구조, 생태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미처 알지못한 비인간 존재들의 무한한 작용을 고려하게 되었다. 인간 몸의 60~70 퍼센트를 점하고 있는 미생물의 존재는 인간의 독립적인 자아에 대해 커다란 질문을 던진다.

2021년 여름-가을 수원. 어떻게 세계(local)로 인식되는가? 이 시기 수원에도 도시의 누적된 다층의 켜들이 사건, 관계, 문제적 경험을 이루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남긴 상처 혹은 질문에 깊이 감염될 수 밖에 없다. 이 상처 혹은 질문이 다각도로 새로워지는 자극이 한동안 필요할지도 모른다. 장기간의 행동 면역체계가 발동하면 오염과 진위를 가리기 위해 예민해진 신경들이 번아웃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자신과 세계로 향하는 창을 닫고 폐쇄적으로 변한 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일은 어떻게 시작 되어야 할까? 비교적 안전한 자기 동지(물리적, 심리적)에서, 말 하고 판단하기 좋은 위치에서, 사람들 각각은 발화자가 될 수 있을까? 시민이기도, 작가이기도, 관계자이기도, 대화 상대이기도, 공간의 주인이기도, 손님이기도, 관객이기도 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빨아들이는 누군가도 없이 일상인듯 교차하는 노드들을 만들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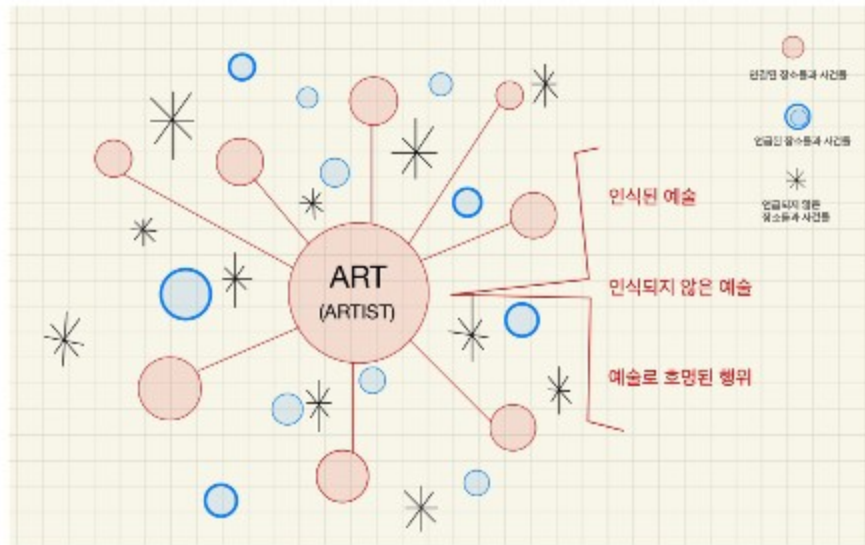
그래서 이것이 흥미롭다면, 이전처럼 만나서 이전과는 다르게 행성에 대해 얘기하고 타자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는 일들로 조심스럽게 화제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신체 곳곳에서 내지르는 소리들이 아우성이지만 지금은 듣는 시간. 나와 이웃의 소리를 들으려 애 쓰는 시간. 지칠만큼 많이도 말고 적당히. 주저하지도 내지르지도 않을만큼 주위를 살피며 잘 듣는 시간.

도시충;동 예술충;동

수원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향후 정기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상이한 도시의 조건을 넘어 도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흥미로운 생각들을 담아 내려 한다. 예술은 한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포함하여 동시대 삶 전체의 이슈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는 생산물을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반응에 반응하는 여러차례의 반응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흥미롭게 개입하는 교차 특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 해는 그 첫 해로서 도시의 소리 냄새 이야기를 보고 듣고 토론하면서 여러개의 스케치를 연이어 시도하는 '에스키스' 작업을 시도한다. 여러사람들의 감각을 깨우고 상상을 교차하는 과정과 이후 작업을 위한 리서치 성격의 작업을 시작한다. 리서치라고 해도 작가의 시각이 스며 있는 개성적 포착의 과정이며 다큐멘터리된 이슈들은 다시 한번 아티스트의 아트워크를 거치며 피드백 된다. 반응에 반응한다. 몇가지 과정중에 만나는 인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일방향이 아니라 열기설기 되물며 이슈를 환기한다.

도시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있는 존재가 우연히 예술이라 할지라도 예술은 거기에 제각각의 소리로 반응하는 흥미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충;동으로 소통하기

프로젝트 리뷰:

이예진 프로젝트 매니저

예상하지 못한 경험들은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 토대가 되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점점 경험이 차단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선택적 소통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 도시충;동 예술충;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도 코로나19 4단계가 유지되던 상황이었다. 우리는 수원의 이곳 저곳에서 충동을 일으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올해는 그 시작으로 작가들이 도시의 인상을 오프라인영토에서 드러냈다. 오프라인영토는 수원 교동 일대로 설정되었으며, 상가와 거리에 작업을 삽입하여 삶 속에서 이야기가 공유되도록 했다.

오프라인영토 오픈 첫 날 라이스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은 수원 교동 일대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작가들은 오징어 게임에 나올법한 부직포 방호복을 입고 전단지 배포, 부착했다. 전단지는 가방이나 주머니에 담겨 멀리 전달되고, 특정 장소에 부착되어 사람들과 마주쳤다. 일반적인 홍보물과 달리 작가들이 제작한 전단지 이미지는 정확한 의도를 알 수 없는 암호에 가깝다. 교동 일대에 퍼진 '콩심은데 콩 팔심은데 팔', '흙흙쫄쫄' 등의 암호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새롭게 해석되고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손한샘 작가는 오프라인영토의 시작점인 팔달문관광안내소 앞 공터에 노랑, 파랑, 초록, 분홍 천을 두른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했다. 공터는 우리 말고도 각자의 이유로 사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설치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하지만 장소가 가진 자유로운 성격은 누구나 장소의 역할을 변화시켰으면 하는 작업의도에 적합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시민들은 작업 근처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하고, 놀이터처럼 작업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며 공터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웁쓰양 작가와 이끼바위쿠르르의 작업은 공터에서 한 블록 뒤에 있는 헬스장에서 볼 수 있었다. 웁쓰양 작가는 런닝머신 모니터에서 협동운동을 시연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운동장면을 헬스장 곳곳에 설치했다. 작가는 하나의 운동으로 4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효율적인 5가지의 운동법을 소개했다. 고효율을 추구하는 협동운동은 도시에 적합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체계적인 도시일수록 상호간의 접촉을 철저히 제한한다. 도시에 적합하지만 실행해선 안되는 운동이라는 점은 환경의 아이러니를 느끼게 했다.

이끼바위쿠르르는 헬스장에서 '수원(광교산)'의 노래가 랜덤으로 흘러나오도록 했다. 헬스장의 회원들은 평소 듣던 음악처럼 수원(광교산)을 들었다. 노래는 수원에서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이야기로 작사되었다. 도시에서 개인의 기억과 이야기는 술자리 안주 정도로 소비된다. 그러나 노래로 작곡되고 구전설화처럼 퍼지며, 같은 시간과 도시에서 살고 있는 타인을 자연스럽게 삶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어서 길을 따라 걷다가 상가 유리창에 전단지가 잔뜩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단지는 준박&최라운 작가와 시민들이 무언가를 찾는 내용으로 가득 차있었다. 어떤 아이는 잃어버린 장난감을 찾기도 하고, 어른들은 지나간 시간을 찾기도 했다. 전단지는 실제로 찾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기억을 드러내는 도구에 가깝게 사용되었다. 전단지의 내용을 작성한 시민들은 기억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떠올려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맛은편 건물에 김월식 작가는 '죽은 유산이 산 사람을 내 몬', '우리 동네 벽화 미워', '00함이 없는 00예술' 문구를 프린트한 파스텔 톤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현수막은 공공예술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지만 공공에 대한 작가의 불편한 시선을 직설적으로 드러냈다. 공공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외, 공공성의 폭력적인 방식에 대한 불편함을 표현한 작가의 작업을 통해 '공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를 재고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 인이 나래 작가는 오프라인영토 끝에 위치한 생고기 식당에 도시의 식물을 기록한 이미지를 끼워 넣었다. 이미지에는 수원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난 식물의 이미지와 위치, 이름, 특징이 작성되어 환풍구나 계산대에 위치했다. 인간이 고기를 먹기 위해 방문하는 식당에서 식물들을 소개하며 어디서든 부대끼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을 인식시켜주었다.

팔달문 근처 골목에 숨어있는 한 카페에서 서현덕 작가는 소리가 작게 나오는 무릎높이의 사운드 장치를 카페에 설치했다. 장치에서는 수원에서 한 노인의 경험담을 아이의 목소리로 전달한다. 도시에는 지겨울 정도로 많은 소리가 존재한다. 그 와중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양의 스피커와 작은 소리는 우리 주변인, 특히 소외의 대상이 되어가는 노인에 대한 관심을 유발했다.

마지막 장소인 수원시립중앙도서관은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만날 수 있다. 이태강 작가는 시각장애인들을 찾는 본인의 여정을 숨바꼭질을 하는 소녀의 시각으로 썼다. 흰색 아크릴 판에 양각으로 기록된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글을 느껴볼 수 있다. 스토리는 MP3를 사용하여 오디오로 들을 수 있다. 작가는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수원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전보다 더 그들을 만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작업은 작가와 함께 못찾겠다 피꼬리를 외치며 도시 속 그들의 행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했다.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아홉명(그룹)의 작가님들은 많은 장애물을 넘어왔다. 짧은 시간과 불안정한 공간이 특히 어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도 '흥미로운 전달자'로서 도시 속 대상, 도시의 이슈를 오프라인영토 곳곳에서 보여주었다. 작가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는 도시-시민-예술의 다양한 교차점을 만들며 다음 프로젝트의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전달자 작가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시작과 끝을 같이 해준 도시총동단 시민들, 시민들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꼼꼼히 기록해준 기록생산자 작가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배역1 도시총동단

지역의 다양한 이슈 제기, 지속적인 극의 수호자
강남철, 김도형, 김정한, 부용, 소소, 신승녀, 이현주, 임향숙, 한정우, 황동준

배역2 기록생산자

지역의 구체적 이슈와 장소를 탐사하며 이미지와 텍스트로 드러내는 작가 그룹:
김형아, 박김형준, 윤영욱, 땅도프로덕션(류승진, 윤혁), 현지윤

배역3 흥미로운전달자

제기된 이슈를 포함하여 스스로 사건을 만들기도 하는 흥미로운 전달자로서 예술가:
김월식,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손혜민, 신현진, 유소윤), 서현덕,
손한샘, 읍쓰양, 이태강, 이끼바위쿠르르(조지은, 고결, 김종원), 준박&최라운,
진 인이 나래

배역4 왕좌게임

전시 무대에 설치될 암체어 제작 작가

배역5 예술총동단

관찰 참여 시민, 전문가 시민, 목격자 시민들과 비평으로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만드는 사람들

예술감독: 박찬국
기획: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이선옥 센터장, 시민문화팀 박경홍 팀장, 한예지 대리
프로젝트매니저: 이예진
기록: 땅도프로덕션 류승진, 윤혁
디자인: 고와서
웹사이트개발: Wei-Hao Wang
전시운영: 아트블랑켓
의자(왕좌게임)제작: 점점우드워크 장영환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실험적
도시예술활동

□ 사업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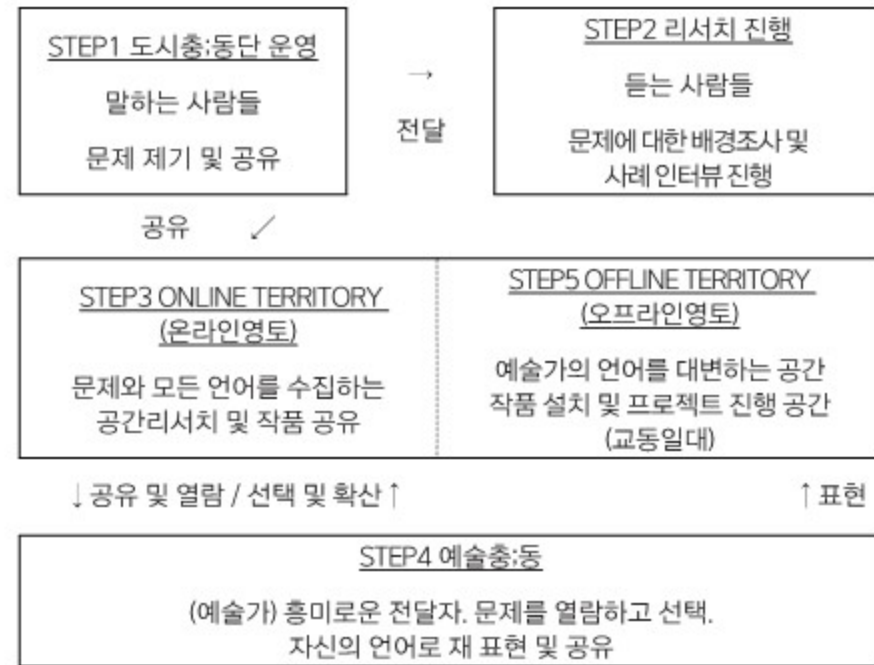
- 수원은 120만의 인구와 함께, 수도권 메갈로폴리스의 주요한 남부 축의 역할을 하고 있음. 산업화 이후 급격히 늘어난 사람들로 인해 도시 내 다양한 갈등이 존재하고 개발의 속도에 비해 입체적인 소통은 부족한 상황임
- 수도권의 번영 논리의 이해관계와 다른 시민들과, 개성적인 삶을 살고 싶은 시민들의 욕구·장애·가난·성별·국적 등의 구분으로 인해 밀려나는 욕구들에 대한 존중과 인식이 필요함
- 무리한 행정의 개입으로 경직된 공공예술과, 대중의 삶과는 거리가 먼 엘리트예술, 복잡한 사회와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기 어려운 장식적 예술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자유로운 예술가와 의지가 있는 시민이 함께하는 동시대 안에서 새로운 공공예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사업목적

- 사회와 그 안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새로운 감각을 통해 넓히고 다양성에 기반한 태도로 생각과 사고의 폭을 확대
- 시민사회(커뮤니티)와 예술가 사이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장르 안에서 도시의 욕구 반영
-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실험적 도시예술활동을 통해 다양한 도시문제들에 대한 예술적 접근방식으로 공론의 장 마련

□ 사업 주요내용

- (교동예술실험단) 수원 기반으로 활동중인 2030 작가들이 지역내 방치공간에서 다양한 도시 문제들에 대해 예술로 전달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 (도시충;동 예술충;동)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와 욕구들을 표출하고, 예술가는 전달자가 되어 도시의 언어를 해석하여 확산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 전시 개요

- 수원공공예술 사전프로그램 '교동예술실험단'

전시기간 : 2021.06.25.(금) ~ 07.25.(일)

전시장소 : 교동갤러리벨트(남문로데오갤러리~로데오갤러리특별관~스트리트갤러리~가족여성회관한전지중박스)

- 참여작가 및 작업

작가명	작업명	전시장소
조성훈	해적판	남문로데오갤러리
이태강	안개섬	
정효선	매교탐구생활	
현예름	초록사이로 하얀	로데오갤러리특별관
김민지	호러플라이	스트리트갤러리
박수환	붉은아파트	
김혜란	나를 찾아줘	
서현덕	Sanctuary	수원시가족여성회관
김보람	다시 돌아온 오늘	
하유준	잇다	한전지중박스

○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전시기간: 2021.10.23.(금) ~ 11.07.(일)

전시장소: 교동일대 및 청려원갤러리

참여작가 및 작업

작가명	작업명	전시장소
김형아	-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 아파트 환상	청려원 갤러리
박김형준	서수원 걷기 지도 / 비행기 소음 지도	
윤영욱	예정된 도시 / 침범된 도시	
땅도프로덕션 (류승진, 윤혁)	장안공원 / 도시언어	
현지윤	청년을 위한 / 노인을위한	
라이스브루잉시스터 즈클럽 (손혜민, 신현진, 유소윤)	사회적발효컬트	교동일대
손한샘	Shrine	팔달문관광안내소앞 공터
읍쓰양	협동운동	소유집
이끼바위쿠르르 (조지은, 고결, 김중원)	수원	
준박&최라운	_____를 찾습니다	아이엠밀크
김월식	죽은유산이 산사람을 내몬, 우리동네 벽화 미워	아트블랑켓
이태강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수원시립중앙도서관
서현덕	Sanctuary	노스목위닷파
진 인이 나래	살갓과 살갓	마포생고기

□ 추진 과정

○ 교동예술실험단

5월 : 지역 미술분야 전문가 대상으로 사전 자문회의 진행 및 수원에 관심 있는 2030 MZ작가 대상으로 공모 실시(10명 선정)

6월 : 수원시·수원문화재단·상인회 업무협약체결을 통한 노후 시설 개선 진행

6.25. : 8명의 공공예술 작가·기획자 등 참여 포럼'예술가와 도시'추진

6.25.~7.25. : 지역 내 오랜 기간 방치된 유휴공간(교동갤러리벨트)에서 교동 예술실험단 전시 진행

○ 도시충:동 예술충:동

8월 : 말하는사람들로서 도시충동단(시민그룹) 10명 선정 및 이슈탐구테이블 진행, 기록생산자로서 리서치 작가5명(팀) 선정 및 작업 진행

9월 : 흥미로운전달자로서 전시 및 프로젝트 진행 작가9명(팀) 선정 및 작업 진행

9월~11월 : 온라인영토에 회의·과정·리서치 등 아카이빙 진행

10.23.~11.7. : 오프라인영토(교동일대)에 프로젝트 전시 진행

10.31. : 공공예술 작가·기획자·시민 참여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시간'진행

12월 : 수원공공예술 책자형 결과보고집 제작 및 참여주체 대상 발간회 개최



수원형 공공예술실험 사전 프로그램

교통 예술 실험단

2021.06.25 - 07.25



QR코드를 찍어
교통예술실험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전시기간

2021.06.25.(금요일) ~ 07.25(일요일)

참여작가

김민지, 김보람, 김혜란, 박수환, 서현덕, 이태강, 정효선, 조성훈, 하유준, 현예를 (10명)

주최 : 수원시, 수원문화재단

주관 : 수원문화재단, 아트블랑켓

남문로데오 갤러리 (팔달로3가79), 로데오갤러리 특별관 (중동 88-2), 스트리트 갤러리 (교동120-2), 한전지중박스 (교동74-1)

‘교통예술실험단’은 수원형 공공예술실험 사전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수원형 공공예술실험은 공공예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는 현재, 문화도시 수원의 인문적 가치와 방향을 어떻게 예술 언어로 드러낼지 과정을 보여주는 작업입니다. 기획 방향을 고민하게 된 시점은 오랫동안 동네를 깊은 애정으로 지켜보던 예술가의 문제제기였습니다.

2000년대 초, 교동 원도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문로데오갤러리, 로데오갤러리특별관, 스트리트갤러리가 조성되어 전시공간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공동품 전시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오랜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상황에서, 원도심 갤러리는 예술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 속 누구나 편하게 미술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에 그 가능성을 적극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수원항고, 부곡원 등의 문화유산을 끼고 있는 오래된 동네 교동의 풍경에 새로운 예술 실험을 함께할 주체로는 MZ 세대 20-30대 청년 작가에 주목했습니다. 10명의 작가들은 도시 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의제와 공간을 중심으로 각자의 방식대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이들의 작업이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실험들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원문화재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도시-공공-공공-예술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며 수원형 공공예술실험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고 확장하겠습니다.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을 손쉽게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역할에 대해 눈감지 않도록, 예술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 수원문화재단

《교통예술실험단》에서 찾은 수원형 공공예술의 가능성)

최재혁 / 소미미술관 큐레이터, 전시비평

전국의 수많은 도시들이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경쟁적으로 공공 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원한다고 모두 ‘문화도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상으로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로 정의하고 있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심의를 통해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원은 2020년 3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행정적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지역사회의 진정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식의 문화도시일 것이다. 수원은 현재 그 과정 속에서 ‘수원형 공공예술실험’사업을 실행 중이다. 그렇다면 ‘수원형’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말하는가? 수원형 공공예술실험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교통예술실험단》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원만의 차별점을 찾을 수 있다.

《교통예술실험단》의 주 무대는 팔달구에 위치한 교동이다. 수원에서 교동이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교동은 지리적으로 수원역-수원화성-수원시청을 이루는 삼각형의 중심에 있다. 덕분에 교통과 행정 그리고 문화유산에 둘러싸여 주요 관공서와 공공단체, 주거와 상가가 공존하는 중심지였다. 하지만 2010년대를 기점으로 광교를 비롯해 호매실 등 외곽 지역에 신도시가 생겨나고 상권은 계속 분산중이다. 교동을 포함한 화성 생활권은 자연스럽게 구도심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도시개발의 구조상 신도심이 개발되면 구도심은 자연스럽게 낙후되거나 쇠퇴하는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다. 상권이 이동하면 주거인구가 이동한다. 그리고 문화산업 또한 수요를 찾아 자연스럽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동은 여전히 원도심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잃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유산인 수원화성 덕분일까? 팔달문의 전통상권이 공고해서일까?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을 덕분일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예술가들의 존재와 문화인프라다.



교동은 수원역-수원화성-수원시청을 이루는 삼각형의 중심에 있다.

수원문화재단과 수원시립미술관이 화성 생활권에 위치해 있고, 이를 비롯해 ‘대안공간 눈’과 ‘아트블랑켓’ 등 수원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문화단체들이 원도심의 문화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수원을 아끼고 애정하는 청년예술가들이 있다.

《교통예술실험단》은 그 청년예술가를 조명하는데 첫 번째 의미가 있다. 《교통예술실험단》에 포함된 김민지, 김보람, 김혜란, 박수환, 서현덕, 이태강, 정효선, 조성훈, 하유준, 현예를 등 10명의 청년예술가들은 수원의 상황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작품을 제작했다.

남문로데오갤러리, 로데오갤러리특별관, 스트리트갤러리, 가족여성화관 한전지중박스까지 4개의 장소를 묶는 ‘교통갤러리 네트워크’에 설치된 작품들은 주제에 따라 ‘현 시대 청년들에게’, ‘도시의 과거와 현재’, ‘세대간 융합’, ‘더 나은 수원을 위하여’라는 4가지 키워드로 재분류 할 수 있다.

1. 현 시대 청년들에게

김민지, 김보람, 현예를 작가는 경쟁과 저성장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청년들의 삶을 만주하였다. 그리고 같은 청년으로서 예술을 통해 희망과 휴식, 삶의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김민지 작가는 자아가 형성되는 유년 시절을 타국에서 지낸 경험과 정체성의 고민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10대였던 작가는 '핑크락'가수들이 착용하는 뿔이나 체인 같은 다소 거친 장식들이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멋진 수단이라 생각했다. 작가 또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여러 오브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했다. 이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다양한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내재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나아가 점차 개성을 잃어가고 천편일률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청년들이 개성을 찾고 자유롭게 표현 하길 갈망한다.



김민지_호리플라이, 에어업, 신문지, 거울, 체인, 알루미늄, 벨벳, 혼합재료에 채색 및 레진 코팅, _커브크기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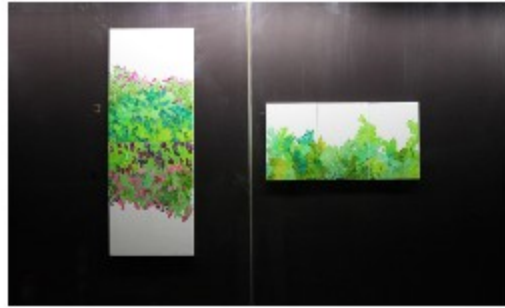
김보람 작가는 가볍게 취급되거나 존재감이 부족한 것들에 귀 기울여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원 교통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청년들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지역속의 구성원으로서의 청년, 공동체 속의 개인이 느끼는 삶과 생각들을 수집하였다. 그리고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표현했다. 단색적 색채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관찰하다 보면 지역사회와 청년의 관계성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보람_다시 돌아온 오늘_그래픽디자인_815x1530mm_2021

현예를 작가는 전시를 보는 사람들에게 '초록'을 선물하고자 하였다. 초록에서 느껴지는 감성은 무엇인가? 푸름, 신선함, 식물 등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뻗는 주택과 아파트로 채워진 회색 도시에서 비범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초록'은 너무나 멀지만 한 색채다. 초록은 곧 '여유'이기 때문이다. 수원의 경우 광교를 비롯한 신시가지는 공원과 식물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조성되고 있지만, 고가의 아파트와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청년들에게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식물과 초목의 휴식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에 작가는 자신의 작품으로나마 초록을 만나고 작품으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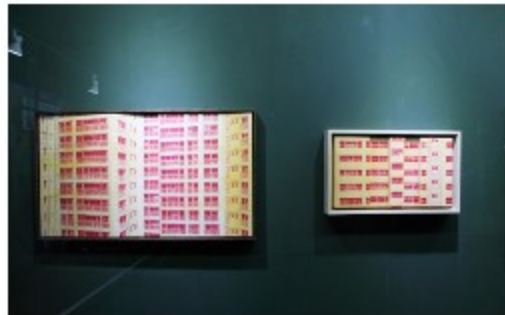


현예를_초목사이로 하얀_캔버스에 유채_41×83cm_2021

2. 도시의 과거와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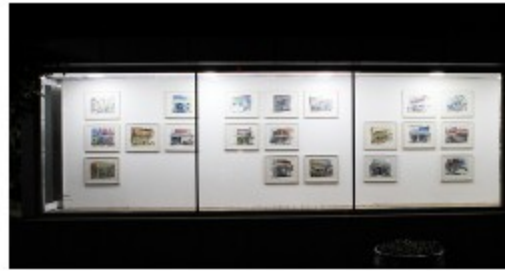
박수환, 정효선, 한유준 작가는 도시의 시간성을 포착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수원의 원도심에서 과거를 추억하거나, 풍경을 사진으로 담아내고, 또한 주거문제의 자본의 관계에 대해 발언하였다.

박수환 작가가 2017년부터 진행한 <의(依)식(食)주(住)와 주(呪)>시리즈는 아파트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아파트는 단순히 주거공간의 의미를 넘어 계급과 신분의 표시가 되었다. 거주 목적을 넘어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배어있기 때문이다. 부족도 마찬가지다. 재앙을 쫓고 소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바람이 만들어낸 사물이다. 이에 작가는 감초, 계피, 치자를 달여 만든 붉은 황색 염료로 수차례 염색한 한지 위에 붉은색의 경면주사(鏡面朱砂)로 이미지를 그리는 부적제작의 과정을 차용했다. 그리고 캔버스에 배치하여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살 주(住)가 아닌 간절히 빌어야 얻을 수 있는 빌 주(呪)가 된 것이다. 작가는 이러한 재료와 의식, 아파트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우리의 삶과 태도에 스며있는 자본 그리고 주술의 힘의 공통점을 작품에 담아내었다.



박수환_붉은 아파트_경면주사, 나무에 한지_630×880×30mm_2020

정효선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대교동은 과거 공구 대단지였지만, 재개발과 불황 탓에 많은 공구상가들이 문을 닫았다. 에너지와 힘이 넘치고 무엇이든 만들어 낼 것 같았던 호황기의 공구상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시간이 흐르며 도시의 풍경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데, 과거의 수원이 가진 매력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귀한 풍경이 될 것이라 짐작했다. 이에 작가는 하루 한 장씩 공구가게의 풍경을 펜과 수채물감을 활용한 드로잉으로 기록했다. 본 전시의 그림들은 작가가 생각하는 지역의 소중한 풍경과 가치를 작가만의 방식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다.



정효선_대교동구성길, 종이 위 핸드드잉, 수채_260x360mm_2021

한유준 작가의 출품작 <있다(connection)>는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풍경과 과거가 조우하도록 한 사진 콜라주 프로젝트다. 작가의 사진에는 전통적 장소와 현대적 장소가 공존한다. 전통적 장소는 선명한 디지털 사진으로 촬영하되 현대적 장소는 아날로그 필름으로 촬영했다. 전통과 현대가 디지털 카메라와 아날로그 필름이라는 시간차를 둔 물성과 교차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장소 이미지가 공유되어 시간과 공간, 매체와 물성이 모두 연결된다.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수원이라는 도시는 전통과 현대, 보존과 개발이 동시에 존재한다. 작가는 그러한 수원의 특성을 자신만의 사진작업으로 잇(connect)고자 하였다.



한유준_있다_그래픽디자인_815x1530mm_2021

3. 세대간 용합

김혜란, 서현덕 작가는 동일한 공간 속에 드러나는 세대간 격차를 발견하고 작품을 통해 간극 좁히기를 시도했다.

김혜란 작가는 이분법적인 소재들이 서로 병치되고 대치되는 현상과 상황에 주목해 왔다. 물질적으로는 자연물과 인공물이 있고 사람의 이성과 감정 또한 대치되는 요소다. 이번 전시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세대간 대치 즉 '젊은이'와 '노인'의 사이에 주목했다. 이 두 집단은 같은 시간과 지역 내에 공존하지만 삶의 태도와 생각, 경험들이 무척이나 이질적이다. 특히 교통은 노령인구가 많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눈에는 노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작가는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에서 세심스럽게 발견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전시가 끝나면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자 하였다. 노인은 절대 낯선 이들이 아니며, 우리와 함께하는 구성원이다. 청년작가의 시선이 추가된 본 프로젝트에서 세대간 균형을 맞췄다.



김혜란_나를 찾아줘_종이에 수채, 가변설치_2021

서현덕 작가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경험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해 왔다. 본 전시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은 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르신들도 작품을 접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였고, 울진도 스피커(vibration speaker)를 사용한 사운드아트 설치를 실행하였다. 스피커에서는 어머니와 아이의 심장소리가 출력되는데, 스피커에 귀를 대면 마치 어머니의 품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듯 평화로운 느낌을 받게 된다. 또한 아이 설치의 특성상 한쪽 귀로는 도시의 소음을 함께 듣게 되는데, 편안함의 몰입감, 수원의 소음이 거칠게 결합된다. 울진도 스피커는 노령인구를 고려한 컨셉으로 공공미술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서현덕_Sanctuary 안식처,성역,보통구역_스피커_가변설치_2021

4. 더 나은 수원을 위하여

이태강, 조성훈 작가는 더 나은 수원 그리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문제의식이 담긴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태강 작가는 주로 '나뉘지거나 갈라진 것들'에 주목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는 기점이 되어 버린 곳, 점차블록이 존재하지 않는 교통의 길들에 주목했다. 이 길들은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마치 안개가 가득해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래서 이곳을 '안개지역'이라 명명했다. 그리고 작가는 교통의 모든 길을 다니며 실태를 조사하여 '교통 안개지도'를 제작했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인식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공공미술의 형태다. 수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드러난다.



이태강_안개전_브릭 및 혼합재료_800x800x50mm_2021



고동 예술 실험단_남문로에오 갤러리 (말달로3가79)_2021



삼이 선의의 공공미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감사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가야 한다. 예술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수원문화재단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기획자들의 역할 또한 크다. 예술가와 도시 그리고 공공(公共)의 선순환 구조가 잘 짜여질 때 시민중심의 문화성제로 인한 '수원형' 공공미술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성훈 작가는 자아의 문면중적 증상을 중심 소재로 작업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1990년대 해적판 만화를 재해석한 작품을 공개한다. 당시의 만화는 한 페이지, 한 장면이 작품으로 여겨질 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작화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웹툰은 장비와 매체가 발전했지만 그림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다. 비록 만화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냈지만 작가의 주된 메시지는 정보의 홍수 속 소비사회로 인한 변화에 대한 문제 의식에 있다. 진지한 대화와 단론, 장인의 정신성 등은 사라지고 오직 지분과 흥미, 자극적 요소만 남은 우리 삶의 양태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시스템과 플랫폼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각성을 유도한다.



조성훈_해적판_동이 인쇄 원 혼합재료_1750x2250mm_2021

이처럼 10명의 MZ세대로 이루어진 <고동예술실험단>의 작품들을 따라가다 보면 '수원형' 공공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젊은 토박이'들의 존재다. 서울로 상경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계층의 존재는 귀하다. 수원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다. 첫째, 교통의 발달로 서울의 접근이 쉬워져 굳이 청년들이 서울로 상경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특히 작업실을 운용해야 하는 미술작가들의 경우는 집값의 부담을 안고 서울로 올라갈 이유가 없다. 둘째, 대부분의 경기권 도시가 서울의 베드타운의 역할을 하는 것과 달리 수원군은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립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자체적인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인구이동의 추이를 보면 서울의 집값과 인구포화로 젊은층이 경기도권역으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수원인구는 2021년 기준 118만여명으로 경기도는 물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원형' 공공미술, '수원형' 문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년예술가, 청년기획자 그리고 청년문화 전반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1981년 작품 <기술어진 호>를 만든 미국의 설치미술가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는 "선의의 공공미술은 미술이라 인식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존재를 고마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수원은 좋은 문화유산이 있지만 도시문제 또한 지니고 있다. 다행히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능성과 예술인프라 그리고 청년예술가와 활동가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수원이라는 도시가 가진 역사적 자산, 매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리처드 세라의 말을 반면교사



교동 예술 실험단_로대오길거리 특별관 <중형88-2>,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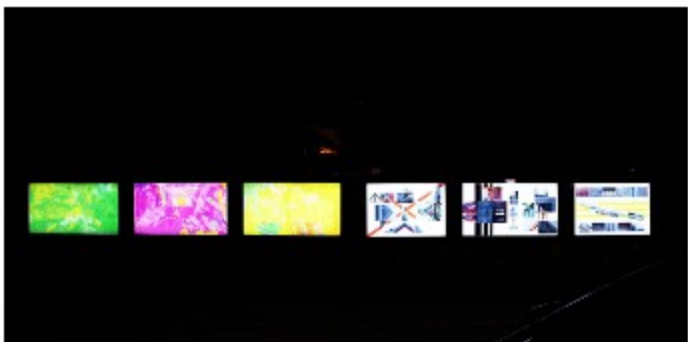
교동 예술 실험단_로대오길거리 특별관 <중형88-2>,2021



교동 예술 실험단_스트리트 갤러리 (교동120-2)_2021



교동 예술 실험단_관전지중박스 (교동74-1)_2021





2021.08.03.(화) PM 8:00 이슈탐구데이블

【소개】

시민문화팀 한예지 수원형 공공예술 '도시중·동 예술중·동'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중·동 예술중·동은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예술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배역을 가진 흥미로운 전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중동단으로부터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록 생산자들이 리서치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영토라는 웹페이지에서 공유가 되고 흥미로운 전달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교동 일대에서 이야기를 재생산합니다. 교동에 전시된 작품은 의지라는 매개 또는 심볼과 함께 관객을 만나게 되고 작품 관람을 위해 의지에 앉은 시민은 이 프로젝트의 관객이자 일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영토와 책자에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중동단은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배역으로 도시 이슈를 말하고 프로그램 전체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는 극의 수호자입니다. 처음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만큼 간단한 소개와 내 주변의 이야기, 문제, 이슈 공유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문화팀 박경훈 문화도시 수원은 3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되어서 지금 예비문화도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원형 공공예술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자리에서 부담가지지 마시고, 생각하고 있는 도시문제와 해결 방안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전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를 잘 담아 다음 작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오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느낌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웃음) 이 프로젝트에 '도시중·동 예술중·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명에 쓰인 '중'이라는 말은 홀로 쓰일 때 이전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최근에는 '덕후'같은 성격의 단어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더하여 '중동'이라는 말은 '뭔가를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뜻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도시중·동 예술중·동'으로 세미콜론을 붙여 써보았습니다. 유머라고 생각해주세요. (웃음) 공공예술 자체의 개념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대예술은 개인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공예술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질문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어떠한 장르로서 작가들이 공공예술에 뛰어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에 집중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 제가 같이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전달자'로서의 예술가, 다양하게 포착할 수 있는 예술가의 폭, 평상시에 어떠한 작업을 하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가자: 예술감독 박찬국, 시민문화팀 박경훈, 시민문화팀 한예지, 프로젝트매니저 이예진, 땅도프로덕션 송출팀 (2인), 도시중동단-이현주, 임항숙, 김정한, 하혜정, 한정우, 작가-서현덕, 윤영욱

그리고 도시의 다양한 이슈, 예를 들어 도시의 문제, 도시의 흥미로운 공간 및 장소, 관계로 인한 이야기거리, 역사적 맥락 등이 문화도시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관심을 서로 나눠질 수 있는가에 대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술가가 아티스트도 있지만 이슈나 사건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예술에 다양한 비율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측면에서 배역을 설정한 것이고요. 수원에 사는 다양한 연령, 직업, 관점을 가진 시민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양한 관심사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작가 그룹에 전달하여 공유하고 진행하며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고자 합니다.

이현주 님 방송작가를 하는 이현주입니다. 씨티메이커스, 문화 바람 활동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인분들 또는 귀어분들 문화소수자와 관련 있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문화다양성 주제와 아닌 주제들이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융합될 수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입니다.

김정한 님 저를 간단히 소개하지만 저는 경기도민으로서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한입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것은 문화재단에서 연계했던 미술 먹거리 관련 놀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화와 저의 연결점이 무엇인지 최근에 지속해서 생각해보았는데, 문화보다도 저 자신의 관심사는 기후환경(폭염, 그린란드, 빙하 등)이며 어떻게 하면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혜정 님 행궁동에 사는 30대 워킹맘 하혜정입니다. 일단 생각해보니 수원에 산 지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류동, 영화동, 서동동, 행궁동으로 돌아왔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동네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님 꿈들협동조합 한정우입니다. 발달장애 아이들 치료실을 운영 중입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지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꿈들식품이라는 식품공장도 연계하여 발달장애 생애 주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듣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시민문화팀 한예지 인사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예정이며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공감하고 확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각자의 생각, 이슈, 도시의 문제들, 자신의 이야기, 도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었습니다.

【이슈탐구데이블】

이현주 님 소개에서 말씀드린 제 주변의 이야기나 문제, 이슈(문화소수자)는 그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을 이어 나갔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활동에 관한 이야기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노인 관련 문화바람 활동을 했는데, 수원



뿐만 아니라 노인 인구가 늘어가기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정보화가 빨라짐으로 인해 정보격차, 세대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러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타투나 귀어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러한 점에 흥미를 느끼십니다. 요즘엔 많은 노인분도 유튜브를 활용하시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활동하시는 동네가 어디신가요?

이현주 님 제가 거주하는 곳은 권선동이며, 문화바람 활동은 화서동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특별히 동네 어르신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이현주 님 활동에서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최차별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이 짧고 참여 인원이 10명 내외로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나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생각보다 더 자세히 알려드려야 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그분들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이현주 님 1대 다(多)로 진행을 했던 모임이었던 만큼 한 문 한 문 이야기를 자세히 듣기는 어려웠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그 프로그램 말고도 현재 수원의 재밌거나 안타까운 프로그램들이 있었을까요?

이현주 님 바로 지금은 생각나는 것이 없어서, 이야기하다가 생각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웃음)

김정한 님 시민으로 살아가며 마을에서 작은 도서관을 매개로 책과 같이 늘면서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만나는 분들과 이야기하며 혼자서는 그러한 것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작은도서관과 생활정치가 이야기의 화두였고, 여러 연령과 성별이 모여 책을 매개로 이야기할 때 '사람마다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라는 것이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다양성의 존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무조건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가치는 다양성보다 앞에 둘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스스로 사유하게 했습니다.

당시 발생한 세월호참사는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도서관을 매개로 환경, (건강하고 자연적인)먹거리, 우리의 몸이 대해 고민을 하며 수원에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공동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참사를 보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함께 어떠한 문제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생활정치이며 다양하게 확장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또한 주부이다 보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먹거리였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성분표 등도 살펴보고 책에서 시작하여 질문을 찾고 답변을 요구하는 행동까지 마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도 어떤 문화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음식 자체, 같이 먹는다가나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셨나요?

김정한 님 저는 로컬, 마을경제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역 먹거리를 우선시하는 생각을 우선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생산되는 농업의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다. 화성의 먹거리와 연계하여 공급받는 방법을 하나 생각하고, 생협이라는 먹거리협동조합을 하나 생각하였습니다. 원재료의 출처가 분명하고 이웃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원자재를 만드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컬을 우선하는 먹거리 운동을 하게 되었고, GMO(유전자변형농산물)로 만든 식품 표기 등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문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좀처럼 생각해보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품의 문제가 있다면 주변에 실제로 어린이아들, 어른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정한 님 GMO식품을 학교에서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한 먹거리로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어떤 식품에 GMO가 주로 사용되는지?

김정환 님 두부, 콩유, 우유는 GMO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정제과정을 거친 후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GMO 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그 사실을 다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중입니다. 또 저를 소개할 때 기후환경 등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핫한 토픽은 축산입니다. 축산이 기후 위기에 55%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못 했었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서관에서 만난 이웃들과 매주 수요일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때문에 점점 환경적으로 비건에 대한 실천을 이야기하는데, 비건에 관한 생각과 시도 그러나 내가 아닌 나로 인해 내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의 문화가 다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것이 아닌가 고민하며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용 님 최근엔 각자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아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려니 걱정되네요. 제 이야기를 해보지만 살아온 동네를 생각해보니 다 수원의 구도 심입니다. 미혼일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결혼 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양식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라고 하는 공간이 자산증식에 있어서 정답지로 굳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았던 서문동의 경우 젊은 사람을 보기 힘들고 소음이 강하여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동네 같은 경우도 밤에 안전 문제나 인프라 구축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구도심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코로나의 경우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경우 집 밖에 나가는 것이 어렵고 (관련) 키워드 중 하나가 베란다 텃밭 혹은 아까 말씀하신 먹거리 문제, 사람들이 직접 파를 키우는 것처럼... 제로웨이스트 등이 주부와 20대 사이에서 핫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수요문제는 많이 고민하고 계신가요?

부용 님 또한 수원은 생산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소비가 크다 보니 앞으로 단절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 때의 걱정이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원이 강점이 있는 도시인지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영업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말씀 중 재난이나 위기에 따른 고립과 관련된 이야기가 더 있으실까요?

부용 님 수원은 농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동 시민농장이 서문동 거주하던 때 있었는데 그 텃밭 역시 수원의 땅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원 내에서 자급자족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재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기 같은 경우에도 서해안에서 대량발전한 전기가 공급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파괴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지역 내 공급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소형태양광의 설치로 인해 어느 정도 안심하고 있습니다.(웃음) 또한 소형태양광 또는 신재생 설비 등이 늘어난다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집에 있는 태양광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부용 님 320kW 정도로 집에 있는 가전을 사용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입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적은 태양광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네요.(웃음)

한정우 님 발달장애를 치료하는 치료사이며, 직업재활을 전공하여 아동부터 성인까지의 연계되는 과정을 지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치료는 비용이 매우 비싸 정부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시장에서 이용하는데, 언어치료의 경우 회당 4-6만 원 정도의 치료비용이 부담됩니다. 월 60-70만 원을 치료비용으로 부모님들이 부담 중입니다. 생필품이라고 생각되는 치료가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받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민간에 맡긴 상태입니다. 저희는 협동조합을 통해 부담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서비스업 즉 치료법의 한계 때문에 식품공장을 연계하여 창출되는 이익이 치료소에 적용되어 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치료와 문화의 연결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치료는 결국 교육입니다. 반복되는 교육인데 아무리 반복 교육을 한다고 하여도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들이 아직까지 그들을 받아주는 문턱이 높습니다. 문화적 접근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나면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은 신체장애처럼 장애 편의시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인식의 발전이 필요합니다. '관찰'아 함께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라는 문화적 인식만 변화된다면 우리 사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기본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그들만의 성을 만들어놓고 그곳으로 장애인들을 밀어 넣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에서 같이 살아가기 위해 (한쪽에 서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는 연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달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보고 있는데, 발달장애 노인 문제도 최근에 대두 중입니다. 그동안은 사고사나 성인병으로 평균수명이 짧았습니다. 이제 발달장애 노인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어야 해결이 될 텐데 발달장애는 어렵게도 표가 있으나 없다는 말이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발달장애에 대해 대변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이나 종사자가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데 먹고사는 게 힘들다 보니 반복되는 거죠. 우리 사회는 발달장애의 문제를 부모에게 책임을 맡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지금 '발달장애' 검색해보시면 발달장애 당사자를 죽이고 따라 죽는 부모를 같은 문제가 많거든요. 따라서 혐오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문화적인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동네에서 특별한 사례가 있었나요?

한정우 님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치료해오던 아이가 있습니다. 5-6세부터 만났던 친구가 12세 정도 되던 해 여름, 언어표현이 어려운 친구였고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더위 때문에 잠을 잘 못 지니까 베란다, 화창실에서 시원하니까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더위에 잠을 이루지 못하니)부모님 두 분이 공무원이셔서 "빨리자"하고 혼을 내셨죠.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가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베란다 문이 열려있었고 그 친구는 떨어져 있었죠. 이주대에 후송 가서 하늘나라를 갔는데 어머니가 그 친구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문자를 보냈죠. 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 데미지가 있는 거죠. 말 한 가지? 저는 그 친구의 인생의 절반을 같이 보냈는데 그 친구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안돼", "하지마"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같 거였으면 그 친구 하고 싶은 것 만껏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런데 '부모님은 어떻게?' 하는... 자신 때문에 아이를 잃었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사회적으로 '이파트를 저층을 분양해줘야 하나, 아이 컨디션이 안 좋은 부모님에게 휴가를 우선하여 줘야 하나'하는 무엇을 바꿔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계속 있습니다. 저희 동안에 식당도 치료실 한편에 만들었습니다. 밥 한 끼 편하게 먹으면 좋겠다. 밥 한 끼 편하게 엄마가 먹으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 코로나시기 정말 힘들었다. 가족하고 집에 계속 있어야 하고, 사람에 대한 혐오가 더 심해지니까. 그런 이슈들이 계속 있죠. 저희 선생님들도 같이 장례식장 갈 때도 너무 힘들었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노인 발달장애 분들도 많이 알고계신가요?

한정우 님 직접적으로 알고 있진 않습니다. 시설에 많이 계신 현황입니다.

[공동대화]

시민문화팀 한예지 공감되는 내용이 많이 흥미롭게 들었다. 다 같이 공동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대면해서 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되어 아쉽네요. 말씀 나눠주시는 것 중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주 선생님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현주 님 수원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다양한 카테고리의 (공공 시설)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서관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지리 한 칸을 지리하는 면을 보며, 공공시설 이용률이 낮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수원의 노인들이 어느 장소에서 주로 모이시나요? 다른 지방 도시의 경우 공동적으로 노인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를 나눌 곳이 많이 없으니까 버스 정류장에 많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부용 님 사는 곳이 남문에 가까운데 남문에서 키운 농작물을 판매하시기도 하고, 정류장에서 모르는 사이끼리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십니다. 또 요즘 그런 문 많이 안 계시는데 구도심은 어린 아이에게 1,000원짜리를 주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지금 도시들은 익명성이 강해져 서로 낯설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옛날 분들은 스스럼없이 오가고 특히 아이들이나 엄마들과 소통을 잘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웃음) 그런 장소로 구도심에서 특정한 곳이 있을까요?

시민문화팀 한예지 장안공원에 많습니다.(웃음) 다 같이 바둑두시고, 코로나가 아닐 때는 막걸리도 나누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김정환 님 제가 활동하는 권선구는 황구지천 산책길에 삼삼오오 앉아계시는 모습, 서초 호수 따라 세류동 쪽으로 걸어가는 산책길 인근에는 나무 그늘에 많이 계시니다. 최근에는 합동 시민농장에 가면 텃밭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한 모습



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현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서 퇴직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만든 음식도 초대해서 시식을 권하고 싶었는데 모인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연령대를 넘나드는 커뮤니티는 어떻게 가능한지 고민이 듭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텃밭 위치가 어딘가요?

김정환 님 자재하고 건너편입니다.

이현주 님 텃밭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해서 세대 간 간극을 줄이는 것에 포커스를 놓고 있는데, 지역이나 지인들을 넘어서 관심 있는 분야에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장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곳에서 생각을 증폭시켜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 플랫폼을 이용할 기회가 노인들에게 점점 줄어들고 생각합니다. 실버세대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요즘, 젊은 세대와 접촉이 많아지도록 만든다면 대화의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의 양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노인들이 아이들의 케어를 맡기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을까? 등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환 님 저도 이현주 님의 의견이 사회회복의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으로, 부용 님이 말씀하신 것 중 구도심과 신도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관한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구도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편한 점 또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부용 님 일단은 주변에 대형마트가 없고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저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웃음) 아이 용품을 무조건 온라인으로밖에 구할 수밖에 없고, 기저귀를 구하려다도 선택권이 없습니다. 최근 유치원에서 기저귀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는데 급하게 구하다 보니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구매하지 못하고,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또 구도심에 살게 되면 차가 길에 다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고 경사진 곳이 많아서 유모차 등을 사용할 때도 브레이크를 꼭 잡지 않아 유모차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위험했던 순간이었죠. 이것은 휠체어를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약자(장애인, 노인 등)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예술감독 박찬국 구도심은 밀도가 약한가요?

부용 님 밀도가 약하다기보다 다세대주택, 빌라, 단독주택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곳이 학교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학교는 이 시대의 리더를 만들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규모의 학교 형태가 아닌 더 작은 단위로 쪼개어져서 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명 한 명의 학생이 어느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 학생의 талан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네가 잘하는 것은 네가 찾아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학교에서 충분히 도와줘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음악이나 체육 미술 등 예체능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 유튜브에 각자의 채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예체능과 IT의 결합에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과목을 잘해야만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다양한 과목들을 만들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할 희망에 합니다.

작은 단위의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공유 운동장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된 학교입니다.

올해로 위탁대안학교를 3년 운영해 오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양상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 그래서 더 이상은 본학교에 다닐 수 없는 기해 학생이 주로 저희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도 본교에 다니기는 어려웠으나 저희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도 하고 대학진학도 하는 등 나름 사회의 긍정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시국으로 그리 많은 학생들이 다니지는 않았으나 기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반반 되었습니다. 한 학생의 경우 실제로 교직원반으로 우리 학교를 다니게 되긴 하였으나 이 친구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친구로 실제로 교실에 앉아서 수능대비 수업을 듣는 것이 매우 힘들고 의미 없게 느껴지면서 지의반 타의반으로 저희 학교를 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친구도 머리를 잘하여 본인이 원하는 한국무용을 할 수 있는 4년제 정규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다른 2명의 3학년 친구들은 (이 친구들은 2019년부터 다니기 시작하여 고3인 2020년도 재위탁학생임) 이들도 대학에 합격하여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 고2때 우리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으나(2019년) 이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오로지 학교에 정심을 먹으러 다니는 정도였으나 우리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후 몇 개월이 지난 11월 중순이후 상황은 좀 달라져서 뭔가 해보겠다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 친구들이 본교에서는 문제학생으로 부적응학생으로 매우 받았으나, (본교는 워낙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을 쓸 수 없는 환경임에 틀림 없지만) 이 친구들은 위탁대안학교라는 곳을 선택하여 다니면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사회의 긍정적인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사회가 달라진만큼 부적응학생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 오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초기에는 세상만사 하고 싶은 것이 없는, 미래에 대한 목표도 없고, 사는 목적이 오로지 원초적인 욕구 충족 이외에 존재하지 않는 학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아웃사이더 이고 아무도 본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투명인간 같은 존재. 그러나 적은 인원이 학교를 다니는 저희학교 같은 대안교육에서는 인원이 적다보니 본인들이 주인공이 되고 선생님들과 눈을 맞추고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런 생활이 몇 달 흐르다 보니 그래도 뭔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긴다는 것(1차원적 욕구 이외)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학생들의 생활을 바꾸어 놓는 시초가 되는 것임을 이 친구들과 생활하면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과거에 비해 다소 양상이 달라서 저희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진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학생은 작곡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한 학생은 보컬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싶고, 한 친구는 에세이 작가가 꿈인 친구입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는 학생들인데 본교 생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진짜 대안교육이 필요해서 저희 학교를 선택한 친구들입니다.

지금들 4차산업 시대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시대' 언저리 이야기인지 모르겠으나 현재야말로 '개성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해야 한다고 그걸로 가는 것이

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연령대가 높고 외국인도 거주하여 저녁에 활동할 때 무섭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웃음)

예술감독 박찬국 아무래도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아서) 거기에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는게 어렵겠네요?

부용님 실제로 아이 옷을 판매하는 곳이 다 없어져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고, 벽화전을 가야 한다던가 오픈리인에서 구경하긴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공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정을 많지 않고 반려견을 데리고 나온 가정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 동생은 90년생인데 도레가 60만 명이려면 제 아이의 도레는 26만 명입니다. 수치로 보니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미래에는 아이를 보는 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놀이터 등도 부족하나요?

시민문화팀 한예지 행궁동엔 놀이터가 하나도 없어서 마을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 이제 하나를 건설 예정입니다.

부용님 그래도 구도심 중 행궁동이 육아에 좋은 것은 방화수류정이나 공원 등에 아이를 데리고 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힘들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경사나 도로 폭 등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부용님 서호공원, 상상캠퍼스에서 서호공원까지 가려면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하는데 전투기가 뜰 경우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항상 긴장하며 다녔습니다. 현재는 개발 중이라서 공사 중인데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습니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분이나 노인들의 경우 매일 겪어야 하는 일이나까 그분들의 관점에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많이 구체화되었네요.

오늘 말고도 개인적으로 어쨌보거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는 영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발달장애 노인의 경우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아이들도 그렇지만 노인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또한 좋은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신 것을 사실적으로 작업할 수도 있지만 독특한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용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활동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공동단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함께하는 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참석이 불가능하여 문서로 의제전달]

임항숙님 안녕하십니까, 위탁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임항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마을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 학교는 고등학교 과정으로 정규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어하거나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 유해한 행동을 한 친구들 또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적응학생이 사회에 나아가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혹은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도록하기 보다는 오히려 잡아줄 수 있을 때 더 관심을 가져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소개]

시민문화팀 한예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중·동 예술중·동'은 도시중동 예술중동은 여러 레이어를 가지고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도시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섯 개의 배역을 가진 흥미로운 전달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중동단으로부터 도시의 이야기를 듣고, 수집된 이야기를 기반으로 기록생산자들이 리서치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온라인영토라는 웹페이지에서 공유가 되고 흥미로운 전달자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교통 일대에서 이야기를 재생산합니다. 교통에 전사된 작품은 의자라는 매개 또는 심볼과 함께 관객을 만나게 되고 작품관람을 위해 의자에 앉은 시민은 이 프로젝트의 관객이자 일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온라인영토와 책자에 기록이 될 예정입니다. 도시중동단은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배역으로 도시 이슈를 말하고 프로그램 전체에 애정을 가지고 지켜주는 극의 수호자입니다.

시민문화팀 박경홍 문화도시팀장 박경홍입니다. 늦은 시간에 회의를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쓰니 용감해지는 것 같네요.(웃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보니 문화도시사업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셔서 제가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문화도시의 여정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지만, 수원은 2011년도에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빠르게 제정을 한 편이고요. 2014년부터 수원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2018년도부터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에 선정되어 5년 동안 추진을 하게 되었고 올해가 4차연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40개의 시군이 함께 도전한 예비 문화도시 경쟁에서 선정이 되어 3차 예비문화도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신 사업은 수원형 공공예술 실험의 한 부분이고요. 수원형 공공예술은 문화도시 안에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축제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신 것들은 잘 기록이 되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선글라스에 자신감을 얻으셔서(웃음) 많이 해주시고, 깊이 있는 내용 또한 자유로운 시간에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공공예술이라고 하면 전문적이고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고요. 그러한 얘기를 계속 설명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 수원의 동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얼굴을 보면 좋았을 테지만 지난번에 (이슈탐구테이블을)해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일종의 도큐먼트 작업을 해주시는 작가 선생님들도 회의에 참석하시고는 하는 데 매우 흥미로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함께 수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수원 문화

참가자 : 예술감독 박찬국, 시민문화팀 박경홍, 시민문화팀 한예지, 프로젝트매니저 이예진, 땅도프로덕션 송출팀(2인) 도시중동단 - 신승녀, 강남철, 소소(최지영), 황동준, 김도형, 리서치작가 - 이태강, 윤영국, 김민지

도시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2년마다 한 번씩 적극적으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재단에서)계획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올해가 첫 회다 보니까 감각스럽게 오브젝트를 만들고 도시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함께하고 의미와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를 1-2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시민들과 작가, 전문가가 서로 개입하고 (기회를)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상황극, 현실적인 조건 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극의 배역으로서 어떻게 참여해볼까? 같이 함께 공유해보면 어떻게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배역으로서 도시중동단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수원을 잘 알고 있는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듣고 수원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소개를 돌아가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녀 반갑습니다. 중 회의도 집에서 다리 쪽 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은 좋네요.(웃음) 저는 작가이고 현재도 저희 단체의 정기전이 수원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더 소개를 드리자면 작년 수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기획을 했던 경험이 있으며 오늘 느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소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년차가 된 '더 즐거운 교육'이라는 교육회사를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교구를 개발하여 수업을 더 즐겁게 하는 일도 하고 회사가 수원공공실버주택 상가에 입주해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으로 문화재단과 함께 일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느낀 점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황동준 수원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현재도 살고 있는 청년입니다. 올 2월에 군대를 전역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며 이런저런 활동들, 수원시 청년들을 위해 의견을 내는 수원시 청년예비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예술가분들과 프로젝트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밝고 참신한 의견이 예술에 있어서 반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남철 저는 수원예술아카데미라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하여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저는 광고인으로서 생기기 6년 전쯤 이주한 주인이며 회사원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경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어떻게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지를 업으로 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슈탐구테이블]

시민문화팀 한예지 주변의 이야기, 도시의 이슈, 문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거나 확장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형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의 경험입니다. 예를 들면 대개 시의 행정이라는 것은 보편적이고자 하는 속성을 가지는데 그것이 경험의 수준으로 내려오면 보편적일 수가 없고 개별적이어서 특수합니다. 문화예술행정 안에서 다루어지는 시민 혹은 주민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평평하게 다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주민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을 만들거나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인데 부질없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공공미술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활동이라면,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수원의 정체성', '브랜드' 등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역의 시민들이 고유하게 가지는 경험이 어떻게 구성되어있고 변화, 성장, 혹은 악화 되는지 초기단계에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부닥드리고 싶은 것은 평평하게 다루어지던 시민들의 경험이라는 부분을 재미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상에서도 그러한 점을 만들어내요. 스티브스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넉네임을 자유롭게 정하잖아요. 사용자들이 그 시스템을 일종의 해킹, '커피는 커피핀' 같은 넉네임을 지은 사람의 넉네임을 호명할 때 지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이처럼 별거 아닌 일상생활의 규칙을 바꾸어보고 교환해보고 다르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사소한 경험을 바꾸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재미난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면 어떻게 합니다.

수원시에서 사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어떻게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수원시민들은 어떤

생각과 대응을 하고 있는지 등의 주제가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보자면 '전더감수성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이 지역 안에서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는 것처럼 말이죠.

예술감독 박찬국 지난 이슈탐구테이블에서 구도심에서 아이 키우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로 아파트와 다르게 길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고, 마트 등의 접근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저귀 등을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광고는 대규모단지니까 아까 말씀 주신 전더관점이나 장애인, 공간과 관련하여서 해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김도형 함께 이야기해 드리자면, 신도시는 지금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라면 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아차는 물론이고 마트,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컴팩트하게 만들어졌죠. 하지만 그것이 아이를 양육하기에 반드시 좋은 환경이라는 물음표입니다. 도시가 갖춘 인프라는 고마운 일이지만... 제가 전더감수성에 대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판매되는 상품 등이 다른 부모, 선생님들과 사소한 미찰을 가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데 생일파티를 할 때 남지아이는 파란색 왕관, 여자아이는 분홍색 왕관을 씌우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지만 잘 바뀌지 않죠. 저와 같은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이 날개로 존재하고, 별것이 아닌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웃음)... 결론적으로 인프라가 좋은 환경이지만 그것이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의견입니다.

신승녀 해주시는 말씀 매우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시는 일이 IT 관련 인지과학이라고 하셔서 궁금하고 관심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도시와 문화에 관해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김도형 관심은 많지만 천천히 생각한 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웃음)

황동준 저는 수원지역에서 태어나고 미취학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시기를 겪었으며 앞으로도 중장년, 노년층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연대, 화합과 소통은 중요한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인데 길에 그림 하나 길거리에 걸어놓는다고 해서 문화가 바뀌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더디 걸리라도 수원의 인구문제, 인구구성원, 18만 명이 123만 명으로 어떻게 늘어나고 지역적으로 분포되었고, 생활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인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파악하여 고집내지 않으면 서수원의 사람들은 광고에서 무엇을 해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 달 전에 스트리트 갤러리 '교통실험예술단'을 했는데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광고의 사람이 교통의 스트리트 갤러리에 나왔을까요? 공간했을까요? 그런 것처럼 공공예술이라는 것이 수원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협소하게 국부적으로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준 자료를 보면 도다시 교통 쪽에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에 있는 그 예술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예술의 해결을 일단 교통에 있는 사람들부터 해결하며 차근차근 넓혀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교통이 해결되면 항공동, 항공동이 해결되면 팔달구, 팔달구가 되면 수원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수원형을 만들어야 하는지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작품하나를 설치한다. 그것은 지역주민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말이 길어지는데 결론을 이야기 해 드리면 너무 폭넓게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처럼 소소한 것처럼 시작하는 것이 어떨것느냐 생각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도. 저도 말씀드린 것에 공감합니다. 수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메갈로폴리스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들의 특성이 수원에서 매우 잘 나타납니다. 70년대보다 6배가 늘었다는 말씀, 지역과 조건이 너무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되며 그 안에는 여러 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레이어에 따라)정형과 욕구가 다 다르지만 하나의 행정단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할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마다 이것을 할 계획이 있다면 빨리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경험들이 만나고 교차하는 시도를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계획서에도 보시면 느끼실 수 있겠지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예술은 리서치와 달리 행위를 반영하고 그것을 재시치하고 다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티스트들이 흥미로운 현장과 주제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2-3달밖에 작업을 할 시간이 없으니 수원을 '크키리 다리, 모기 다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모근 체로 내 눈앞의 것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는 뜻입니다.

교통의 경우는 교통이 중심이 아니라 각 현장에서 (수원에 대한 의제가) 자유로운 형태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교통에서 다시 한번 집약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보자는 이야기이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인식하고 매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동대화]

시민문화팀 한예지 한 분씩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승녀 님 선생님들 말씀 다 듣고 보니 생각할 것, 배울 것

지 모르겠지만 미술 심리치료를 외국에서 공부하고 국내에서 고단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오랫동안 미술과 치유, 심리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내담자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증세, 진단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활동 방향을 많이 바꾸어서 미술을 증세하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7-8년 정도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수원역 앞에서 노숙하시는 선생님들과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대중에게 선보이고 노숙하셨던 습관을 미술로 사회에 재진입하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떠한 곳에 변화 하나가 그려서 난리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듯 미술 특히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까 황동준 선생님의 말씀처럼 서서히 스며드는 것도 좋지 않지 않을까 걱정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수원의 소외되고 번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강력하게 돌려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문화영토를 예술가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들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다 하는 생각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강남철 님 저는 일단 몇 달 전부터 수원형 공공미술이라는 말을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으면서 수원의 공공미술이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에 관해 이야기를 하며 교육과 인프라 등을 이야기했는데, 2년 전쯤 서수원에 거주하는 지인과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광고에 살다가 서수원에 오니까 상당히 차별화를 느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광고와 서수원에서 어떤 차별화를 느끼는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느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추가로 수원이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원은 1970년에 18만 명의 인구였는데 2020년도에는 123만 명으로 한 6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인구가 늘어난 것에 더하여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수원의 정체성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지의 사람들 때문에 현재 구도심, 신도심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몰과 기풍처럼 들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원이 좋은 도시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수원이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광고, 세류동, 태안동, 서수원, 정자동, 호매실동 등 부분적으로 성처럼 왕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공동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그렇다면 수원형 공공미술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단순히 길거리에 그림 하나를 붙여놓고 설치미술 하는 것으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수원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떻게 다가가기 할지를 원론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의 프로젝트가 단발적,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도 수원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다. 이것은 큰 틀에 빗방울이 하나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살펴보면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평소 애 하고 가지고 있었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원형 공공미술이 무엇이나? 어디서 나온 것이냐? 또 누가 동의를 했느냐?입니다. 수원형 공공미술의 정의가 무엇이고 누가 동의를 했으며 공감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묵시적으로 그것을 만들었는지 수원시장이 도장을 찍어줬는지 둘 다 아니거든요. 풀로 비유하자면 풀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너무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 오히려 잘 어울리며 생활을 했던 경험을 하였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이주한 친구들도 많이 보았나요?
황동준 님 해외에 살다 온 친구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한 학년에 5명은 이주해온 친구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소 님 황동준 선생님 이야기 들으며 상당히 공감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어르신들 사이에도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곳은 공공실버주택이고 입주할 하게 되는 1순위는 국가유공자, 유공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며 2순위는 저소득층 이후엔 일반인입니다. 이곳은 공공실버주택이고 대부분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각자 흩어져 지내시다가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고 저희 또한 처음 입주할 때 함께 입주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거주하시던 분들이 함께 모여 아는 사람도 생기니 다들 행복해하십니다. 아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상을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공공실버주택의 대각선 방면에 민간실버주택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르신들이 일반분양으로 우선 배정되는 실버아파트인데 광고 지역이지만 아파트값은 조금 더 저렴하고 저소득층이거나 그러한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길 하나를 대각선으로 몇 초만 건너면 있는 민간과 공공 실버주택의 거리에서 어르신들은 매우 높은 벽을 느끼시곤 합니다.

공공실버주택 아파트에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는 공공, 민간, 일반 어르신들이 모두 방문하는데 프로그램 내에서 간담이 서늘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처음에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잘 지내시다가 거주하는 곳을 서로 알게 된 후에는 갑자기 표정이 바뀌시고 자리를 피하시곤 합니다.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이야기를 잘 나누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를 피하고 민간실버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분위기 또는 너희와 다르다는 반응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상처를 정말 많이 받으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에서도 공공실버주택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실버주택 어르신들이 계산 곳에는 공공실버 어르신들이 잘 가지 못하시는 것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돈인 거 같아요. 서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층이 생기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짧은 신호등 하나의 거리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복지관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많이 들는데, 예전에 흑백 사진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원천에서 빨래했다던가 6-25 때 어렸고 하는 말씀들이 저는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쉽다.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기록하고 보존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동시대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경험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거리에 관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신승녀 님 선생님을 말씀 들으면서 이 자리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동네 이야기부터 해드리자면 저희 동네는 광고와는 전혀 다른 구도심 행공동에 있습니다. 행공동 중에서도 바로 옆에 행동을 끼고 있는 마을이며 온갖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고 언뜻 보셨을



게 생각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라는 말처럼 저는 그렇게 지리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사촌, 스승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청소년 시기 부터 대두되었던 문제가 과잉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연대, 화합, 공존이라는 것에 대해 개념이 정확히 형성되어있지 못하고 몸소 행하기 어려운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 사회를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선후배 간 서로 밥을 시주기도 하며 오가는 문화가 있었다면, 현재는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더치페이로 심 씀 단위까지 나눠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밀접한 접촉과 소통이 선후배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합과 같이 간다는 번영이 아니라 경쟁이 기반이 되어있고 타인이 조금 더 잘하는 것에 대한 시기과 질투, 타인을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어린 시절부터 청년 시절을 살아왔고 특히 수원은 학구열이 센 지역이 있어서 연대와 화합 등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공공예술을 통해 전체적인 세대를 아우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해 그 가치들을 부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로서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스며들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10~30대에 가장 부족한 연대와 공존의 감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술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에 어린 시절부터 계속 거주하고 계신가요?

황동준 님 네 2004년도부터 계속 이 지역 안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초중고도 변경 500m 안에서 나왔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구체적으로 그 동네에 이주하거나 아직 거주하는 친구들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황동준 님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아파트가 지어지며 함께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초등학교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파트에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중학교를 진학했을 때는 반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반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었죠. 어떤 부분에서는 셀러드볼 이론처럼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반대 측면으로는 몰과 기풍처럼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단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을 따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 모습을 비극적이라고

이 많네요. 저는 어렸을 사회의 문젯거리 안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으로서 여러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게 있습니다. 킬 빌리프의 말이 떠오릅니다. 영토성에 관한 건데 광고에 살던 서수원, 서문동에 있던 사람들이 식물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희성이 있는 존재들인데 저는 수원형이던 아니던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오랫동안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수원에서는 영동에서 살았고 지금은 일부러 도심으로 외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수원 안에서만 지역적인 것에 몰두한다거나 수원 것에 관한 정체성을 찾는 것보다는 21세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상을 매일 공유하는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움직여 볼 수 있는 매개체로, 흥미로운 장소가 있는 교통 같은 곳에 움직여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교통은 수원의 초기 시민이라면 더 그렇겠지만 고향에 가는 것처럼 추억의 장소로 안내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통의 스트리트갤러리는 코로나 방역의 시대와 잘 맞아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며 잘 구축되었으나 비어 있는 공간이기에 안타까웠습니다. 사람들이 동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고향 같은 장소에서 예술 활동을 해보면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제가 고향에 설치되는 환경에 대해 조금 생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교통의 갤러리를 중심으로 고려했던 것은 아니고요. 고향이 옛날의 재밌는 영화의 흔적, 빈티지 기계, 음식점들이 있는 지점이 아직 남아있지만, 도청도 이전하고 건물도 많이 비어가고 있어서 지금 지역에서 운영 중인 상가에서 자리를 조금 내어주신다면 각 지역이나 주제에 따라 다른 현장에서 했던 작업을 2주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지금 그러한 공간성을 만들기 위해서 영상을 감상하는 시민의 자리들을 의자들로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블루 컬러의 팔걸이 의자, 휠체어로 만든 의자처럼 특별하거나 재밌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의자가 놓인 장소를 찾아가고 고향에서 놀아보기도 하고 인근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올해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와 내년은 이런 과정을 거치며 아까 강남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월까를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원형 공공미술이라는 말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컬(지역)에서 일들을 수행할 테니 그러한 조건 및 과정들을 계속 겹쳐보려고 합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모인 자리는 주변의 문제, 이슈,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면 어떠한 사건이나 장소, 경험을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소님 매항동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갈 일이 없지만 일 때문에 가보게 되었는데 그곳은 주택이 많은 동네이다 보니 아파트 위주의 삶을 살던 저에게 생소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분이 거주하시겠지만 프로젝트를 하신 건지 집마다 우체통이 있고 급귀가 적혀있었습니다. 그 글들을 지나가며 읽어보니 미소가 지어졌고 경기만 해도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길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 자체가 하나의 무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은 집마다 개념이 있어서 가능했다면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상

적인 공간을 통해 예시지들을 노출시킨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아까 말씀해주셨던 노인시설의 동네 이름은 어디인가요?

소소님 원천동입니다. 광고로 변위는 속해있으나 골다리를 건너면 신도시 느낌이고 이곳은 그 초입으로 아주대 근처에 있습니다. 병원이 있어서 실버타운 형태로 설계가 되었고 근처에는 요양병원 등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많이 가시기도 하고 응급 시 아주대병원으로 바로 호송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도형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 것이 있는데 황동준 선생님께 여쭙보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수원 청년커뮤니티 내에서 요새 많이 이야기되는 젠더이슈, 갈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승녀 선생님께서는 노숙인들의 재진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결과가 현재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리고 재진입의 필요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소소 선생님께서는 일반실버타운과 공공실버타운의 섞이지 않는 문화가 굳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관행이 이어진다면 그것(일반실버타운과 공공실버타운의 노인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고 각자의 공동체에서 친밀하게 지내는 형태) 자체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는데 어떠한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황동준님 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 청년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대다수 청년 커뮤니티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젠더갈등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로 젠더갈등이 심해지고 중간중간 미투운동과 사건들로 불거졌다고 봅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일부 극단적인 여성, 남성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지속해서 논리와 사건 전개 과정을 무시한 채 감정적, 왜곡적으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현재는 계속 화두는 되지만 약간씩은 서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젠더갈등이라는 것이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정도로 꺼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0-60세대와 다르게 초등학교부터 받아온 교육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기성세대분들은 남녀 차별이 너무 심했고 여성 인권이 보장받지 못했지만 21세기에는 존재는 했었지만 심각하게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남녀 커뮤니티에 있어서 피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간지대의 사람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힘든 것을 도와주려고 하며 저희 남성 같은 경우에 군대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슈를 극단적인 사이트에서 먼저 터트리게 되니까 피로감을 받습니다. 서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데 절대적인 균형과 배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피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청년의 풍문인 것 같습니다.

소소님 저에게 주신 질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주로 공공실버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프로그램할 때 민간실버 어르신들도 자주 오셨지만 점점 한 두 분이 오시다가 어느 순간 안 오시더라고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는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갔더니 어디 사냐고 물어보고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더라", "은근히 무시한다." 이런 말로 서운함이 계속 있으시고 복지관에서도 그러한 점을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두명한 벽이 때로는 부딪히면 아프기도 해서 가까이 사는 이웃

인데 본인들이 소외되고 속상하게 느끼시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신승녀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이 굉장히 멋진 도시라고 하는 게 재진입이라는 단어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나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다시 서기'라고 있습니다. 서울역에도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저 혼자만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단위의 일부인 문화적 부분을 담당하며 미술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다시 서기의 사업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는 역할은 미술로 무엇인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시면 길에서 반명생을 살아오신 분에게서도 미술이라는 것은 잠재되어있고 그걸 분명히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치이며 미술로 찾아내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합니다. 전시를 하는 건 일정한 부분의 수준으로 올라가겠다고 스스로 노력하여 사회를 만나게 하는 중간영토로서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수년간 이 경험을 하며 느끼는 것은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내어 보여주는 것들은 재진입의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서기에서는 일자리까지 기계 하시고 공공주책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지분을 찾는 것까지 하시지만, 저는 심리적으로 자신이 사회에 재진입하겠다는 재사회화를 만드는 것을 문화로 통해 제공하는 것이죠. 재진입이라는 용어는 저 스스로 사용하지만 다시 서기가 더 많은 부분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저는 강남철 선생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수원이 갑작스럽게 인구증가 등으로 커졌는데 그로 인해 발생했다고 말씀하신 다양한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강남철님 저도 그 문제를 몇 년 전부터 고민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허라이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공통적인 주제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수원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것이냐, 하나는 지역을 협소하게 볼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교통을 중심으로 한다면 교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수원형 공공예술이라면 수원을 포괄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젠더문제, 노숙문제, 공공실버문제 등을 이야기했는데 서로 공감과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고교 통학을 만나면 상당히 편합니다. 이미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구가 잘살아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웃음) 차별이 있는 상태에서도 통학을 만나면 편한 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원에 있는 원천동의 실버주택 같은 경우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젠더와 노숙인 문제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수원사람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것 즉 공공예술이라고 주제를 잡는다면 주변에 공공예술작품이 많잖아요? 우리 수원은 550점 정도가 있으며 금액으로 치면 500억 원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한 정당 9,000만 원파리의 작품이 550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통뿐만 아니라 수원 전역에 있다는 것이기에 가장 접근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작가들이 나서서 수원지역에 분포되어있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활성화와 공감대를 형성하면 그것이 수원형 공공예술의 의미를 나타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선생님 그럼 혹시 조사하신 리스트나 조사한 내용을 갖고 계산한 것이 있으실까요?

강남철님 저는 그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예술작품이 한두 개씩 있죠. 수원시청에도 있고 웅장한 건물에는 조각상과 그림이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고 미술을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수원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의 공공 예술 시진을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수원지역의 공공미술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며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공미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두 참여할 수 있으니 실버타운, 젠더, 노숙인 등 각자의 갈등이 없어지는 것이죠. 공공예술로서 접근을 하지고 하니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 있는 작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소님 강남철 선생님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다. 어르신들이 잘 섞이지 못하는 부분이 공감과 교감 때문이라는 것에 공감과 동의가 됩니다. 공공미술이라는 것은 예술작가분들이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러한 미술 프로젝트 자체가 하나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예술을 통해 함께해보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어르신들에게도 그리고 모든 세대마다 공공미술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지역 분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획하는 것은 아티스트 분들이 주도적이겠지만 작품이 되는 것은 지역에 사는 분들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었다는 그런 감정과 교감이 작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그러한 경험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했습니다.

신승녀님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강남철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한 게 기존에 있던 공공예술을 재배치한다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활용해보는 아이디어는 정말 굿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작년 수원의 미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나왔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가격도 천우후우한 거대한 금액을 가지고 작가들 100명과 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공공예술에 대해 역사강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현재 공공예술은 어떤 물건들이나 작품이 놓이는 방식이 아닙니다. 작년에 공공예술을 저희가 풀어낸 방식은 생활밀착형에 누구나 미술을 해보는 방식으로 작가들을 투입하였습니다. 저희는 7개로 나누어 수원 전역에서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서문동이 어르신과 작업을 하는 팀이었습니다. 강남철 선생님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교감하는 부분이 소통이나 교류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작년 수원에서 많은 작가들이 그러한 점을 진행했습니다. 일곱 팀 중 1팀이 여성 노숙인 선생님님과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의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누구나의 일상하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김도형 선생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아까 광고 이야기를 해주시며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환경이 맞지만 그게 100%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갖춘 도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도형님 제가 물어버릴까 봐 선생님들 말씀 중 생각했던 것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질문해주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연대와 교감, 화합, 공감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것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

습니다. 아이를 낳는 인구도 줄어들다 보니 상대적으로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값에 대한 절망적인 생각도 있지만 어차피 혼자 살 거니까 좋은 집에 비싼 월세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대해 막막함이 있는 반면 경제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 오히려 내 집 마련에 대한 미련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책을 마련하려는 생각과 시도는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원룸, 오피스텔인가요?

황동준 님 경기 청년주택 등을 (청년들이) 추가공간으로서 본질적인 의미를 둔다면 현재 충분히 의식주의 주(宙)가 해결이 되겠지만, 집을 자산가치로 접근하는 청년들은 충당이 되지 않았겠죠. 저희 청년세대 들은 다양한 관점이 있어서 주거공간, 자산 가치 등 각자의 시선에 따라 집값 상승의 이슈에 복잡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승녀 님 어떻게 하다 보니 오늘 노숙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저는 지폐 어린이, 성인과 일을 더 많이 해왔습니다. 소통의 어려움을 가진 장애의 사람들과 수십 년간 일하며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통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각자 수원에 대한 예정 있는 통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행복동 이야기를 하려면 외국과 영동에서 오래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행복동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저희 집을 들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문을 들어오면 편안하고 안락하며 복잡했던 일들은 해소해주는 것을 느낍니다. 정착한 이 지역에 스스로 찾아오기까지 수많은 여정을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리며 행복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장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특별히 행복동이 행복한 조건을 만드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신승녀 님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이 안락하게 느껴지고, 아파트가 높이 솟아올라 있다면 행복동은 제약이 있어서 낮은 건물로 인해 하늘이 항상 보이고 얼마 전에 이웃들과 쌍무지개를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높이 치솟는 것을 사이에서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예술감독 박찬국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이 많은 인사이트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작가와 작업이 만들어지기에는 조건상 어렵지만, 이 기록들이 작품이 되든 안 되든 누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들 속에서 작가들이 흥미로운 과정을 만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께 연락을 드리거나 조금 더 깊이하자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웃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굳어있는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 연관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비연대하고 때로는 차별하게 만드는 힘 그리고 그 편안함, 단단함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인 것이 갖는 거대한 알에 이 연대와 공감의 기틀을 먼저 세우는 게 잘못 접근이 된다면 영향을 미치기에 초라할 수 있다. 좋은 이야기로 스쳐 지나가는 연대나 화합의 이야기는 사실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양궁선수들이 정조준이 아니라 오조준을 해야 10이 되는 것처럼 연대와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에도 운동 프로젝트의 내용이 연대나 화합으로 피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차이와 비연대, 갈등이 더 공감하기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어서 출발점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장만 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의 표현을 고치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도시는 아니고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좋은 도시입니다. 양육하는 부모들이 아이가 아팠을 때 병원에 보내고 보육이 필요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에 보낼 수 있게 매우 컴팩트하게 짜여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은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로 외지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교육열로 틈틈이 조짐이 도처에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양육자로서 편리한 면이 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인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양육자에게 좋은 환경과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다를 수 있다.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강남철 님 제가 반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김도형 님 교감, 공감이 막연하게 틀리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활동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이 활동하면 대화 없습니다. 다들 얼굴을 쳐다보면 '나 잘났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말 걸기가 매우 어려웠었는데 그 분위기를 깨기 위해 저 혼자 스스로 재미난 게임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억울만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안 먹었지만 삶은 달걀 다섯 판, 굴 한 상자 이렇게 가져다 놓으니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한 일 년간 저 혼자 가져다 놓지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갖다 놓습니다. 하지만 '내가 1년이나 음식을 사다 놔는데 왜 나만 갖다놔? 왜 먹기만 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정도 지나니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도시락에서 음식을 건네주기도 합니다. 한 2년 정도 되니 점심을 함께 권유하기도 합니다. 교감과 공감은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 길고 멀리 생각하면 조금씩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예술 역시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사람들이 교감을 얻을 수 있을 그것으로 생각하여집니다. 김도형 님의 환경과 생각하는 부분이 저와 다를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는 것은 어떨는지 생각해봅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공공예술보다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황동준 선생님이 가장 젊은 파트를 맡아주신 만큼 요즘의 이슈인 집값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나 이야기 전해주시실 것 있으신가요?

황동준 님 집값은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30-40세대도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세대에서 집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자 하는 결혼적령기의 나이도 올라가고 있고 합계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7명이 되었

이기는 하나 왜 바람난 여자가 출몰하며 이상한 노릇이라고 이야기했다. 현재도 돈 많은 신여성에 불과할 뿐 논란의 대상이다. 그에 반해 역사책 한 페이지에는 수원이 축점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없다. 너무 당연한 객관적인 사실을 나열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혜석 거리, 나혜석 생가터 등 조형물과 표지판이 생기면서 논란은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해야 하기 때문에 되려 독립운동가로 유색시킨다.

이 모든 걸 합쳐보도록 하지. 정조라는 성군이 화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화성은 지금까지 현존하며 그 중심성은 일제강점기에 이어 근현대까지 이어진다. 최근까지 번성했던 남문의 지기가 이를 대변한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로 나혜석이 발굴됐지만 부정적 평가를 긍정으로 바꾸기 위한 독립운동가의 지위를 부여한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모두 시대에 따라 복잡한 상황과 다면적인 얼굴을 해석하기보다 하나의 담을 요구한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감추고 빛나는 것만 취한 후에 브랜딩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이 모든 걸 한 발짝 밖에서 바라보면 남독이 간다. 우리는 수원을 밖에서 바라보고 꾸미려한다. 단적인 사례로 행궁 안에 한옥을 지으면 보조금이 나온다. 옛 한옥은 1990년대에 철거되고 남아있지 않으니 새롭게 옛 조선의 풍경을 재현하려고 한다. 관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눈도한 다음까? 구도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옛 골목 풍정이 남아있는 화성 안 마을을 이미지적으로 소비한다.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낭만과 환상을 선사해주는 장소이다.

관광객의 눈은 지극히 상업적이다. 전혀 생활적이지 않다. 구도심에 살고 있는 수원 사람들 또한 관광하기 좋은 특정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마저 타인의 눈으로 적극 브랜딩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생활인들은 어디에 있을까? 아니다. 생활의 성격이 짙은 이웃과의 관계와 예측 어린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거주하는 장소보다는 지어지는 공간에 관심이 크다. 그럼에도 곧잘 도시의 소비적 측면만을 부각한다. 사실 도시는 무엇보다 생산적이다. 공장만이 생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도시의 공간 자체가 중요한 투자처로서의 대상이 된다. 하시모토 겐지는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부동산 투기, 대규모 토목공사, 공간의 거래 등이 중요한 경제 활동이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이 생산 수단의 일부를 이룬다'라고 말했다.

자본주의 안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예컨대 주택 부족, 낮은 임금, 환경오염 등을 국가는 도시개발을 통해 해결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를 체득하고 투자의 눈으로 집을 찾아 모험을 떠난다. 그 모험의 중심에는 메갈로폴리스인 서울을 향하고 있으며 서울의 일지리와 기회를 찾아온 이들은 커다란 벽 앞에서 위성도시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그 위성도시 중에 수원이 있다. 수원을 부동산의 언어로 바라본다면 타인의 눈으로 바라본 수원은 정상이다. 문화재로 개발이 막힌 구도심은 브랜딩되어서 편향은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머지 땅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리고 그 장소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결과 연구의 증가

수원 하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말은 사동팔달이다. 전근대 시기 6개의 대로 중 저주가로 수원을 관통했으며 화성신도시 개발로

문화시설보다 생산의 건조환경이라 불릴 상업적 건조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

수원의 정체성은 딱 브랜딩에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수원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정조의 도시 수원이라는 말이 익숙할 것이다.

정조의 도시일까? 그렇다면 화성행궁 안 도시가 진짜 수원의 정체성일까?

60대 이상의 토박이들은 화성행궁 안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리고 수원의 중심이었던지를 회상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건축물인 화성행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조선시대 중요한 도시였던 한성, 전주, 나주 등의 성곽들은 일제강점기 때 모두 철거됐지만 유일하게 수원의 화성만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중요한 내륙 구도심 상주, 성주, 경주, 공주, 나주, 원주 등이 일제강점기 때 쇠퇴하고 부산, 인천, 목포, 군산, 마산 등 개항장 도시가 번성하게 된다. 내륙도시인 수원은 개성과 더불어 그 자리를 유지했던 몇 안 되는 도시였다.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6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물어보면 된다.

"전기 언제 들어왔나요?"

그럼 그때부터 서로 난리가 난다. 조금이라도 먼저 들어온 동네는 늦게 들어온 동네사람에게 존놈이라고 놀리기 시작한다. 장난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전기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수원의 구도심인 화성행궁 안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 전기가 들어온 몇 안 되는 도시였다. 서울에는 비할 바 못 되지만 수원 사람들에게겐 하나의 자부심이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다. 증거이기도 하다. 수원은 단절되지 않은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근대화된 주요한 도시였다.

이젠 전기가 가장 빨리 들어왔던 구도심을 함께 걸어보자. 두 번째는 질문을 던지지 않아도 답이 나온다.

"예전에 여기 보건약국 지리가 제일 땅값이 비쌌어.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때 서울의 명동만큼 지가가 높을 정도였다고 말한다. 주변 오산, 화성, 의왕, 용인 사람들은 장을 보거나 혹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수원으로 왔다. 그리고 상급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도 왔다. 이는 서울과는 독립적으로 도시의 기능을 수행했던 경기 남부의 중심이라는 의미이다.

조선 후기의 영향권을 이야기하더라도 수원은 한강 유역에 속하지 않는다. 조선시대 물자교류는 수운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물자교류는 문화교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한남정책을 경계로 수원의 문화권은 황구지천을 따라 진위천, 안성천으로 이어지며 하구 부근의 아산만까지 아우른다. 그래서 가까워 보이지만 성남과 수원보다는 안성과 수원이 더 친하게 지냈다.

두 가지 질문의 결과를 종합했을 때 도시의 정체성은 전통과 중심성이다. 그리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이는 행궁동 안의 신봉초등학교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대한제국 때 세워진 학교는 행궁의 일부를 교사로 사용했다. 하지만 학생 수의 감소는 주변 남양초등학교와 신봉초등학교 중 한 학교만 존치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며 정조의 빛나는 역사를 재건하는 것으로 결문을 맺었다. 양국의 왕보다는 정조가 더 훌륭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남성 중심성이다. 서양미술학자로 유명한 나혜석은 수원 사람이다. 현재는 공중파의 조명과 인식의 변화로 인해 수용되고 있지만 막상 장년층과 노년층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나혜석 거리가 만들어지고 관에서도 다루어지면서 받아들여진 것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도시개발과 브랜딩

2000년대 초반에 박카스에서 시행한 국토대장정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했다. 어떤 계기로 유행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추측건대 제약사의 입장에서 광고 수단으로 젊은이의 패기를 각인시키려는 의도였고 우리들은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결국에는 정복했다는 성취감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 박카스 대장정을 자기소개서에 한 줄 정도 기재할 수 있는 매력도 있었다. 이런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줬던 유명인물은 10대 시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비아의 영랑도 컸다.

나는 단제로 걷는 국토대장정은 불편했고 여행의 낭만은 붙잡고 있었던 터라 무턱대고 도보여행을 감행한다. 문제는 대체 여행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박카스의 국토대장정을 벤치마킹했고 무식하게도 그 평원에 도로를 걸었다. 단지 지도에 '어디까지 갔다'라고 표시하기 위한 성취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행 내내 본 건 아스팔트 도로와 자동차 그리고 산이었다. 분명하게 각인된 건 우리나라는 산이 진짜 많다는 것뿐이었다.

성취감의 욕구로 돌돌 뭉친 여행에서 다른 여행으로의 이동은 4대강 공사로 훼손되기 전의 강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처음으로 시멘트가 없는 강을 대면했고 강을 따라 걷다가 시내를 나가기도 하고 그 도시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처음으로 길과 목적지만 존재하는 점과 선에서 도시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길이 아닌 곳을 걷기도 하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 산을 넘기도 하고 흙 밟음이 달랐고 식성이 달랐으며 특산물이 대번에 뭘지 눈에 보였다. 사람들의 말씨와 뉘앙스의 차이가 신기했고 무엇보다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방 소도시의 감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다고 믿었다.

다나면 여행지마다 지방의 특색과 공동의 감각은 존재했다. 분명 여행자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맞는 말이다. 지방의 큰 도시라 해도 인근 소도시에서 통학과 통근을 위해 넘어오긴 하지만 다른 시에서 전입보다는 진출이 훨씬 많다. 태어나서 보고 듣고 이용하는 공동감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공동의 언어는 정체성을 손쉽게 알려준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사투리의 차이는 확연하다. 그래서 이방인인 나는 여행지이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느꼈다고 믿게 된다.

문제는 외부에서 보는 시선인 여행자의 눈을 객관적이라고 사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의 첫인상을 정체성으로 착각한다. 외지인의 낯선 시선은 익숙지 않은 아름다움을 포착할 순 있지만 지극히 상업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관광도시로의 기울기가 커지면 생활하는 현지인의 소비수단보다는 관광객의 소비수단을 선호하게 되면서 현지인의 소비수단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이는 대도시 구도심의 젠트리피케이션에서 비롯된 세탁소, 미용실, 지역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의 소멸을 불러온다.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서는 집합적 소비수단인 공적 성격의 학교,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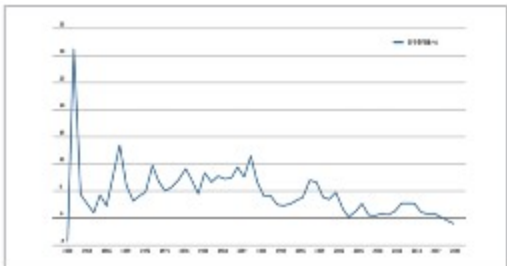
김형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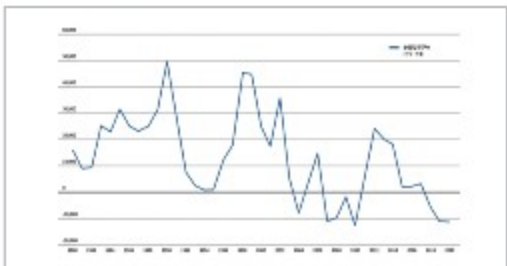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업무와 상업지구로 서서히 부상하면서 2000년대 들어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한다. 수원의 약속장소이자 상징인 남문 중앙극장의 2004년 폐업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이전보다 2배에 이르는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전입 인구의 순이동이 증가했다. 택지개발과 별개로 유입인구가 갑자기 올라간 연도는 2006년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수원으로 이동한 경우다. 1990년대 200만호 건설 공약으로 일산과 분당 등의 1기 신도시와 약간 늦은 시기의 영등과 하남의 주택보급은 서울을 중심으로 더 긴밀히 연결되면서 서울의 집값에 따라 인구가동이 크게 일어날 여지가 커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원의 집값이 서울의 집값에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진 않았다.

북쪽으로 영등2동이 맞닿아있는 망포동은 2000년 백산아파트를 시작으로 망포동 주민들이 일했던 종근당 계열의 안성우리가 천안으로 이주한 자리에 2001년 지아이파트가 준공된다. 그리고 드문드문 아파트가 세워진다. 망포지구는 본격적으로 2010년 민자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택지 개발된 광고지구와 호매실지구, 현대건설에서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한 권선2동의 입주가 2011년 시작됐다. 한동안 택지개발이 없었던 수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전출이 우세했던 인구가 2011년을 기점으로 정확히 증가한다.



(수원시 인구 증가율)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1980년부터 현재까지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순이동과 택지 개발의 비교를 통해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건설이 아닌 서울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한 택지개발이 곧 인구증가를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한 인구의 출생지는 어떻게 다를까? 수원이 빠르게 인구가 증가한 것은 맞지만 1985년 광역단위를 같은 방향으로 판단한다면 서울과 인천이 외지인의 도시로 손에 꼽는다고 하더라도 공급단지가 발달한 안양과 비교해도 가구주의 출생지를 경기도까지 확장했을 때 무려 42%에 다다른다. 동일 시·군·구내에서 이동한 수원 사람은 18%다. 광역단위 이동으로 보았을 때 인천은 가장 높은 동구가 19%, 안양은 22%다. 동일 시·군·구내 이동으로 보면 인천 동구 15%, 안양은 7%

동이 공급지대의 배후지로 대규모 주택건설에 적합했다. 이와 더불어 임제강정기 여주와 이천의 쌀을 운송하기 위한 수역선은 적자 끝에 1972년 폐선되면서 이천까지 동남쪽을 가로막는 경계가 사라져 등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종합운동장까지 건설된 경수대로에 도로를 더 연장하면 1967년에 순환도로 건설계획인 종합운동장에서 창룡문을 거쳐 세류동까지 가는 제2순환로를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1973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8년의 시간이 걸려 완공되었으며 예산은 권선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마련하게 된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주가 도로 개발로 인한 지가상승을 얻는 대신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체제였다. 권선지구는 경수대로 주변 땅이었다. 권선지구 개발 이후 수원은 동진화를 시작한다. 1980년대 초 매탄, 권선지구에 최초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 택지개발 된 부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인계동으로 시청 이전 계획도 함께 이루어진다. 당시 인계동은 외곽으로 여겨져 화장장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1983년 63,827.5평 땅 위에 3050세대가 들어올 신매탄 아파트라 불리는 주공아파트가 올라간다. 그리고 구운동의 제외하고 1980년대는 매탄동이 순차적으로 개발된다. 주택공사가 직접 공사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동남, 현대, 삼성, 성일 아파트가 민간에서 지어졌다. 이는 약 46,100여명의 수요인구와 18,815세대의 규모다. 고화지구와 달리 매탄지구의 주택건설에는 메이저급의 대기업 건설사가 들어왔다. 주택공사의 20평형대 미만의 작은 아파트와 달리 대기업 건설사인 삼성과 현대아파트의 평형대가 26평형부터 44평형까지 건설되면서 중산층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마련되었다.

매탄동 아파트단지와 삼성전자 사이는 경수대로가 가로질러 도심과 공급지대 사이를 가르는 위치였다.



(매탄 아파트 건설현장)

1970년대 들어서서 평균 6%대의 높은 인구증가율로 인해 1980년대에는 택지개발이 문제를 해결할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됐다. 하지만 주거의 보급이 더 많은 인구를 끌어당겼고 평균 7.6%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한다. 그리고 1989년은 11.3%까지 치솟는다. 1989년은 매탄동 개발 당시 민간아파트가 준공된 연도와 일치한다.

1997년 영등개발은 1983년-1996년까지 개발한 택지개발지구의 크기에 육박할 정도의 대단위 개발이었다. 매탄동 현대아파트와 삼성아파트, 구도심 단독주택에 살았던 부유한 내지인들이 이번에는 영등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외지인의 전입이 늘어나면서 1990년대 2%대로 주춤했던 인구증가율이 6%로 늘어났다. 그리고 1990년대까지 구도심인 수원 남문이 상업지구로서 그 위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인계동과 매탄동 일대가 주거와 행정

나간다. 성곽의 북쪽과 남서쪽인 영화지구, 고화지구 (고등동, 화서동, 매산동), 역전지구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지다.

현재 수원여고 주변 21만 3천명이 1969년부터 1972년까지 격지형으로 구획되었고 주택들이 들어섰다. 눈, 눈이었던 통풍은 물리보게 달라진다. 1977년 3월 16일 동아일보 기사의 사진 설명이 눈에 띈다. 고급주택으로 짝 들어찬 고화지구, 서수원이란 새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위치를 곁들여 다시 한 번 반복한다.

'말말산과 속지산을 동북으로 등지고 드넓게 펼쳐진 수원시 고화동지구 6천 4백여 채의 문화주택이 규모 있게 짝 들어찬 곳이 서수원이란 새 이름을 낀은 신촌지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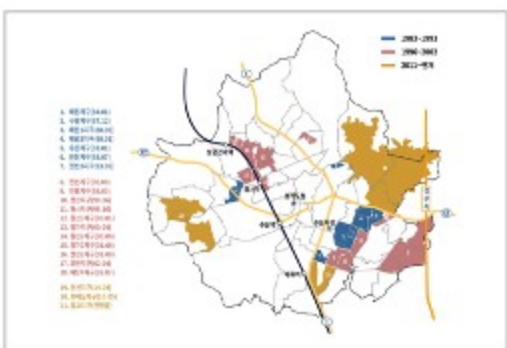
가까운 과거였던 임제강정기에 소착인으로 전략한 가난한 마을이 경수전철 개통 소식과 1967년 서울에서 이전한 경기 도청을 중심으로 도병무청, 농촌진흥공사 등의 행정이 자리했고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공무원 아파트와 시민아파트가 들어섰다고 말한다. 게다가 주택공사(현 LH)가 지은 시민아파트의 경쟁률은 2:1에 이른다고 설명한다. 현재의 부동산뉴스와 그리 다르지 않다.

실제로 날로 땅값은 오르지만 아무도 피는 이가 없어서 매매는 뜸 끊겼다는 기사와 심지어 매일경제 1978년 6월 19일 기사 제목은 아파트 붐이다. 택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시 개발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사업은 1960년대 말부터 시행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아파트 공급을 시작한 서울은 1974년까지 대규모 반포아파트의 성공으로 주택공급의 방향성은 아파트로 확정된다. 그리고 1975년 2월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 2만 가구는 목표가 나온다. 장실을 시작으로 수원은 100가구가 계획됐고 최종적으로 8동 300가구가 건설되었다. 이 시기에 수원은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아파트 1천1백44가구가 지어진다. 이제 서울을 담은 아파트들이 수원을 향해 서서히 달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문화주택에 살았던 중산층들의 주거지가 택지 개발과 함께 옮겨간다.

택지개발과 아파트

1980년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아파트 공급이라는 방향성에 부스터를 달아줄 법의 제정은 이제 한국만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가 시작될 세계로의 진입이었다. 화성 성곽 일대의 시가지화가 완성된 이후는 동쪽으로의 확장이었다. 동수원은 1969년에 일찍이 공급지대로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1970년대 들어서 경부고속도로와 경수대로의 개통으로 물류의 이동이 기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갔고 경수대로 인근 매탄



(수원 연도별 택지개발)

수원로가 신작로로 계획된다. 애초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에 화성과 행장을 짓고 사람들이 살던 원래 수원군 읍지 지리에 시도 세치의 능선이 정해지면서 그 마을 사람들을 이주시킨 곳이 현재 수원 화성, 행궁동 자리다. 그리고 수원로는 행차를 위해 작은 길을 넓힌 새길이다. 왕을 위해 만든 도시였다. 그래서 더욱더 서울과 왕래하기 좋은 길목에 있는 건 당연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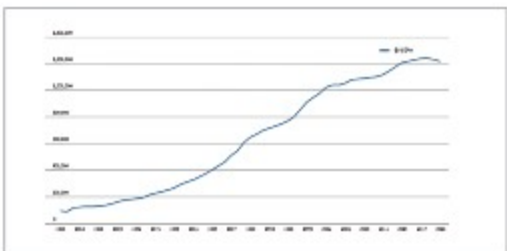
이 제주로의 수원로는 시대가 바뀌어도 임제강정기 경부철도와 1등 도로인 남쪽으로 관통하는 서울-부산 구간과 수원에서 동쪽으로 용인, 이천을 거쳐 대구까지 달는 주요 도로망으로 구성됐다. 또한 수역선과 수인선이 동서로 연결되어 물자를 날랐다. 수원이 도로와 철도의 결절점에 위치했기 때문에 근대도시로의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였다.

해방 후에는 어떻게? 해방이 되었지만 서울 구로에 첫 수출 산업단지공단이 1967년에 준공 된 후 그 영역을 넓혀 3단지까지 조성됐다. 이는 영등포를 끝으로 구로를 거쳐 부천으로 이어지는 경인축 중심의 산업화다. 경인축의 중요한 요소가 철도였다면 1970년대부터 진행된 경제개발정책은 자동차 도로에 중점을 두었다. 1967년 착공 후 현 수원운동장까지 1976년에 개통한 경수대로는 서울 안양 수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또 다른 축이었다. 이로써 수도권으로 확장한 집적된 산업지대가 삼각형을 이루게 됐다. 수원의 한일합성 유치는 경수산업도로를 끼고 이때 이루어진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삼성전자가 부지를 선택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원래는 철도가 지나가는 수원 성곡관대학교 부지를 살펴보다가 계획을 철회하고 도로가 가까이 있는 현재의 자리로 결정한다.

도시개발과 산업화는 공단조성이 목적이었으며 이는 곧 대규모 인구이동을 의미했다. 서울에 넘쳐나는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수원은 1970년대 수도권 인구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변경했으나 1980년 100억불 수출달성을 위해서 공업지역으로 되돌려놓기도 했다. 그리고 위성도시계획도에 따라 수원의 동쪽 매탄동 일대가 공업지역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밀집된 공장들을 이전 재배치한다.

공장의 증가와 맞물려 1970년대-1980년대는 수원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다.

1970년대 서울에서 공장을 따라 내려온 한 노동자는 매탄동에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질 정도의 흙길이었어서 창화를 신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수원 동쪽은 완전 오지였다고 말했다. 수원역과 남문을 중심으로 발달 된 화성 부근 외에는 시골과 다름없었다. 교통이 용이한 남문 주변과 수원역 주변, 그리고 공장 주변에는 마을에 방을 이어붙인 하숙집이 대거 늘어났다. 공장 주변의 시골 마을보다는 변화한 도심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로이 시가지지를 조성해야 했다. 1970년대 초에는 화성 안 시가지화가 완성되었고 성곽 바깥으로 넓혀



(수원 총인구수)

까지 떨어진다. 수원은 근방에 있는 도시에서 이주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은 어떨까? 20대 이상 성인 중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은 19%라면 경기도 내에서 이주한 사람은 36%다. 다른 시·도에서 온 성인 인구수는 62%로 1985년 거주주 출생지와 단 순비교할 수 없지만 성인 인구를 거칠게 비교한다고 봤을 때 타지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됨을 드러낸다. 부동산값으로 서울에서 밀려나거나 지방에서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택단지는 매력적으로 느낀다. 2020년 수도권으로 순수입된 인구는 8만8000여 명으로 2006년(11만 1700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06년에 이은 부동산 폭등이다.

이제 비행장 문제로 개발이 불가능한 서수원을 제외하고 수원만의 모든 땅을 주택보급 정책의 일환으로 약 40년 만에 모두 개발한다. 단, 2000년대부터 시작된 재개발은 포함하지 않았다. 수원은 서울의 인구분산을 위한 위성도시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아파트 공급은 더욱더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이면서 수도권 도시를 뚫통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서울과 수도권은 단단하게 결속되었고 서울 중심은 더욱더 공고해진다.

그렇다면 생활인으로서의 수원 사람들의 공동감각 내지 정체성은 무엇일까?

1970-1980년대 일자리를 찾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는 사람들을 더 끌어들이는 토지구획사업과 택지개발이 있었다. 전국에서 올라오거나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같은 문화권의 인근지역 사람들의 비율이 높았고 경기남부의 중심 생활권이라는 토박이들의 자부심도 함께 있었다. 하지만 현재에 가까이 올수록 시를 경계로 이동하기보다는 서울과의 교통을 영두한 교통 인프라를 중심에 두고 수도권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수원이라는 도시의 매력보다는 입지와 건설사가 제공하는 인프라에 훨씬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행정경계를 기준으로 시군구의 브랜딩보다는 조선시대부터 주요한 길이 지나가는 입지적 이점을 제공한 것처럼 강남과 가까운 경부축과 가까운 공간의 이점이 수원을 빛나게 만든다. 그리고 미래의 기대수익을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대형 건설사의 도시계획과 아파트 브랜딩을 유심히 살펴보고 집을 선택한다. 그래서 수원보다 앞서서 많은 택지지구 이름이다. 수원보다 광고가 더 중요하다. 마치 용인과 성남, 화성이 아닌 수지, 분당, 판교, 광교, 동탄이 훨씬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개발지구의 아파트들을 옮겨 다니며 사람들은 이사 다닌다.

19세기 유럽의 대도시에서 처음으로 가스등이 켜지고 지상 도로를 반영한 거대한 하수관이 또 다른 지하세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달라졌다.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선사하는 대신 불확실성과 끊임없이 유동하는 모든 것에 사람들은 긴장감을 느꼈다. 우리가 흔히 여유로운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할 때 노천카페에 앉아 혼자서 커피를 즐기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는 대도시 생활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을 개인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자극을 사랑하지만 안정성 또한 추구한다. 그래서 도시계획가들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장소의 변화와 변화하지 않을 건물의 안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은 역사와 정치를 만나며 다양한 얼굴을 드러냈다. 한국은 근대화를 시킬 모든 역량을

산업화에 바쳤다. 국가 주도였고 빠르면 빠른수록 좋았다. 아파트라는 주거는 잘 부합하는 모델이었다. 불안한 도시 생활 안에서 노동자는 나만의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안정감을 느낀다. 그래서 집을 위한 모험에 모두가 뛰어들었다. 국가는 규제와 세금을 조정하고 민간금융은 주택마련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내놓는다. 이제 대부분의 아파트는 국가의 손에서 민간건설에 맡겨졌다.

이제 도시계획가들의 시야는 한없이 좁아진다. 도시 생활을 살피며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도시보다는 아파트단지 안에 블록 단위로 환상을 심어 놓을 때 사람들은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는 그들의 빛나는 도시계획 안에서 꿈을 꾸고 살아간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그 꿈을 더 돋보여 보이도록 아름다운 환상을 펼쳐 보인다.



아파트 환상

왜 우리는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는 때때들이 어째서 서울과 다르지 않은 대도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지를 산업화와 그에 맞는 도시계획이 어떻게 인구의 이동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거칠게나마 이유를 말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정말 수원이라는 정체성이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줄까? 그리고 왜 어떤 정체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정체성이란 개인성에서 비롯된 어떤 개성을 드러내야만 하는 압박감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건 아닌가. 그래서 같은 장소 안의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무의식중에 발현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일까? 그 모습이 포착되어 그 자체가 수원을 떠올린다면 굳이 브랜딩 따위가 필요 없기 때문일까.

나는 하나의 경향으로 똑같은 시선이란 돈의 시선이고 부동산의 시선인 투자의 눈으로 바라본 도시를 상상했다. (교육의 시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지식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다.) 이제 투자의 눈으로 도시를 바라보면 구도심의 관광화, 재개발, 높은 아파트, 더 많은 주차장과 넓은 도로가 이해가 된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도시가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그래서 서울은 더욱더 아름답게 보이고 달고 싶은 도시다.

나는 아이 엄마의 시선으로 환상을 담아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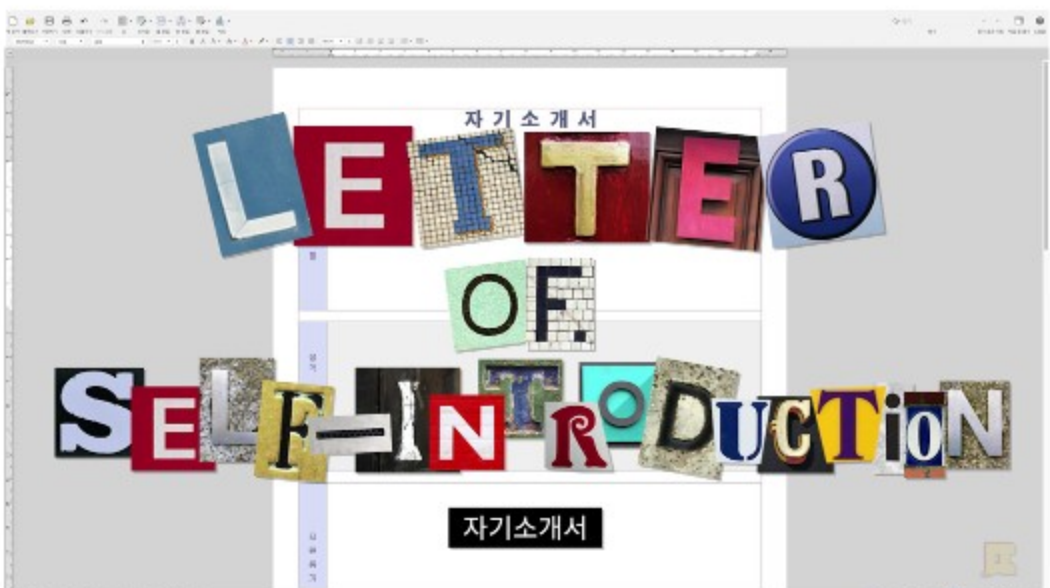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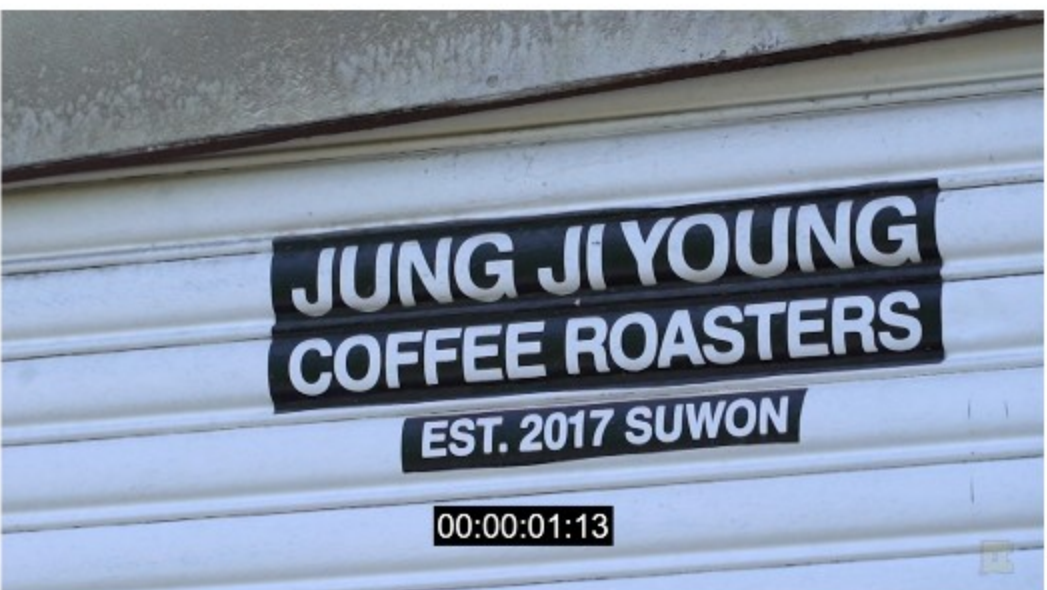
도시언어 (윤혁)



땅도프로덕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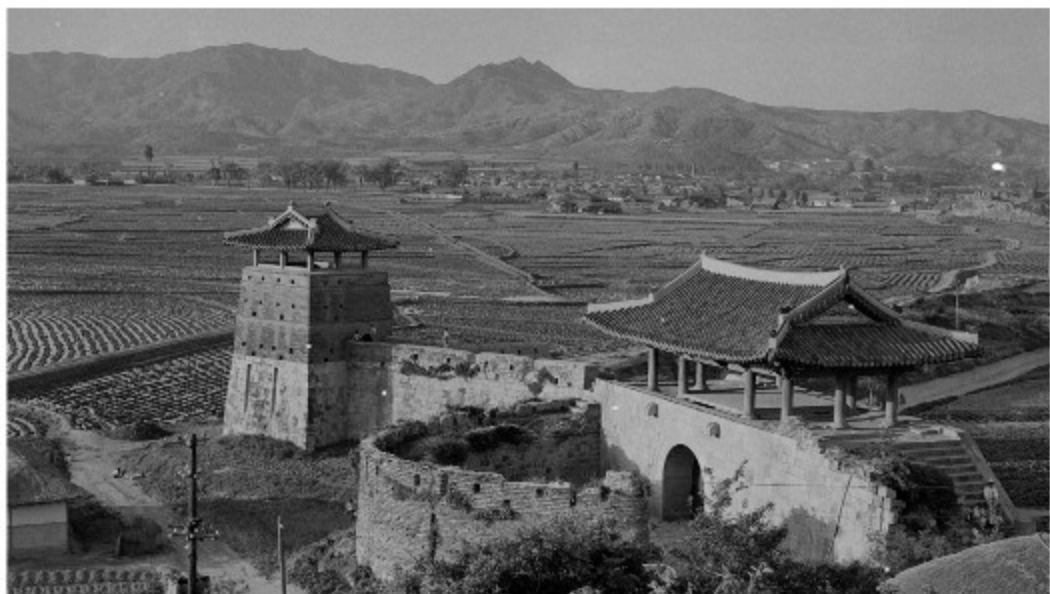








전쟁으로 파괴된 장안문과 종사국





도시충동

예술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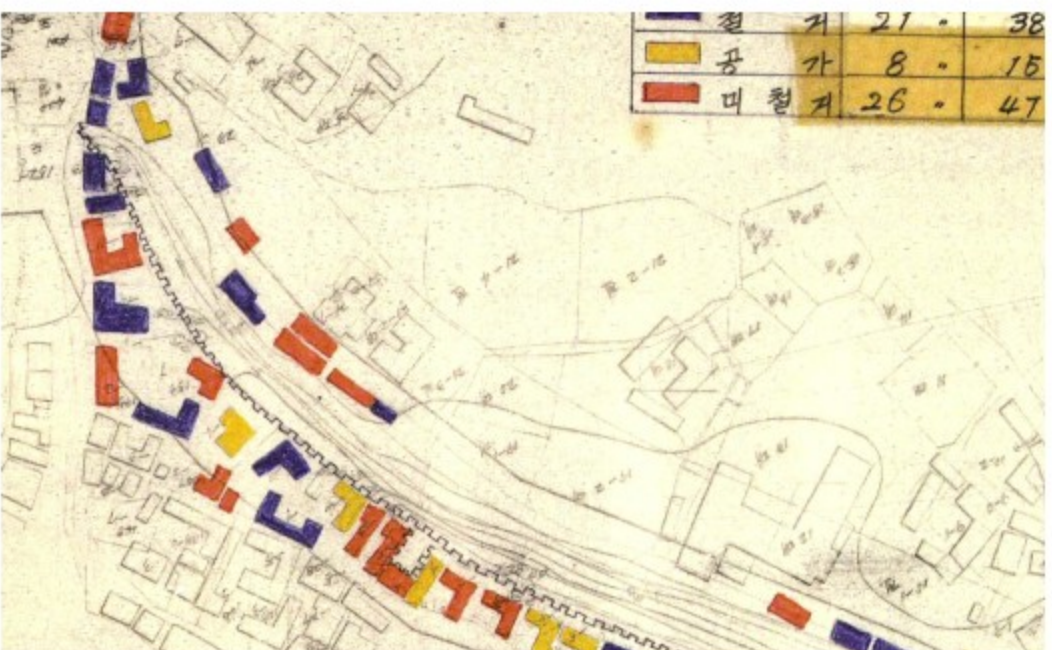
기록생산자

망도프로덕션



도시충동

예술충동



기록생산자

망도프로덕션

0. 개요

기획의도

1. 수원에서 상대적으로 집중이 덜 되고 있는 서수원 지역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함이다. 2. 걸으면서 사진 찍기, 즉 '걷고찍기'를 서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한다. 3. 차길 중심의 길, 자전거 중심의 길을 '걷기' 중심의 길로 다시 바라보기로 한다.

세부진행보고

서수원 걷기: 1) 서호천 걷고찍기 / 2) 수원으로 걷고찍기 / 3) 권선로 걷고 찍기 / 4) 매송고개로 걷고찍기 / 5) 황구지천 걷고 찍기



마무리

1. 수원의 4대 하천 중 서수원을 흐르고 있는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걷기에는 그리 친절한 하천은 아니었다. 부분부분 주거지역 근처의 하천은 걷기 좋도록 되어 있으나 (주로 서호천), 주거지역이 아닌 곳은 편의시설 등 (주로 화장실)의 부족, 자전거, 차와 함께 걷는 길 등으로 인해 편하게 산책 및 '걷고찍기'를 하기 어려웠다.
2. 또한 수원로, 권선로, 매송고개로 3개의 길을 걸으며, 차길 위주로 구성된 길은 편하게 산책을 하거나, 도보여행을 편하게 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직접 걸으면서 느끼게 되었다. 횡단 보도가 아예 없거나, 안전표시가 없는 곳도 있었으며, 편의시설 등 (주로 화장실)의 부족, 자전거와 함께 걷는 길 등으로 인해 편하게 산책 및 '걷고찍기'를 하기 어려웠다.
3. 가로로 된 3개의 길은 수원역을 출발해 세로로 내려오는 서호천으로 한번, 황구지천으로 한번, 이렇게 3개의 권역으로 나뉘는데, 첫번째 수원역부터 서호천까지는 차와 관련된 업체들과, 농업관련한 기관들이 줄지어 있고, 두 번째 서호천과 황구지천 사이엔 아주 넓은 녹색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변화의 물결을 기다리고 있는 곳도 있다. 세 번째 황구지천과 고속도로IC 사이에는 호매실동, 금호동 등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인선은 황구지천과 만나지는 않음.)
4. 가로로 된 3개의 길, 세로로 된 2개의 하천을 걷다보니,

세로로 된 길들을 직접 걸어보고 싶어지기도 하며, 서수원 안 동네 별로 동네를 걸어보고 싶기도 하다. 이상으로 서수원지역을 5개의 길을 살펴보았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각 길에 따른 리서치를 참고해주시길 바란다.

서수원 걷기지도 1. 서호천길

1. 개요

서호천길은 수원 장안구 파장저수지부터 수원시와 화성시의 경계인 기안교와 배양교사이까지이다. 기안교와 배양교 사이에서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합쳐지고, 그 뒤로는 황구지천으로 흘러간다. 하지 만 서수원 지역으로 한정했기에, 서수원으로 나뉘는 1호선 지하철을 기준으로 본다면, 꽃외버들교부터 배양교까지이다.

서수원지역 서호천길은 수원시 팔색길과 경기도 성남길 코스와 겹치는 코스이다. 수원시 팔색길로는 팔색길 1코스(모수길)에 꽃외버들교-중보교, 팔색길 6코스(수원둘레길)에 중보교-기안교와 겹치고, 경기도 성남길로는 성남길 4코스(서호천길)에 꽃외버들교-서호공원 입구, 성남길 5코스(중복들 길)에 서호공원 입구-배양교와 겹치는 구간이다. (살짝 다른 길이 있다.)

서수원지역 서호천길은 아파트밀집주거지인 북수원지역 서호천길(따로 정해진 명칭은 아니지만, 꽃 외버들교를 기준으로 윗지역으로 명명)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다보니, 정비가 덜 된 곳이 여 러군데 있다. 북수원지역 서호천길은 '서호천의 친구들'과 같은 시민단체들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미치고 있으나, 서호공원을 제외한 서수원지역 서호천길은 상대적으로 아직 까지 관심이 적다.

2. 답사

일시 :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대체공휴일
코스 : 꽃외버들교부터 배양교까지, 거리 7.6km(지도 검색)
실제 도보 시간 : 2시간 30분

- 1) 꽃외버들교 - 황미정 : 아파트 밀집지역이다보니, 지역민들의 운동코스임.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밤에도 운동하기 좋은 곳이다.
- 2) 황미정 - 평교교 : 요 몇년 사이 농대교 중심으로 재정비되었다. 다만 양쪽 중 한쪽이 막다른 길이 많다. (북수원지역 서호천길은 막다른길 표시가 잘되어있다.) 또한 서호공원에는 화장실이 세 군데가 있지만, 황미정부터는 화장실이 전혀 없다.



- 1) 꽃외버들교 - 황미정
- 2) 황미정 - 평교교
- 3) 평교교 - 중보교
- 4) 중보교 - 수인선 옛철길
- 5) 수인선 옛철길 - 평리교
- 6) 평리교 - 배양교



3) 평교교 - 중보교 : 평교교로 가는 길이 어려모로 문제가 되는데, 평교교 아래로 지나가는 길이 없고, 평교교 도착하기 전 위로 올라가야 한다. 허나, 성남길 표시 이외에는 막힌 길이라던가, 위로 올라가야 하는 표지판이 없다. 또한 평교교에서 이어지는 길이 차가 지나다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표시' 등이 전혀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여기서부터 비포장 차도가 시작되는데, 비가 오는 날 이면 흙탕길이 되어 걸어다니기 쉽지 않다.



4) 중보교 - 수인선 옛철길 : 중보교 오기 전 길이 최근에 정비되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허나 중보교로 내려가서 통과하는 길이 약간 어두운 상태이며, 노숙인들이 잠을 청하기도 해서,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나마 바닥을 깔아두긴 했으나, 비오는 날엔 역시나 흙탕 길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수인선 옛길길 ~ 평리교 : 수인선 옛길에서 약간의 비포장 길을 지나면, 포장도로가 시작된다. 그 길(평리동 219)을 쭉 가다 보면 중간에, 삼거리 길(교백동 311-34)을 만나게 되는데, 차길만 있고, 보행길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무척이나 위험하다. 삼남길에서는 아예 삼거리 길이 사거리 길로 바뀌는 곳에서 서호천 바깥으로 이동하게 되어있다. (수원팔색길 6코스는 서호천을 따라 가고는 있으나, 표지판 등이 전혀 없다.) 관리가 잘 안되는 길이나, 상대적으로 수풀이 아주 무성해서, 나무 틀이나, 새들에겐 너무 좋은 곳이 되고 있다.



6) 평리교 ~ 배양교 : 비행장 옆 길이다 보니, 실제로 많이 걷지 않는 길이다. 그러다보니 걸어도 걷는 길이 전혀 없고, 차길도 1차선 밖에 되지 않아 무척이나 위험한 길이다.(서호천 길 중 가장 위 험하다.) 다행히 평리교를 건너 들어가는 길은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 상대적으로 걷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평리교를 건너 들어가는 표시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또한 평리교를 건너 가는 길을 선택하거나, 건너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면, 기안교 또는 배양교까지 서로 만날수가 없다. (걸어가며 만나는 풍경이 완전 다르다.) 평리교를 건너 가는 길은 물도 무성하고, 폐인 길이 많아 위험하고, 평리교를 건너 가지 않는 길은 차길 위주다 보니, 걸어가기가 위험하다. (특히 큰 차들이 많이 다닌다.) 하지만, 쉼



들을 만나게 되면,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곳이다. 마지막으로 황구지천과 서호천이 만나 더 큰 볼썽기로 향해 가는 모습이 묘한 감동을 주기도 하는 곳이다.

3. 마무리 : 서호천길은 운동코스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자칭)복수원 서호천길부터 서호공원까지 운동코스로 사랑받고 있으나, 향미정부터 시작해서 배양교까지 길도 재정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색 자연과 동물들이 잘 보존/생활하고 있는 서호천 하류길이 조금만 더 정비되어 진다면,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서호천길은 현재의 서수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나, 비행장 근처 지역이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발걸음 적지만, 여러 문화적 유산(수인선 옛길길, 종 북들길 등)도 많고, 푸르른 자연도 참 좋은 곳이다. 자전거길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회해야 할 길도 많으며, 도보길로 온전히 자리잡으려면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다.



서수원 걷기지도 2. 수인로

1. 개요

수인로길을 말그대로 수원부터 인천까지의 차선이지만, 서수원내에 수인로길은 수원역부터 서수원 IC까지의 범위이다. 또한 서수원내 수인로길은 국도42호선과 일치하기도 한다. 수인로길은 차량이동 이 많은 수원역 육교시거리부터 역시나 복잡하게 연결된 고속도로가 있는 서수원IC까지이다. 서수원IC에서 수원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도로 폭이 좁아지지 않지만 구운사거리를 지나면서 신호가 많 아진다고 한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서수원IC, 구운사거리, 구운오거리, 수원역 등의 차량이 많아 정체기 이어지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차 중심적인 길 설계라고 볼 수 있으며, 답사의 내용은 '걷기'의 시각으로 바라본 수인로길을 걷어본 내용이다.

2. 답사

일시 :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코스 : 수원역부터 작은갯뜨까지, 거리 5km(지도 검색), 실제 도보 시간 : 2시간



- 1) 수원역-서문교
- 2) 서문교-웃거리사거리
- 3) 웃거리사거리-구운오거리
- 4) 구운오거리-구운사거리
- 5) 구운사거리-작은갯뜨

1) 수원역-서문교 : 수원역 지하철위 육교로 수원역환승센터로 향하는 차길과 수인로 차길로 나눠 진다. 서문동 방향으로 나눠지는 삼거리를 지나면 왼편으로 주유소, 충전소가 이어진다. 오른편으로 자동차검사소, 자동차정비센터, 오랫동안 그곳에 있던 웨딩홀이 있다. 서문교차로를 지나면, 왕복6차 선으로 가운데 나무가 턱으로 구성된 선이 푸욱 연결되어 있으며, 왼편 자동차 매매단지, 주유소, 전 지회사가 있다. 조금 더 지나면 왼편으로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공사가 진행중이다. 조금 더 지 나면, 왼편과 오른편 모두 농업관련한 기관 부지가 푸욱 펼쳐져있다. 왼편은 새로 건물이 만들어져 있고 마무리 공사 중이다. 오른편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작물연구동이 아주 넓게 펼쳐져있다.



2) 서문교-웃거리사거리 : 서문교는 서호천과 수인로가 만나는 길이다. 왼편에는 아주 넓은 공터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농업관련한 기관이 있었던 터로 보인다. 서호지구 도시 계획시설 사업공사 중으로 보인다. 오른편으로는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가 있다. 오른편에는 수원시의 관련한 기관들이 모여있는 더할파크가있다. 이어서 국립농업박물관을 찾기 위한 우회로가 푸욱 연결되어있다. 농진청삼거리 오른편 언덕으로 오르면 2023년에 큰 아파트단지가 만들어지기 위해 큰 공사장이 펼쳐져있다. 아무래도 완공이 되면 시거리가 될 듯 하다.



3) 웃거리사거리-구운오거리 : 웃거리 사거리를 지나 버스정류장엔 안산, 서울 등으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이 많다. 사거리이지만 중간에 작은 길들이 있어서, 오거리 이상의 느낌이다. 용거리 마트, 음식점들, 차량용품점 등이 모여 있다. KT서수원지점을 끼고 왼편으로 작은 길이 눈에 띈다. 조금더 가면 육교를 통해 연결된 녹색 가득한 구운공원을 만나게 된다. 왼편으로 3층에서 8층 사이 상가들이 연결 되어있고, 오른편으로는 지어진지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푸욱. 아파트변으로 녹색이 푸욱 연결되어있다. 자전거길과 도보길이 잘 정비되어있다.

4) 구운오거리-구운사거리: 구운오거리는 차량통행이 엄청나게 많은 곳이다. 수성로 길과 구운로 길과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수성로길은 호매실로 연결되는 곳이다. 구운오거리를 지나면 서수원버스터미널이 왼편에 크게 자리 하고 있다. 반대편인 오른편은 오른편을 일월저수지로 가는 길이다. 중간에는 일월지하도고가 연결 되어있다. 일월저수지와 연결되는 밑철천도 있다. 왼편에서만 보인다.



5) 구운사거리-학은길: 구운사거리는 구운오거리만큼 더 많은 차량이 모인다. 서수원을 횡으로 연결하는 서부로와 만난다. 그나마 양쪽으로 큰 육교가 있어 대로를 건널 수 있다. 학지의 이동권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다. 사거리 근처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아울렛, 콘티어 매장, 이마트, 하나로마트 등이 있다. 서수원IC로 들어가기 전 길들이라 도로로 걷기가 불편한 곳들이 많다. 중간중간 차도아래 지하도가 있는 곳이면, 도로길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와야 한다. 조금 더 지나면 오른편에 성균관대 식물원이 넓게 펼쳐져있다. 왼편은 입목동 넓은 들판이 펼쳐져있다. 역시나 주유소가 많다. 한쪽으로 가면 (지하도가 아니면) 반대쪽으로 갈 수 없다. 또한 도로길도 일부 잘리거나 너무 좁은 곳도 눈에 띈다.



3. 마무리

수원로길은 기본적으로 차를 위한 도로이다. 그러다보니, 도로로는 진정한 길이 아니다. 다만 수인 선 중간에 사람통행도 많은 옷거리사거리-구운사거리 부근은 도로길, 자전거길이 잘되어있다. 수인 선길을 수원과 안산 그리고 인천까지 연결되는 차량 수송으로 엄청난 양을 차지하는 중요한 길이다. 하지만 도로로 걷다보니, 수인선길을 따라 다양한 수원이 보이기도 했다. 수원역 근처엔 자동차 관련 건물과 농업 관련한 국가 건물이 펼쳐져있고, 그 뒤로는 아파트와 공원이 있는 주거지, 서수원IC근처에는 큰 농지와 주유소 등으로 이루어진 성격을 갖고 있다. 수인로는 수원을 횡으로

로 가르는 길이다 보니, 서수원의 여러 특징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다른 두 개의 길도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서수원 걸기지도 3. 권선로

1. 개요

권선로길은 망포동 망포역삼거리에서 호매실IC까지 10km 거리 구간에서 수원역을 넘는 수원고가도로로부터 호매실IC까지의 구간을 서수원 걸기길로 제한했다. 고가도로를 넘어가는 건 도로길/자전거길은 전혀 없기에 고가도로 아래부터 걷기를 시작했다. 서수원을 종으로 나누는 두 번째 큰길이다. 길의 1/3이상은 고가도로로 이어져있어 차들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는 길이다.

2. 답사

일시: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코스: 수원고가도로부터 호매실IC까지, 거리 4.5km(지도 검색).

실제 도보 시간: 2시간



- 1) 수원고가도로-별말교
- 2) 별말교-행정타운사거리
- 3) 행정타운사거리-호매실사거리
- 4) 호매실사거리-호매실IC

1) 수원고가도로-별말교: 수원고가도로를 통해 수원역 철로를 지나 서수원을 시작한다. 고가도로 옆으로 최근에 생긴 롯데몰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서있다. 차들이 아주 빠르게 고가도로를 타고 내려 오는 곳이다. 처음 만나는 교차로인 별말교차로는 수원고가도로의 내려오는 일부와 세화도가 만나는 구간이다. 고가도로 위만큼 아래 차량통행이 무지 많은 곳이다. 양쪽으로 차량정비, 조명활인매장, 샷시, 문, 주방 업체들이 쭉 서있다. 오른편으로는 서수원의 오래된 집들이 시작되다가, 새로 생긴 큰 길을 지나게 되면, 새로 짓고 있는 높은 건물들과 공사장을 만나게 된다.

해당 공터는 서수동 역세권 업무시설 신축공사 진행중이다. 왼편에는 비어있던 선경직물 건물을 철거, 새로 지어진 SKV1 motors 가 서있다.



2) 별말교-행정타운사거리: 수원고가도로 끝나면 별말교를 지나게 된다. 워낙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라 맞은편으로 횡단보도는 만들지 않은 걸로 보인다. 왼편으로는 벤츠 등의 고급차 판매 건물, 오른편으로는 수원지동차매매단지가 보인다. 다음 블록으로는 공구단지 삼거리로 드디어 양쪽길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왼편에는 수원종합공구단지, 그리고 오른편에는 서울대학교 수원 수목원 등의 녹지가 펼쳐지기 시작된다. 자전거길은 잘되어있는 편이지만, 도로길은 아예 없거나 무성하게 자란 풀로 가리워져있기도 하다. 육교로 되어있는 차길은 지도에서는 '술교'라고 표기되어있으나 실제 다리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녹색숲이 가득하다. 육교 왼편으로는 수원무궁화원이 있고, 그길따라 수도권 기상청이 이어진다. 오른편에는 상상캠퍼스, 탑동시민농장들로 가는 작은 길들이 있어 그길을 걷는 재미도 있다. 행정타운사거리 가기전, 큰 공사장이 왼편에 자리잡고 있다. 멀리에는 고색동 영신연와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양쪽으로 변화를 기다리는 넓은 땅이 펼쳐져 있다.



3) 행정타운사거리-호매실사거리: 수원고가도로만큼 큰 고가도로가 있는 행정타운사거리. 왼편에는 수원서부경찰서, 서수원우체국, 권선구보건소 등 다양한 공공관들이 자리잡고 있다. 황구지천과 만나는 황구지교를 지나면 왼편은 호매실지구와 만나게 된다. 오른편은 논,밭으로 이뤄져 있다가, 현 재는 공사를 진행중이다. 지하로는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지상공간에는 야구장과 축구장을 지을 계획으로 조감도가 그려져있다.



4) 호매실사거리-호매실IC: 높은 아파트 숲이 펼쳐져 있고, 잘 정비된 길이 이어져있다. 자전거길, 도로길이 쭉욱 연결되어 있다. 호매실지하차도 위로 왼편에는 능실중학교, 오른편엔 큰 공터와 호매 실장에인종합복지관이 보인다. 지하차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전거길,도로길은 큰길 5m이상 되는 옆으로 따로 길을 만들어놓았다. 길을 따라가다보면 물항기공원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하도록 되어있다. 텃밭과 운동, 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있다.



3. 마무리

권선로 또한 차를 위한 도로이다. 고가도로가 많다는 건 차를 위한 속도가 기본인 것이니. 고가도로가 길다보니, 고가도로 아래로 길들이 사거리로 이뤄져 연결이 되어있기도 하다. 또한 서호천, 황구지천을 횡으로 만나기도 하다. 서호천과 황구지천 사이로는 변화를 기다리는 녹색 공간이 자리잡고 있다. 아무래도 여러길 중에 가장 많은 변화가 진행될 길로 생각되어진다. 이 변화에 자전거길/도로길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수원 걷기지도 4. 매송고색로

1. 개요

매송고색로길은 수원역 급수탑 옆 세평지하차도부터 시작해 화성시 매송면 어천육교까지의 범위가 나, 수원시까지 범위로 나누어 오목천지하차도까지의 범위로 제한했다. 전 구간이 6차로로 푸욱이 루어지 있으며, 몇 수인선 아래로 수인분당선이 최근 연장되었다. 고색역과 오목천역이 서수원지역에 새로 신설되었다. 화성시와 수원시를 연결하는 가장 빠른 길인지라, 차량 통행량이 많은 길이다. 평등 부근은 수원비행장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2. 답사

일시 :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코스 : 세평지하차도부터 오목천지하차도까지, 거리 5km(지도 검색), 실제 도보 시간 : 2시간



- 1) 세평지하도-중보교
- 2) 중보교-작은말시거리
- 3) 작은말시거리-오목천교
- 4) 오목천교-오목천지하차도

1) 세평지하도-중보교 : 매송고색로를 시작하기전, 수원역에서 오산가는 길에는 급수탑이 보존되어 있다.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수원역 철로 아래로 세평지하도도 시작되며, 매송



고색로가 시작된다. 한편으로는 넓은 공터 속 건물 두 개 정도가 철조망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오른쪽으로는 자동차정비시설, 페타이어가게, 주차장, 비어있는 큰 건물 등 자동차와 관련한 다양한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다. 별말교차로를 지나도 양쪽으로도 자동차매단지, 차렌트, 카시트, 카오디오, 자동차 성능점검장 등이 푸욱 펼쳐져 있다. 차와 관련한 건물들이 많다보니, 인도에도 차들이 가득하다. 그 러다 보니, 자전거길/도보길에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곳이 많다. 또한 중보교를 지나기전, 운전면허학 원양 길은 횡단보도 표시도 없고, 위험표시도 없고, 신호등이 없으니, 길을 건너는 사람이나 자전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 건너갈 수밖에 없다.

2) 중보교-작은말시거리 : 오른쪽으로는 수원공구유통타운으로 가는 길로 연결된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동차 관련 가게들이 이어져 있다. 중보교를 지나는 길은 비행장과 가장 가깝게 느껴진다. 전 투기소리의 공포탄소리가 엄청나게 들린다. 새로생긴 수인분당선 위로 몇 수인선 길이 자전거도로 와 도보길에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 정식으로 열려있지는 않지만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간혹 보인다. 이후에 완성되면 꼭 한번 푸욱 걸어보고 싶은 길인듯 하다.



3) 작은말시거리-오목천교 : 자동차 관련 가게들이 타이어 가게로 마무리되면서, 한편으로는 고색 역, 오른쪽으로는 오산 모델하우스와 예전부터 푸욱 내려오고 있는 고택이 보인다. 고색 시거리를 넘 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아주 넓은 논과 밭이 펼쳐져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 생긴 마트윙과 다이소가 들어와있고, 다음 블록으로 서수원주민편익시설로 연결된다. 기본차선이 6차선이라, 차들의 속도가 빨라진다. 역시나 수인분당선 위로 기차길 대신 도보길과 자전거길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



4) 오목천교-오목천지하차도 : 황구지천과 만나는 오목천교를 지나면, 오목천교사거리를 만난다. 양 쪽으로 아파트숲이 멀리 울창하게 펼쳐져 있다. 오른쪽에는 식당 및 상가들도 있다. 수원 여대사거리로 이르면 아주 오래전 상가들, 예전 작은 길 대비로,

새로 생긴 집을, 새로 생긴 지하철, 스타벅스 DT점이 대비를 이룬다. 그사이로 아주 예전 집들이 남아있기도 하다.



3. 마무리

매송고색로는 수원보다는 권선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길처럼 느껴졌다. 길의 초반부는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푸욱 늘어서 있고, 서호천과 황구지천사이에는 녹색 가득한 큰 공간이 존재하고, 황 구지천을 지나면 호매실동, 금호동 등의 아파트숲이 존재하고 있다. 권선로와 다른 점은 예전 수인 선 아래로 수인분당선이 새로 들어서 있고, 위로는 자전거길, 도보길이 새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매송고색로의 수원역 시작점부터 서호천 중보교까지 사람이 걷기에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다. 빠른 개선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만들고 있는 수인분당선 위 자전거길, 도보길 이 푸욱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서수원을 걸었으면 한다.

서수원 걷기지도 5. 황구지천길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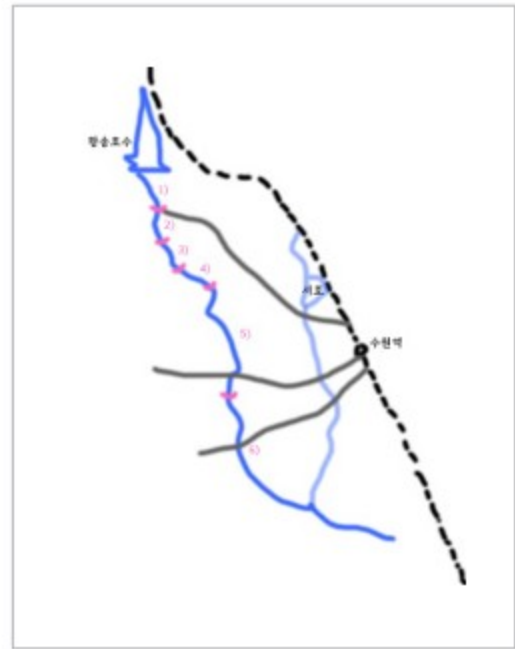
황구지천길은 의왕시 왕송호수부터 수원시의 화성시의 경계인 기안교와 배양교사이까지이다. 기안 교와 배양교 사이에서 서호천과 황구지천이 합쳐지고, 그 뒤로는 수원천, 원천리천까지 모여 화성시 에서는 황구지천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서수원 지역으로 한정했기에, 의왕시 왕송호수 아래부터, 배 양교까지를 범위로 삼으려 한다. 황구지천길은 수원시 팔색길3코스 매실길(왕송호수-오목천교)에 수원시 팔색길6코스 수원물레길(왕송호수-기안교)을 이으면 완성되는 구간이다. 사실 마지막에 끝까지 못간 부분은 기안교부터 배양교인데, 경기도 삼남길 5코스와 살짝 겹치는 구간이다. 황구지천길은 왕송호수부터 기안교까지 모든 길이 '자연형' 하천인 수원 유일의 하천이다. 어찌 보 면 수원의 생태길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사람의 허파 같은 곳이겠다. 자전거길로 잘 정비된 곳이고, 자전거 타시는 분에게는 유명한 길 이긴 하지만, 실제 도보길로는 그리 친절하지는 않은 길 이다. 자전거길로도 잘 정비가 되어가지만, 도보길로도 잘 정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2. 답사

일시 :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코스 : 왕송호수부터 기안교까지, 거리 10km(지도 검색), 실제 도보 시간 : 3시간 30분

- 1) 왕송호수 - 당수교
- 2) 당수교 - 창수천교
- 3) 창수천교 - 입북교
- 4) 입북교 - 황구지천교
- 5) 황구지천교 - 호매실교
- 6) 호매실교 - 기안교



1) 왕송호수 - 당수교 : 의왕 왕송호수 이전까지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이었던가 2013년 의왕시 월 암동으로 변경되었다. 왕송호수와 붙어있는 동네는 수원시 입북동과 당수동이다. 왕송호수를 지나자마자 시작되는 길은 포장된 길이 아니다. 왕송호수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거나, 수원역에서 올라와 도착지점으로 삼는 곳이기에 자전거 수가 무척이나 많은 곳이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게다가 농 업용 차량도 많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당수교 - 창수천교 : 전날 비가워서 그런지, 울퉁패인길이 많다보니, 자전거나 차가 지나가게 되 면서, 흙탕물이 튀기도 한다. 생령 달리는 자전거를 피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왼쪽으로는 논농사, 밭농사 풍경과 멀리 수원의 고층 아파트들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황구지천의 푸르른 녹색이 펼쳐져있어 보는 맛이 최고다.

1. 비행기가 보이는 지역을 걸으면서 소음 녹취 리서치 (보라색, 10군데) 경기상상캠퍼스 / 탑동시민농장 / 고색동 / 서문동 / 서호초등학교앞 / 천천동 / 고색역 / 오목호수공원 / 평동 / 성균관대역사거리 (청부파일 수록)

2. 비행기 소음이 들리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들에게 간략한 응답 정리 (녹색, 8명)

) 서호초중시지(50대, 여성) - 비행기 소리가 커지면 수업을 잠시 멈춰요. 진짜 힘들어요.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소음에 귀가 예민해져서 청각이 너무 걱정스러워요. 비행기 소음이 늘 있고, 실내에서는 수업을 위해 항상 문을 닫아 놓기 때문에 귀까지 막지는 않아요. 운동장에서는 귀를 막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자동으로 손이 귀로 갑니다. 짜증 지수가 바로 올라가죠.

) 천천동(30대, 여성) - 가끔 크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빼고는 신경쓰지는 않는 듯 해요.

) 수원벤처밸리2 A동(50대, 남성) - 비행기가 직접 지나가는 곳은 아니어서 그런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사무실은 대개 유리창을 꼭 닫고 있어서 그런것 같기도 하네요.

) 성균관대역근방(40대, 남성) - 공항옆에 사는듯 싶어요. 예고. 비행기 소음이 클 때는 창문닫는 방법 밖에는 없어요. 아플 수 없이 열어놓을때는 귀마개하기도 해요. 하하

) 서문동에서 행정동으로 최근에 이사(30대, 여성) - 서문동

비행기 소음 지도

기획의도

1. 서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비행기 소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수원시민은 많으나, 실제 비행기 소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서수원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많지 않다. 수원시청 홈페이지에도 수치로 잘 정리되어 보이지만, 수치에 따른 소음을 가능하기 힘들다. 이에 실제 비행기 소음을 녹취해보고 비행기 소음을 직접 체험해보기로 한다.

2. 서수원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비행기 소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간략한 질의응답을 진행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수원시청 홈페이지 - 항공기소음도 측정 결과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env/env_01/env_01_04/env_01_04-04.jsp

2021년도 월별 항공기소음도 측정 결과(비행일 기준)

(단위: VEC/PM)

구분	평동	구문동	당수호	세곡동	호매실동	서문동	오목천동 농가수원사	금곡동
1월	90.3	76.7	85.7	71.6	73.9	76.7	85.0	75.11
2월	80.5	74.7	66.4	70.5	75.3	76.0	67.0	75.5
3월	93.6	82.0	73.7	73.8	81.7	81.1	73.2	83.3
4월	93.0	81.5	71.9	71.2	75.4	80.8	70.3	77.7

세부진행보고

비행기 소음 녹취 지역 및 응답자 주거지역



에 살다 결국 이사왔어요. 청력이 원래 좋지도 않은데 더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 수원터미널옆(40대, 남성) - 에어쇼 시즌만 되면 비행기 소음이 너무 심해서 문 닫고 살아요.

) 호매실동(20대, 여성) -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전 잠깐 쉬어요. 우와왕- 입으로 소리내면서요. 하하. 졸음으로 수업할 때 오디오 끄고 기다렸다가 지나가면 다시 시작합니다. 하하. 서울 사는 아이들에게는 황당하고 신기한 일이겠죠.

) 평동(60대, 남성) - 주유소에 있다보면 정말 소리 때문에 욕이 나와. 사무실 밖으로 잘 나오지를 않지.

마무리

1. 서수원 지역을 걸어다니며 듣게 된 비행기 소음을 녹취를 직접 하며 다시 한번 느낀 건, 정말 참을 수 있을만한 소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있는 수치로만으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생각보다 서수원 지역의 시민들이 비행기 소음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비행장 부근에 있는 시민 뿐만 아니라, 상당히 먼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호매실, 성균관대역 등) 3. 이를 통해 비행기소음 피해에 대해 실제 소음과 시민들의 아주 간략한 응답으로 다시 한번 환기되기 바란다.

4. 이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자세한 인터뷰 및 더 많은 지역에 비행기 소음 기록을 진행하고 싶다.



6) 호매실교 - 기안교 : 날씨도 흐리다보니, 생각보다 어두워진다. 아직까지 모든 조명이 켜지지 않은 상태여서 길이 어떻게 보인다. 원호매교를 지나, 물류창고가 있는 길로 다다르니 포장길이 시작 된다. 창고로 가는 큰 트럭들이 가끔씩 다녀서, 위험적으로 느껴지기 까지 한다. 다행히 한블럭을 지나니 흙길로 바뀌었으나, 다시 포장된 길들이 펼쳐지고 차들이 자주 다니는 모습을 발견한다. 오목천교를 지나니, 사람 한명, 자전거 한 대정도 지나갈 수 있는 좁은 길로 연결된다. (다행히 맞은 편은 조금 넓기는 하다.) 안내 표지가 필요하다. 실제로 자전거가 지나니, 풀길로 들어가야만 한다. 중간에 반려견과 함께하는 주말농장도 보인다. 특히 이 길은 벚꽃길이 유명해 봄이 되면 수많은 인 피가 몰리기도 한다. 고색뉴지엄 옆 오목천공원에 화장실이 유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로 유도하는 표지가 없어 아쉽기도 하다.



3. 마무리

황구지천길은 흙길로 시작해서 흙길로 끝난다. 흙을 밟으며 걷는 길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비가 오면 흙탕물이 되기도 하고, 길이 움푹패이게 되는 곳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이 길은 자전거, 사람이 주로 다니지만, 농업용 길로 사용되어 작은 트럭이나 자동차가 많이 다니기에 안전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서호천 상류, 중류까지는 자동차가 못다니게 되어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화장실 표시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다. 오목천교 옆 서수원체육공원의 화장실, 고색뉴지엄 옆 오목천공원의 화장실 표시를 잘 안내했으면 하는 부분이다. 또한 황구지천이 시작되는 양송호수부터 오목천교까지는 화장실을 찾아볼 수 없는 부분도 걷기 코스로는 부적합해 보인다.



3) 장수천교 - 입목교 : 하류로 내려갈수록 황구지천의 폭이 커지고, 수풀이 무성해진다. 그 사이로 다양한 조류들이 보인다. 종이 다른 조류들이 다양하게 모여 쉴을 쉬거나, 각자 사냥을 하기도 한다. 서호천은 시민들이 걷는길과 무척이나 새들이 무척이나 가까이 있어 경계하는 모습이 조금 덜 하지만, 황구지천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과의 거리가 무척이나 멀어 조금만 가까이 가거나, 자신들을 쳐다보면 빨리 도망가는 모습을 볼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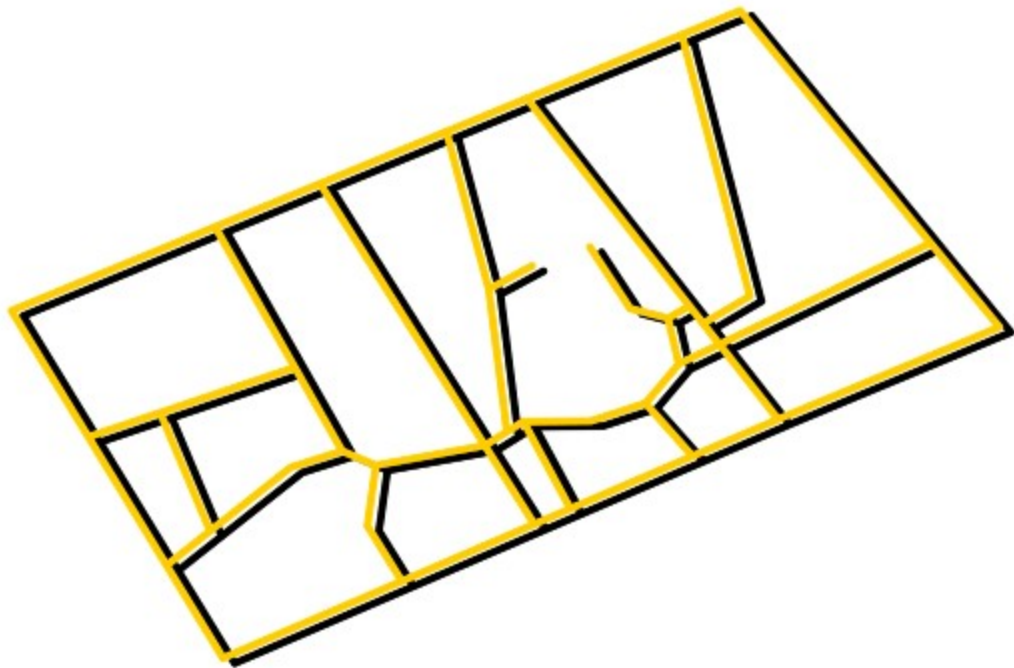


4) 입목교 - 황구지천교 : 입목교 전 짧은 거리에 시멘트길이 깔려있고, 그 끝에는 2차로 차길을 횡단해야 한다. 횡단보도 표시 이외에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지나가는 차에게 서행을 요하는 표지판 또한 없어 무척이나 위험하게 보이는 길이다.



5) 황구지천교 - 호매실교 : 황구지천교를 지나다보면 원래 무성했던 황구지천이 더 무성해져서 반 대편길이 보이지 않는다. 중간 중간마다 길이 심하게 패여 자전거도 위험하고, 걷기에도 조심해야 한다. 황구지천은 아직은 주변 개발이 되지 않아 푸른 녹색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다. 오른 편으로 높게 솟은 금호동의 아파트숲이 보인다.

- 리서치구역**
- 아파트 단지 개발이 확정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111-3구역)일대
 - 111-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수원시 홈페이지 재개발구역별 사업 추진현황 참조)
 - 기본 계획수립:2006.09.14.
 - 추진 위원회승인:2006.11.08.
 - 정비 구역지정:2008.11.07.
 - 조합 설립인가:2009.10.28.
 - 정비 구역해제:2017.10.23.
 - 정비 구역해제취소:2018.12.31.
 - 사업 시행인가:2021.3.29.
 - (시행 기간:시행 인가일 로부터 36개월)
 - 구역현황**
 - 위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93-6번지 일원
 - 구역 면적:28,911㎡
 - 사업 방식:민간
 - 사업 시행자:조합
 - 사업 규모**
 - 아파트:아파트 6개동 (지상11~22층)
 - 층수:지하2층~지상22층
 - 세대수: 420 세대 (임대 72세대 포함)* 사업 시행 인가시 변경



예정된도시 1 ~ 128

예정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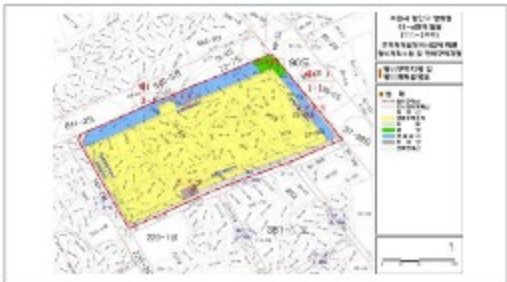
개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를 위한 건축물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사회 안에서 경제적 지위를 드러내는 상징이 되었으며, 사회적 계급을 구별짓는 구조물이 되었다. 이는 수원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9년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시 인구의 54.1%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원화성이 있는 행궁동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아파트 단지 건설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인구조사 총조사 (2020년)에서 수원의 인구밀도는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통계를 들여다보면 수원시의 물리 적 공간이 아파트를 통해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지표면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보다 공중에 떠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도시가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인구 120만이 넘는 거대도시 수원에서 동일면적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는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물론 밀집한 인구의 안정적인 거주권 확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20년 한국전쟁이 일어난 이후 첫 인구감소가 나타난 대한민국에서 수원은 예외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상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여전히 유효한 거주 형태일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예측으로 현재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많은 시간동안 커커이 쌓여 만들어진 터의 무늬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난 자리에, 상실된 시간들만큼 물리 적인 높이로 올라가며 확장해 가는 풍경에 질문이 생겨날뿐이다.



아파트 예상도 (이미지 출처: 주거환경신문)



도시이용계획도 (이미지 출처: 수원시 홈페이지)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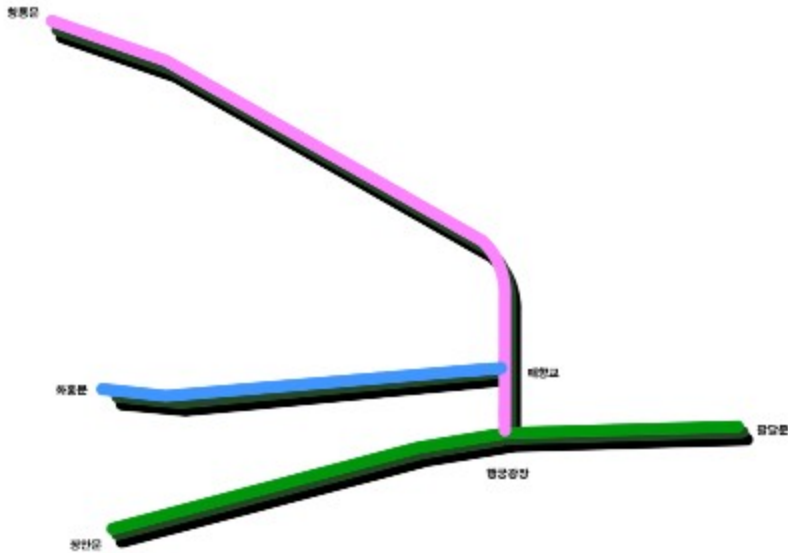


개요

도시조경은 계절이 지나도 록게 획되고 실행되지만, 시간에 따라 변하는 풍경이 아니라 각 계절을 대표하는 식물들로 심기고 곱히기를 반복하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도시조경은 생태적인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간성이 배제된 반생태적인 풍경이며 자연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도시조경은 인간이 자연에 인접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욕망이 합쳐진 형태라 생각한다. 수원시에서 기로수전지 작업을 통해 기하학적 모양으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역시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태도라 여겨지기도 한다.

문득 도시의 도로와 보도의 틈을 비집고 지나가는 식물들의 모습은 예뻐왔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적이 드물어진 틈을 비집고 자란 식물도 있고, 재개발이 예정되면서 인간들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식물들도 있다. 도시 안에서 인간과의 합의를 얻은 도시조경과 무관하게 침범한 자연의 모습이 기묘한 생동감과 함께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들에 등장하는 인류가 사라진 이후의 풍경들이 현재 진행 중인 팬데믹의 상황속에서 만들어지고자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 지금의 도시 안에서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기보다는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서로의 영토를 침범하면서 말이다.

작은 틈을 비집고 나와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식물들의 모습에서 이 경쟁에서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 인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전지된 나무들은 이 경쟁에서 인간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전지된 나무의 뿌리는 인간이 놓은 보도블럭과 아스팔트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들어올리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료리서치구역
정조로, 창룡대로, 수원천로: 팔달구기로수현황표(2021) 참조
구역별 기로수종 및 띠죽지종 현황

- 정조로
- 은행나무: 165주
 - 버즘나무: 138주
- 창룡대로
- 은행나무: 137주
 - 느티나무: 22주(띠죽지 7주)
 - 사철나무: 띠죽지 70m
 - 칠엽수: 1주
- 수원천로
- 버드나무: 251주
 - 수양벚나무: 72주
 - 왕벚나무: 58주
 - 향나무: 38주
 - 은행나무: 14주
 - 두충나무: 5주
 - 청단풍: 2주
 - 주목: 2주
 - 느티나무: 1주
 - 버즘나무: 1주
 - 자귀나무: 1주
 - 회화나무: 1주
- 현장리서치구역
- 정조로: 팔달로-장안문일대
 - 침범된 도시 1-65, 111-125
 - 창룡대로: 행궁광장-창룡문일대
 - 침범된 도시 66-110
 - 수원천로: 매한교 - 화홍문일대
 - 침범된 도시 126-131





청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20대

20-1

저는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던 단체를 운영했었고, 아이들 교육 제품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바탕으로 현재는 전통문화 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문화, 역사 공간 덕분에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수원은 소음의 도시입니다. 작업장 주변에 비행장이 있어서 소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비행기 소음 때문에 일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집중력도 흐트러져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더라고요. 비행장 소음 공해 문제는 오래도록 이어져 온 문제인데, 비행장을 옮기지 않는 이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원역 자체가 교통의 요충지이고, 직장이 많은 도시라기보다는 거쳐가고 출발하는 출발 지점이라 출퇴근 소음은 이해하지만, 비행장 소음은 조금 국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원이란 도시에 대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청년문제로는 제가 개인사업자이기도 하지만, 같이 작업을 함께하는 직원이 있는 한 단체의 대표로서 이야기를 하려면,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도 관심이 있고 사회현상에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나 유튜브의 기사 제목만 보고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대강 알뿐이지 그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고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상이 많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들을 봤을 때,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나 지식이 깊지 못해서 현혹되는 게 아닌가? 속 빈 강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회사의 대표로 현재 일을 유지하는데 행정 처리들이 많아서 애를 먹기도 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조금 지치기도 하거든요. 사회현상으로 노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퇴임하는 것은 나이가 결정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돈은 없고,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요즘입니다.

청년의 제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느끼고 있는 수원원의 소음과 현재의 청년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은 '살려줘요! HELP US!'입니다.

20-2

수원에 8년 정도 거주하고 있고,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란 도시의 장점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전통적인 문화나 한옥, 전통시장, 백화점, 구도심과 신도심이 어우러져 있다고 생각해요. 구도심에는 우리나라의 근대사, 우리나라의 전통의 문화를 볼 수 있고 신도심에서는 현대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그 안에서 다양한 문화를 볼 수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통로이고 여러 도시에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서 다양한 지방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생각보다 꽤 많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어서 좋아요. 또한, 도시와 자연이 한군데 어우러져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수원은 '쌍봉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하지만, 단점으로는 비행기 소음을 듣고 싶어요.

수원이 청년이 살기에 좋은 도시인가? 생각해 보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항공종은 옛날분들도 많은 만큼 젊은층과 노인층이 어우러져 있어요. 수원하면 떠오르는 단어로는 조화? 쌍봉(웃음) 화성 항공 안에 어우러져있는 다년층이 흥미로워요. 어른 아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하게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화성항공의 전통적인 장소 부근에 힙한 장소나 힙한 일들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청년문제로 심각한 것은 현재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이 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대들에게 워라밸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율로족(YOLO)이라고 워 세대분들은 비하하듯이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래를 꿈꿀 수 없으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방법밖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미래와 결혼을 꿈꿀 수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려면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돈과 시간이 없어서 미래를 꿈꾸기가 어려워요.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꿈꿀 수 없다는 거죠. 짐을 시고 차를 사지 않고, 적게 벌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생존 능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행위가 결혼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부분인데 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해도 덩크족으로 살거나 결혼할 여력이 안돼서 동거를 한다고 해도 돈이 필요하니 혼자 사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이것이 모두 슬픈 현실이지만, 뭔가 요즘 청년은 합리적으로 외로운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쾌적한 주택이라도 마련이 된다면 아이는 못 낳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택 청약이 되어서도 집들의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고, 주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값 상승으로 현재의 청년이 살 수 있는 집은 없어요.

쌍봉도시 속에 청년은 합리하게 외롭다.

20-3

저는 수원 토박이예요. 수원에서 쪽 학교를 다녀서 추억이 많아요. 특히 수원의 남문이 저에게 가장 많은 추억이 있었고, 수원을 잘 보여주는 장소인 것 같아서 수원을 대표하는 장소라고 생각해요.

저는 현재 영상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선후배 친구들과의 관계가 지금에 와서 수원에서 일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지역사회에서 서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게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저는 앞으로 계속 수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가 걱정이에요. 영상을 하다 보면 전문적이고 다양한 기기들을 대여하는 장비숍이 수원에는 없어서 결국 서울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기관이나 스텝이 거의 없어요. 확실히 서울보다 누릴 수 있는 인프라 면에서는 혜택이 없어요.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수원엔 없어서 꼭 서울을 거쳐야 하더라고요. 문화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좋다고는 하지만, 모든 게 서울로 집중되어 있는 게 아쉬워요. 수원 인구도 많고 꽤 큰 경기도 중심 도시인데도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관이나 장비샵은 들어서지 않더라고요.

수원에 오래 살다 보니까 수원에 맞잡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프랜차이즈화 되는 가게들이 많아져서 좀 많이 아쉬워요. 수원원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문화적인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가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수원 지역 안에서도 광고 산다, 영동 산다, 이런 식으로 잡사는 동네, 옷 사는 동네를 구분하고 빈부 격차를 은연중에 내보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제 기준에서 청년문제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영상 창작을 위한 지원 사업들도 많은 것 같은데 효율적인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원 내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자율성이 축소되는 지원 사업들이 많아서 지원하기가 힘들어요. 좋은 작품을 만드는 데도 이상하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제약이 생기더라고요. 활동이 많아지면 많이 질수록 민간지원 또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민간과 수원의 시기업들이 의미 있는 창작 작품에 대한 후원사업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함께 일하는 친구들도 챙겨야 하고,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문화 콘텐츠를 위한 지원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으로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더 누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문화상품이나 상점, 행사, 지원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문화도시 말고.

20-4

수원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자취하고 있어요. 수원이란 도시가 좋은 이유는 걸만한 곳이 생각보다 꽤 있고, 서울이랑 가깝고, 서울 갈 일이 많아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교통이 좋아요. 저는 수원에 대해서 대표적으로는 광고 신도시의 세련된 이미지가 떠올라요. 엘리웨이, 갤러리아 같이 새로 생긴 큰 몰과 학교가 가까워서 자주 방문했었는데 현재는 좀 많이 복잡해져서 잘 가게 되진 않더라고요.

현재 청년으로서의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있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나름대로 현재에 만족하고 있어요. 저에게 수원은 여러 살인사건으로 인한 무서운 이미지, 범죄 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광고의 야경 풍경을 보고 마시는 맥주를 마실 때의 즐거움처럼 좋은 기억이 많은 도시입니다.

수원의 야경은 청년의 마음을 위로한다.

20-5

중학교 때부터 수원에 있었는데, 살기주는 20대 때부터 수원에서 지내고 있고 현재는 개인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들어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문제로 얘기되는 것들이 많고 고민이 되지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추가, 일자리 등등. 그래도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 수원에 대해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수원은 남문 로터리를 기준으로 한쪽은 시장이고 반대쪽은 문구점이 있고 많은 세대가 다양하게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행궁동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성행궁을 자주 보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수원 땅!

20-6 미술활동을 위한 작업실로 수원에 1년 정도 수원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마음이 맞는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원이 경기도의 중심이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기차역이 중심에 있는 것도 그렇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한 교통의 요지라서 편리해요. 수원에 도착하면 수원역 광장이나 기차나 전철에 타고 내리면서 서울에 경북궁, 다양한 궁들이 있는 것처럼 수원에도 화성행궁 같은 성곽의 전통적인 건축물이 있어서 좋아요. 도시와 옛 것들이 융합된 느낌이라 좋지만, 비행장으로 인한 소음에 따른 불편함과 피곤함이 있어서 비행장 이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전시를 준비하고 자리를 잡느라고 바쁘지만, 청년들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결국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니까요.

청년이 살아야 수원이 산다.

20-7 수원에서 거주하며 생활한 지 4년이고,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수원은 자연을 보면서 작업실을 갈 수 있고, 산책하기 좋고, 공원이 많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체로 평화롭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 화성, 방화수류정 같이 자연과 함께 있는 건물과 문화제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청년 주거 관련해서 요즘 관심이 많은데 이것은 수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값이 치솟아서 마땅히 지낼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청년 주택 관련된 정보나 지원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행히 자연이 있는 평화로운 곳에 작업실을 얻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어서 그런지 현재까지 저에게는 평화로운 풍경이 많은 도시로 기억될 것 같아요.

평화롭다.

20-8 저는 수원에 지낸 지 1년 정도 되는데, 교통이 장점이고 생활하기 편한 것이 큰 장점이에요. 백화점도 있고 공원도 있어서 서울 떠나서 경기도권에서 생활하기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 수원은 낮과 밤의 차이가 굉장히 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자주 서울과 수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아침에도 수원역을 보고, 저녁에도 수원역을 볼 때가 있는데, 낮과 밤의 강도가 달라요. 낮은 편찮은데, 밤이 되면 유독 위압적인 느낌이 들어요. 특히나 수원역 쪽은 치안이 좋지 않아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에 노숙자들도 많고 복잡하고 소란스럽더라고요. 대부분 도시에 들어올 때 가장 처음 들어서는 곳이 역이잖아요. 수원역은 저에게 복잡하고 조금은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요. 수원을 대표하는 역이기도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해 조금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창 수원에서 다형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요즘 청년들 모두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대한 고민과 그 이후엔 주거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것도 있고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게 지기한테 맞는 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코로나 시대에 맞게 새로운 일을 찾든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새로운 직업군에 대한 교육이든 청년 직업교육이나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지원이 수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업교육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새로운 교육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수원의 낮과 밤의 변화가 극심해서 낮이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청년에게도 밤보다는 낮과 같은 밤음이 더 많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낮을 응원합니다.

30대

30-1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현재 수원에서 개인 창업을 진행 중이에요. 수원에서 생활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앞으로 알아보고려고 해요. 저는 요즘 주거와 부동산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안 보던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청약을 많이 찾아보게 돼요. 이번에 주식 공모주 찾아보고 있는데 청년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져서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크게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창업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더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요. 저는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고 여성과 남성의 성 평등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말로만 하는 성 평등에 질려 있는 상태예요.

저는 여성으로서 출산의 고통이 막연히 두려웠었는데, 진짜 성인이 돼서 스스로 생각이 했을 때도 출산이 부담스럽고, 누군가의 삶을 책임질 자신이 없기도 할뿐더러 환경적으로도 요즘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자연재해, 온난화, 코로나로 인해 내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어서 결혼도 선택, 아이를 가지는 것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세대같이 돈 모아서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를 가지는 건 꿈꾸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일, 경제력, 성 평등, 주거, 결혼, 출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생존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내 한 몸 잘 건사하길 바라는 거죠. 각자도생.

30-2

수원 탑동에 2년간 거주 중이며, 도예 활동을 진행 중인데요. 수원은 살아보니까 현대적인 부분과 전통적인 부분이 잘 융합이 된 도시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아쉬운 부분들도 다소 있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잘 갖춰진 문화적으로 잘 갖춰진 도시라고 생각해요. 수원 탑동은 대부분 만족하고 있는데, 비행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유일한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수원에 특히 아쉬운 부분은 상업적인 부분과 전통적으로 살려야 되는 부분의 경계를 섞는 부분에서 교집합 되는 부분이 아쉽고 미흡하다고 생각해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만, 수원만의 캐릭터를 담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화성행궁, 행궁동 일대를 돌아다녔을 때, 되게 핫하고 힙한 가게들은 많이 생기는데 뭔가 그 골목을 대표하거나 캐릭터를 대표하는 스토리성이 아쉬운

것 같아요. 화성행궁 따로, 주변 가게들 컨셉 따로.

저는 처음에 수원에 왔을 때, 수원역 앞에 내렸는데 개구리 캐릭터가 유난히 잘 보이더라고요. 워낙 개구리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가 버스를 타는데도 개구리가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그 개구리가 수원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개구리 캐릭터와 연계된 이야기가 있는 상품이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청년으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편이어서 제 현재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루트를 찾고 있거든요. 다른 청년 분의 얘기를 들었을 때 청년들만을 위한 지원 정책이러든지 창업이 됐든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가 됐든 홍보가 미약하거나 제도적인 것들이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어요.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청년들이여 팔박팔박 뛰어올라

30-3

수원에서 4년을 지냈고, 협동조합에서 주강사로 일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창작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수원에 지내면서, 수원 화성이라는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 그게 큰 구심점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 보니' 후에 대한 개념이 다른 지역보다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버스에서 20, 30대 청년들이 항상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꽤나 자주 봐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도시에 사는 게 각박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저는 수원 청년들이 정이 많고 예의 바르고 어른들에 대한 대우를 잘한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요즘 청년 취업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일하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일상이고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사회에 나와서 도전을 하면서도 실패하기도 하고 해야 하는데, 사회 밖으로 나와서 생산적인 일에 참여할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일을 찾아서 자기만의 사회운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하는 일은 협동조합 내에서 창작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 재단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어서 만족하는 편입니다.

저는 수원에 대해서 이미지를 떠올려보면, 수원의 화성 광장, 화홍문, 화서문 근처의 야경 풍경이 인상 깊긴 했는데, 정자동의 노송지대의 풍경이 정말 좋더라고요. 깨끗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가. 노송지대의 풍경을 통해 청년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고 싶어요.

노송처럼 깨끗한 청년이길

30-4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수원에서 학교를 다녔고, 20년 넘게 생활했고, 현재는 행궁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원이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지만, 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서울의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 사진관 오픈하기 전에 촬영하러 다니다 보면 집(복수원, 성대) 쪽에서 강남까지 20-30분이면 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진 않지만, 대중교통도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수원에서도 외곽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나름 편하고 단점이

랄 건 없어요. 수원에서 생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시 안에 유적지나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점이 많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20-30분이면 준비해서 돌아다닐 수 있고 문화적으로 행사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는 행사가 정말 많았는데, 아쉽지만 지금은 야행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축제 때는 그래서 좋아요. 수원문화제 행사도 가족들이랑 다른데서는 보기 어려운 건데 확실히 좋아요.

현재 저도 중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거지와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진 않더라도 나쁘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거든요. 애들 어릴 때 좀 편하고 즐겁게 지내고 싶어서요. 최근에 거제도도 다녀왔는데 문을 열면 흙이랑 산이랑 바다고 이런 환경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월에 경주를 갔었는데 수확여행 이후로 처음으로 3박 4일 동안 여행했는데 숙소가 한옥 스타일이었어요. 방문을 열면 잔디 마당이 있고 'ㄷ'자 형 건물이라 아이들이 나가지 않아도 그 안에서도 재밌게 놀더라고요. 또 주변의 다른 여행객 자녀분들과도 재밌게 놀더라고요. 여행을 다녀와서 사진을 찍고 아이들과 함께 보는데, 아이들이 마당이 있는 집이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마당 있고, 우물 있고, 펌프 있고 이런 게 재밌고 좋다고.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긴 해요. 아파트는 편하긴 한데, 내 집은 아니죠. 수원 집값도 비싸서 지방의 단독주택을 언어서 지내볼까 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도 현재 수원에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고, 나름대로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물루랄라로 표현해 봤습니다.

30-5

저는 동수원에서만 살았어요. 수원은 기본적으로 교통이 좋고, 스포츠 구단도 많고, 문화생활이 다양해서 좋아요. 나쁜 점은 딱히 없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학창 시절 때 약간 다른 지방 친구들이 무시했어요.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처럼 경기도에서 지역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는 지역이 수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역 부심이 있거든요. 그때 친구들이 수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비아냥 거리듯이 얘기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저는 확실히 수원은 여러 가지로 좋다고 느껴요. 수원 화성을 산책길을 자주 걸었는데,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커서 보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스포츠 팀이 있어서 '스포츠 도시 수원'이지 않나. 수원에 맞춰도 많아서 왕갈비 통닭,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 인계동이나 행리단길도 맞춰도 많아서 만족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돈, 일, 주택, 결혼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먹고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요즘 뚜벅뚜벅 일하며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수원에서 뚜벅뚜벅 잘 헤쳐나가고 싶어요.

다른 청년들도 뚜벅뚜벅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뚜벅뚜벅'

30-6

저는 4년간 수원에서 생활했고 지금은 이사했지만, 친구들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몸 아플 때 가는 병원들도 있고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수원이에요. 사람들이 있고, 추억이 많은 청계은 이미지로 떠올려져요. 일과 결혼,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수원에서

수원이 옛날부터 효의 도시인만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시대여서 답답하고 살기 팍팍해져서 모두가 참 힘드네요. 효의 도시 수원,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네요.

60-3

저는 수원에 산 지는 45년 정도, 장안동에 거주하고 있고, 행궁동에서 고추 상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수원이란 도시의 장점은 판 데와 비교해서 조용하고, 각박하지 않고, 시골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가끔 서울 가면 못 살 것 같고, 수원에 내려오면 편안해. "일단 편안해요. 요즘 행궁동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옛날 보다는 각박해지고, 옛날의 정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계도 팔거나 세를 놓고 주변 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말동무도 없어서 아쉬워요.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집값도 상승하고 경제적으로는 좋지만, 코로나도 겹쳐서 옛날처럼 소박하게 밥 나눠먹는 정은 없어졌어요.

저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있으니까 운동도 못 가고, 친구를 만나지도 못하고 소통은 못하게 됐죠. 2년 전에는 장사하다가 운동 시설에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교류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다 이용할 수 없어졌잖아요. 노인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고, 병원도 많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들도 가깝게 있어서 참 살기는 편해요.

저는 원가 손주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지 이 동네에는 어린이 집하고 유치원 시설, 어린이들이 뛰어놀 놀이터가 없는 점이 아쉬워요. 우리 딸은 회사에 있는 빌딩에 유치원에 맡 놓고 맡기면 되는데, 행궁동은 보육 시설이나 육아하기가 어려운 동네예요. 이런 시설들이 없으니까 다 떠나요. 머느리도 아파트촌, 학원, 학교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우리 아들 친구들도 그렇고 아들도 교육 문제로 다 서울로 나가서 아쉬워요. 이런 보육 시설이 많으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찾을 텐데 아쉬워요. 그래서 노인인가가 더 많아진 게 아닌가 싶고. 노인들은 병원이나 교통이 좋아서 좋지만, 젊은이들이 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 요즘 청년들 일자리,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쉬워요. 주위에도 보면 애들도 그렇고 이변에 놓친 사람들은 갈아탈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조그만데 살다가 더 좋은 곳으로 옮기고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사다리가 없어진 거죠. 그전에는 부모가 조금 도와주고 자신들이 보태서 놀러가는 재미로 살아갔는데, 현상 유지만 하면 잘 되는 거고 현상 유지 안되면 힘들다는 것이죠.

저는 자식을 아파트 촌으로 가서 있다가도 바로 행궁동으로 와요. 우리 주변에 다 기계고 세놓고 판다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5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상 유지를 처음으로 겪고 있어요. 우리 세대 부모들은 고생했던 사람들이라 저력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무너지면 집안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라 걱정이예요. 저희 세대는 웃은 밤이 없으면 되는 거고 사실 먹고사는 데는 얼마 들지 않아요. 부모가 큰 병이나 자식이 큰 병이나 사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먹고사는 데는 그리 크게 들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 테지만, 청년, 중년, 노인 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별 탈 없이 안전하고, 저는 육성이 없어서 현재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만족해요.

수원의 청년과 노인 모두 힘들지만 힘내자! 모두 행복하세요.

70대

70-1

저는 해방동이에요. 1945년생, 77세. 수원에서만 44년 동안 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을 키우고, 행궁동에서만 32년을 살았지. 저는 탈실로 뜨개질을 떠서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화를 판매해요. 요즘 매일 가게를 나오고 뜨개질을 하고 손님들이나 동네분들 오면 얘기 나누고 그러고 지내요.

수원은 화성행궁이 있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좋고, 인심도 괜찮고, 여러모로 좋지. 사람 사는 데 다 비슷하지. 살기 좋은 동네야. 카페도 장안동, 북수동에 많이 생겼는데, 토, 일 요일에 번화하고 북수동 쪽으로는 한가해. 동네에 젊은 분들이 카페 차리고 많이 와서 랜지 모르게 활기차 보이고 기분이 좋아서 좋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놀러 오라고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좀 많이 미흡해. 오시기는 많이 오시는데 차 몇 곳이 없으니까, 주차장은 생기긴 하지만 미흡하니까 주말에는 차들을 못 대서 뿔뿔 때는 걸 보면 손님 오시라고 하기가 어려워. 예들도 오면 놀이시설, 편의시설이 여유로워야 하는데 항상 놀이터 같은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게 좀 아쉬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아이들 웃음꽃이 피는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놀이시설이 많이 없어. 오래된 동네일수록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동네가 젊어지고 그러는 건데, 놀이 시설이 여유롭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

요즘 청년들이 외부에서 와서 카페하고 뭐하고 하긴 하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몇몇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왜냐하면 많은 것을 투자해서 왕성하게 장사가 잘 되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것도 마음이 아프고, 2-3년 계약하고 가만 보면 손님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아쉬워 보여요. 목적목적하는데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데는 항상 쓸쓸하고 그래 보여서 아쉬워. 청년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 힘내서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 청년들이 웃어야 나라가 잘 돌아가는 거지.

요즘 나는 새벽 산책 걷기 운동하고, 낮에 시간 나면 걷고, 가끔가다 팔달산에 뭍도 뜨러 갔다 오고, 평지이고 걷기가 아주 좋아. 산책 겸 걷기 하는데 좋고, 개울, 수원천 일대 걷기 하는데 노인 걷기에 평지가 많아서 좋아. 운동기구도 좋아. 노인시설이 행궁동에 꽤 많아. 노인정이 행궁동에는 6-7개나 되는데, 할머니들 위주로 노인정이 있고, 할아버님들은 거의 없지. 노인 복지 회관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출입을 못해. 예전에는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음악도 서예도 하고 컴퓨터도 많이 했는데, 헬스 기초를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가게 되었지. 자주 만나 뵙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요즘 나이 들어서 노인에 대한 걱정은 경제적인 면이지. 노후 대비에 대한 일자리, 노인들이 쓰레기 줌기 이런 일 같은 것들을 하긴 하는데, 노인들이 여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딱하지. 노인 일자리도 좀 많이 생기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복지관이 문을 활짝 문을 열었으면 좋겠으면 좋겠어. 노인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라요. 다들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항상 건강하고 뜨개질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이웃들과 잘 어울려서 잘 살아야 하무하무가 즐거운 거니까.

노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수원.

수원시민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70-2

1950년생 72세. 5대째로 평생 수원에 살았어요. 농사꾼 아들이라 북 수원시 지동 뒷골 쪽에 살고 있어요. 지금은 산업 도로 생기고 우만동이 되었지.

수원은 공기 좋고, 문화제도 있고, 인심 좋아서 만족하며 살고 있고, 다른 도시보다 경기도권에 병원도 큰 데가 많아서 좋아요. 노인들이 살기에 특히 좋아요. 병원 가까운 게 좋지.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팔달산 있고, 운동하기에 여러 가지가 좋아요. 광고 저수지, 월천저수지, 그런 광고호수공원. 시설이 좋고 전망대도 있어서 좋아요.

수원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노인이 아니라 마음과 몸이 50대라고 생각해요. 요즘 조금씩 몸이 좀 아파서 침을 맞고 다니는데, 약을 쓰니까 조금 나아요. 10시간 이상 누워있으면 피로가 풀려서, 일어나면 월드컵 경기장 가서 외밭자전거 타고 연도 띄우고 있어요.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매일 만나는 분들이랑 취미활동해요. 요즘 노인들이 게이트 볼도 많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거든. 게이트볼 말고도 복지시설, 운동시설을 좀 많이 늘리고 확장하면 좋겠어요. 노인들을 위한 놀이거리나 놀이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코로나 끝나면 함께 밥 먹고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많아지면 좋지.

지금 외밭자전거를 한창 타고 있는데, 외밭자전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자전거가 4대고, 교습용으로 6대를 가지고 있는데, 외밭자전거를 남녀노소 많이 탔으면 좋겠어서 언젠가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많이 교육해 주고 싶어요. 지금 70대인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어. 나는 수원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문났어요.(웃음) 10년은 더 운동하고, 외밭자전거를 타고 싶어. 지금 충분히 건강해서 꼭 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다들 노후 대비 잘하고, 건강만 하면 좋겠네요.

효의 도시 수원이라 아주 좋아요.

70-3

1979년에 서울에서 수원에 왔고, 40년 이상 거주하면서 일도 하고 돈도 좀 벌었어요. 노후 준비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원에 살 예정이에요. 수원의 세류동에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행궁동에 온 지는 28년 됐네요.

수원의 장점은 참 도시가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재 발전, 예술 발전이 되어있고 특히 광고산은 운동하기도 좋아요. 수원의 행궁 광장이랑 광고산도 좋고, 화성행궁 행사는 항상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수원이 노년의 나이를 지내기 좋아요. 수원 노인 시설, 경로당도 나가는데 잘 되어있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려운 사람들 식사 무료 제공도 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고 그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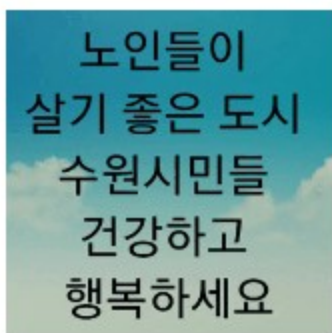
저는 연날리기 회장, 한국연 총연합회 회장, 화성 문화재에 등록된 지 1년 되었어요. 회원들은 모이면 10명 정도 되는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기지도 있고, 교수도 있고. 행궁동 창릉문 쪽에서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지방에도 초청회로 초대해서 가면 연 띄어주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해서 혼자 날리거나 다른 분들과 함께 날리기도 해요. 어린 친구들도 교육도 해주고 손 봐주고 고맙다는 인사도 여러 번 받아서 보람이 있어요. 요즘도 직접 연을 만들고 있는데, 청개구리 있죠? '수원'이'를 만들고 있어요. 수원의 랜드마크라서 큰 거 하나 만들고, 수원이 날려 봤어요. 나이 먹어서 집에 기만하 있으면 뭐가 좋나. 얼마나 행복해.

일도 가끔씩 하고 연날리기도 하고 있으니 좋아요. 시간 나면 타일 시공 일도 하러 다니거든요. 하기 싫어도 사람들이 찾아줘요. 근데 70대가 되니까 건강이 천지차이가 나요. 이른 데가 조금씩 생기고, 고생해 봐서 느끼고 있어요.

저는 노인들이 살기에 한국은 아직 노인문제에 대한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해요. 요양원 시설이 전부 다 찌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최고라는 게 잘못됐다고 봐.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노인 빈부격차가 있긴 하지만 서로 도와주고, 사회복지에서 도와주고 하면 좋겠어요. 서로 돕고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지리나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지만, 늙어오니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떠나고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해소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구체적인 노인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의 계획은 늙을 때까지 해서 힘닿는 데까지 도움 주면서 살고 싶어요. 돈 가지고 죽는 거 아니니까 남한테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노인이 살고 싶은 도시, 수원
수원을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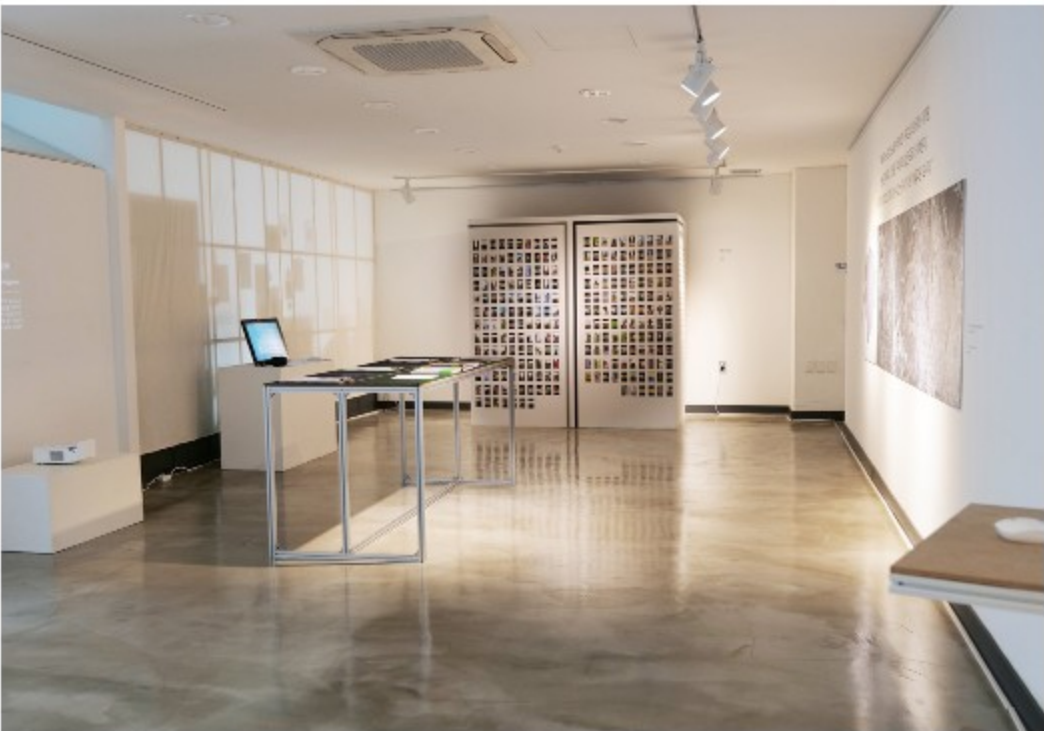


청려원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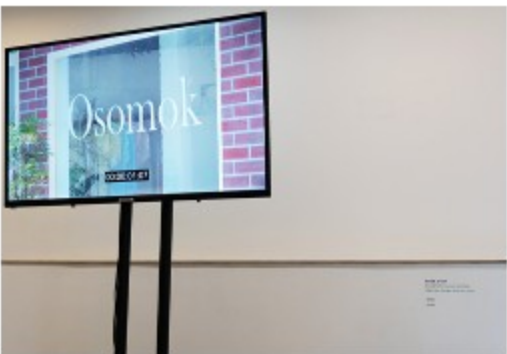
전시 스케치



도시충동 예술충동 전시장 입구



도시충동 예술충동 기록생산자 전시 전경



망도프로덕션 도시언어





김철이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본다.



박김형준 비행기 소음지도



먼저로 청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도시충동 예술충동 기록성신자 전시 전경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내몬,

우리 동네 벽화 미워

김월식

장소 : 아트블랑켓
(향교로 154)

그림을 좋아하고 미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예술공간

《죽은 유산이 산 사람을 내 몬》과 《우리 동네 벽화 미워》는 공공 미술의 시민 팔리와 민주주의를 가장한 코스프레가, 다수결이라는 말과 공공성을 교묘하게 동의어로 묶어놓고 여전히 소외와 차별, 혐오에 대한 무감각에 대한 불편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때문에 할부로 정의된 공공성이 놓아버리고 모르는 척 하는 공공의 나머지과 사라지다, 그 바깥에 대한 서사를 호명하는 일로 확장된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화성과 맞닿아 살고 있던 특기노인들의 오랜 삶의 터전이, 화성의 유네스코 등재와 함께 공원 녹지화 사업으로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사건, 혹은 이 지역의 공무원과 한 통화 직기가 폭력적으로 저질러 놓은 벽화 같은 것으로부터 삶과 미학의 다양성을 되 찾아 오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작업들은 공공성을 핑계로 삶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위계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똑같은 공공의 방식으로 과정을 설계 한다. (프로파간다나 캠페인 같은 형식이 될 수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관제형 거버넌스와 참여형 의제를 갖춘 공공성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짓을 드러내기 등의 공공성과 공공참여 대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작가의 발언이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태강

장소: 수원시립중앙도서관 (팔달산로 318)

1980년 개관한 수원의 시립도서관

2019~2020년 정부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은 모두 569,126명이면 그 중 약 1/10인 54,212명이 시각장애이다. 수원에 사는 장애인은 모두 43,075명이다. 단순 비례로 예상해보면 수원에 적어도 4,000명가량의 시각장애인이 살고 있다.

그러나 서류에 등록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나는 오기가 생겼고 4,000여명의 시각장애인을 모두 찾아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 그들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났다.

시각장애인들은 왜 이렇게 꼭꼭 숨어있을까? 혹시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어디에 숨어있을까? 어쩌면 그들은 모두 우리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작가는 어느순간 스스로가 숨겨지는 것과 작가가 찾아나선 사람들은 모두 안개지역에 숨어 있는, 숨바꼭질 교수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독특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나 써 내려갔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녀는 어떤 특별한 숨바꼭질을 하게 될까? 과연 작가가 이 숨바꼭질을 끝낼 묘수는 무엇일까?

작업 메모

2021년 9월 8일 작업 메모

시각장애인 정일환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나는 작업을 핑계로 오랜만에 안양을 방문했다. 날씨가 참 좋다. 하늘이 유독 피란 날이다. 작년에 큰 도로가 뚫려서 작업실에서부터 서수원까지 금방 도달한다. 그래도 익숙치 않은 길이라 생각보다 조금 걸렸다. 큰 길가에서 빠져 골목으로, 그리고 위로, 위로 높이 올라가니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었다. 그곳에 도착하니 오늘의 만남 속에 웬지 모를 깨달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다.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오는 길까지도 웬지 모를 답답함이 느껴졌다. 고개를 드니 높다 높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을 보고 겨우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웬지 모를 이 통쾌함. 그래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마다의 섬에서 갇혀 지내는 시각장애인들도 갑갑해 하듯, 그들을 만나고 그들 돌보는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깨달아졌다. 보호자도 함께 밖에 나가 하늘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을까?

2021년 9월 10일 작업 메모

한 발달장애인 치료사에게 "청각장애인들은 만나기가 비교적 쉽고, 자기들끼리도 잘 통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만나기가 어렵다. 심지어 그들끼리도 잘 통치치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정일환씨를 알게 된 것은 수원에 청자 도서관을 통해서였다. 그곳에서 시각장애 작가 정일환씨의 책을 추천받았고 그 책을 통해서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 정일환씨에게 책은 그야말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아름다운 창이었다. 작업에 희망이 보였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안양으로 향했다. 그러나 80이 넘으신 할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사모님 말씀에 할아버지께서 몇 년 전 뇌졸중이 되서 이전보다 더욱 생활이 힘들어졌다고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난 분처럼 혼자 사색을 즐기거나, 글을 쓰거나, 책을 읽거나, 끊임없이 혼자 하는 활동을 즐기지는 이상, 사람을 좋아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참 힘들겠다! 시각장애인들은 각기 저마다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았다. 2021년 9월 8일

에 만난 정일환씨도 살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임을 주도하는 교회 말고는 단 한 번도 시각장애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시각장애인들이 마치 하얀 도화지의 하얀 점을처럼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는 곳에서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 여겼고, 네 거겼지" 라는 대사가 떠올랐다. 소통은 하고 있는데, 소통을 하기 원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망상으로 넘어갔는데, 어쩌면 시각장애인들이 각기 약속을 하고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허우명량한 생각이 들었다. 바로 숨바꼭질 말이다. 분명히 그들은 이 사회와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었다. 소리 책을 통해서, 점자를 통해서, 심지어 그림을 그리는 미술작가도 있고, 음악가, 안마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다는 시각장애인들이 내 주변에만 보이지 않는다. 어쩌면 그들은 어딘가에 꼭꼭 숨어서,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숨바꼭질은 참 아이러니한 놀이이다. 숨레가 되면 아이들을 찾아야만 하고, 나머지는 숨레에게 잘대로 들리지 않는 곳에 숨어야 한다. 누가 더 잘 고립되는냐에 따라 이 놀이의 고수가 정해진다. 나는 이러한 심리가 어쩌면 시각장애인들의 심리학과 같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들은 장애인으로서 사회에 나서는 것이 때로는 힘들었을 것이다. 특히 태어날 때부터가 아닌, 점차적으로 시각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어둠을 맞이할수록 더 고립되기 쉬웠을지 모른다. 시각장애인은 나이를 먹으면서 장애를 얻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노인이 다 되어서 시각을 잃을 경우, 더욱 더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정일환씨도 비슷한 말을 했다.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만나도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말이다. 그 모습을 보는 나는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그분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저 우울하고 답답함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그대로 작품에 녹이기보다, 좀 더 밝고 재미있는 시각으로 표현해보고 싶다.

나는 지금 시각장애인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그들은 모두 숨바꼭질 고수들이다. 만약에 내가 시각장애인이고, 숨바꼭질 고수라면 과연 어디에 숨어있었을까 생각해본다. 쉽게 결론이 났다. 바로 까만 글자 가득한 도서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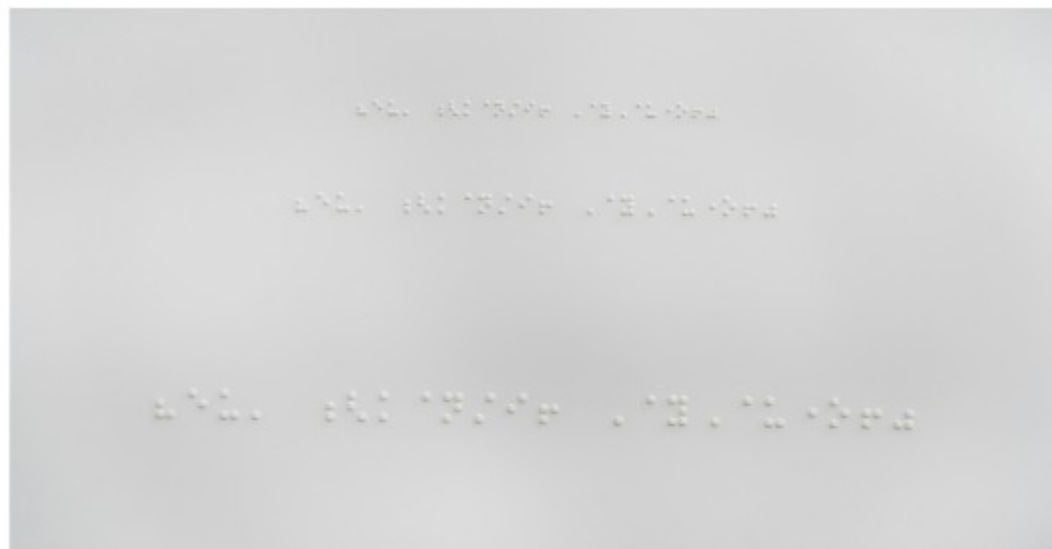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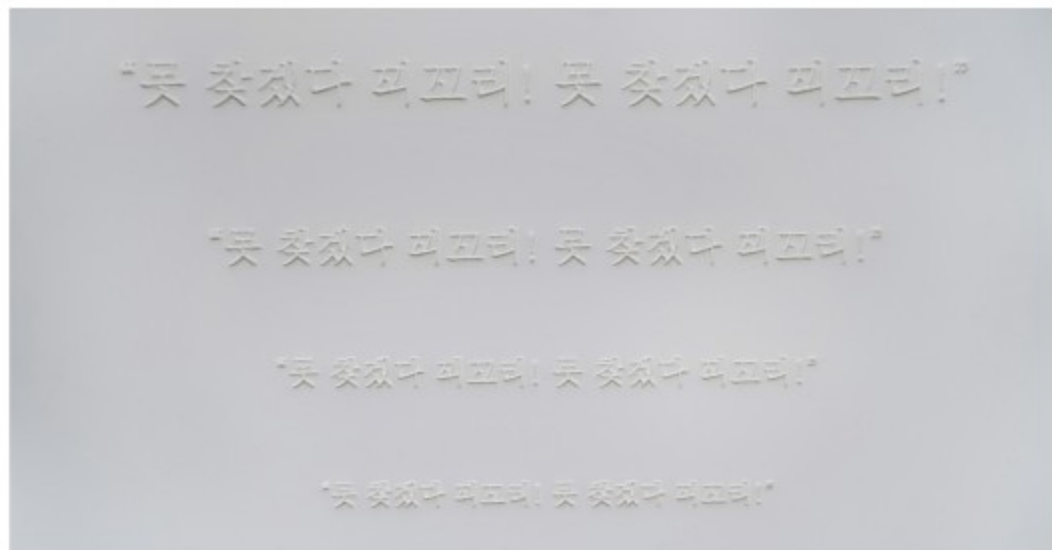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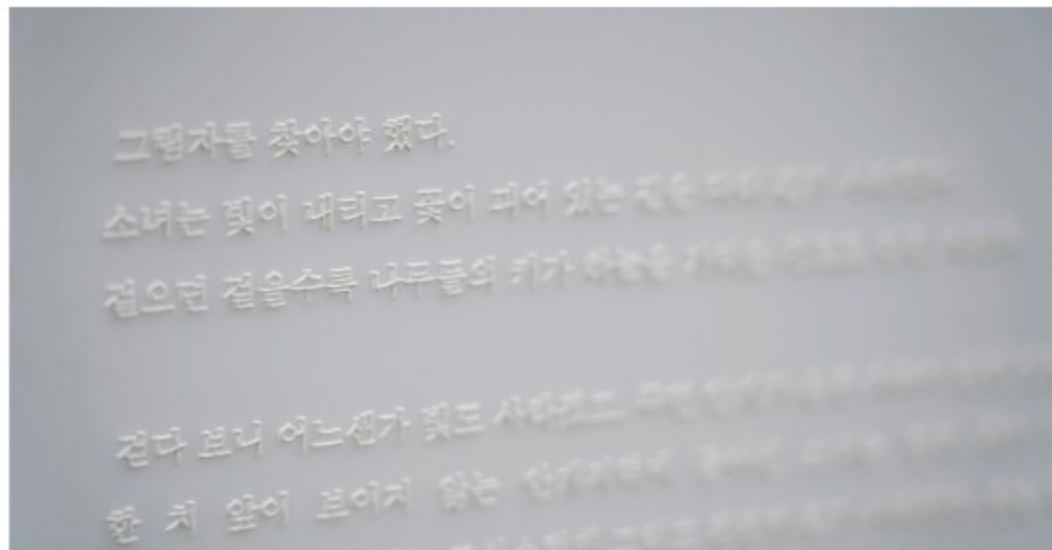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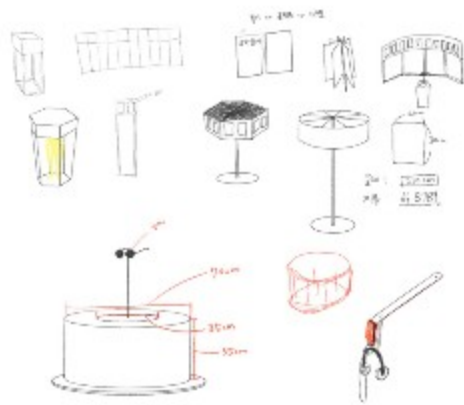
한때 지주 가던 수원시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도서관을 들어가보니 이곳에서도 웬지 모를 갑갑함이 느껴졌다. 도서관은 세상을 보는 창이 되는 곳인데 실제 그 모습은 운동 시방이 책으로 둘러 쌓여 꼭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창문들은 운동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고, 도서관 내부에서 바깥의 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마치 내가 만나고 온 시각장애인 정일환씨의 상황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정일환씨를 만나고 나온 후 보았던 파란 하늘이 생각났다. 이 도서관에 하늘을 심어보고 싶었다.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작업을 이참에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일환씨를 만나고 온 이 감정을 '하늘심기'로 풀어낸다는게 뭔가 시원치 않다.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2021년 9월 28일 작업 메모

답답했던 만남의 시간을 거둬 떠올릴수록 정일환씨는 물론, 그의 아내이자 동양화가이신 유희자씨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분명 남편의 보호자로서, 남편이 홀로 안개지역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늘 함께해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생각은 점점 이야기가 되었고, 어느새 그녀의 어린시절까지 달았다. 이전에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았으니 이번엔 곱고 순수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아보아야겠다는 생각이 스친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있던 소녀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있을 먼지들을 툭툭 털어내고는 서둘러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창고 문을 열자 어두컴컴한 창고 안으로 붉은빛이 한가득 쏟아졌다.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아니, 걷는다가보다 발가락으로 땅을 여러저러 더듬는 모양이었다. 앞으로 가면 발은 겁쟁이 고양이처럼 여러저러 더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

소녀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 소녀의 자신감 넘치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상쾌했던 발걸음도 순식간에 단졌다. 결국 소녀는 그림자도 없이 짙은 안개지역에 갇히고 말았다.

답답한 안갓속에서 소녀는 아까와는 다른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대한 통물의 거친 송소리와, 코를 찌르는 시퉁한 냄새와, 기분 나쁘게 질러대는 새의 비명소리와, 공포스러운 안개의 속삭임에 소녀는 눈물이 쏟아지고야 말았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툭툭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눈물만 쏟아졌다.

그런데 장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보다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이 소녀를 더 아프게 했다. 소녀는 아까 높은 산사를 떠올렸다. 찬凛하던 앉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그가 준 선물이 머릿속을 스쳤다. 주머니 속에 있던 작은 상자들 열자 독특한 모양의 선글라스가 있었다. 소녀는 아무 생각 없이 선글라스를 써보고 깜짝 놀랐다. 세상 모든 것이 선명한 그림자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늘로 길게 뻗은 나무들과, 그 가지에 열려있는 촘촘한 열매들에 보였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림자들을 사아로 쳐 멀리 이곳을 비추는 선명한 빛줄기가 보였다.

그림자와 빛을 마주하는 기쁨에 소녀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소녀는 다시 풍기를 내 뿜기 시작했다. 빛이 오는 방향, 그곳으로 가면 무사히 안개지역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숨이 차오를 정도로 힘차게 뛰는데 어디선가 작은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리둥절해하는 소녀가 달리기를 멈추자 소리는 더욱 커졌다. 단순한 그 노래는 거사도 있는 것 같았다.

네 누구니?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
..

..
..
..

..
..
..

..
..
..

..
..
..

..
..
..

..
..
..

노래는 점점 커졌고, 부르는 이들도 점차 많아졌다. 그리고 이내 선명하게 들려왔다.

“못 찾겠다 피꼬리! 못 찾겠다 피꼬리!”

갑자기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졌다. 눈을 뜨자, 소녀는 그제서야 자신이 창고 구석에서 잠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엔 움직이지도 않았고, 바닥이 온통 풀밭도 아니었다.

어린, 이제 보니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림자를 찾아야 했다. 소녀는 빛이 나리고 꽃이 피어 있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 걸을수록 나무들의 키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점점 커졌다.

겉다 보니 어느샌가 빛도 사라졌고, 무연 안개가 온통 자욱이 깔려 있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지역에 들어선 소녀는 밀려 걷어 나기 시작했다. 이제 소녀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발을 벌려 스치는 나뭇잎들을 느꼈다. 작은 발로 더듬듯이 걸었다.

특별했다. 매우 더디게 걸었지만, 대신 아주 적은 것들까지 다 느낄 수 있었다. 발 밑에 가어 다니는 벌레들의 발소리, 발음 위에 앉아있던 애벌레 손끝에 닿는 느낌, 나무 위를 뛰어다니는 다람쥐들의 속삭임, 저 멀리 노력하는 새들의 허끈 깃털, 온 세상 가득한 짙은 안개의 목소리까지도 들리는 것 같았다.

소녀는 짙은 안갓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었다. 풍기를 얻은 소녀는 점점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아니, 달리기 시작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숨도 차지 않았다. 소녀의 발이 땅을 디딜 때면 저 높은 하늘 위까지 오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쿵!!

어딘가에 부딪혔다. 소녀의 눈에 한 늙은 신사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소녀는 풀밭에 누워있었다. 아아 늙은 신사의 무덤인 모양이었다.

“네 누구니? 여기는 어떻게 온 거야?”

큰 소리로 신사가 물었다. 그러나 놀란 소녀는 툭하니만 온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사는 벗겨진 선글라스를 고쳐 쓰더니 기만히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번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것, 그림자를 잃어버린 모양이로구나..”

툭지는를 뜨고 있던 소녀는 신사의 말에 더욱 놀라 얼음이 되어버렸다. 신사는 얼어붙은 소녀를 보고는 고개를 돌려 질레 흔들더니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아 소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곳은 안개지역이야, 어린아이가 볼 곳도 아니고 뭐 어대에서도 안 되는 곳이란 말이야, 그리고말이야, 안개지역에서는 이게 필수야. 자, 여기 선물.”

소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선물이라는 말을 듣고는 얼떨결에 작은 상자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부디 꼭 이 안개지역에서 빠져나가길 빌마”

늙은 신사는 마지막 말을 남긴 채 순식간에 짙은 안갓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소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얼마 그 신사와 너무 세계 부딪힌 걸까, 좀처럼 걸을 흥기가 나질 않았다. 소녀의 걸음이 무스워졌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글: 이태강 목소리: 박주희
우뚝 선 회갈색 고성 뒤로 짙은 마린이 하늘 가득 칠해진 어느 가을, 고성처럼 오래된 골목 사이로 한 아이의 목소리가 힘겹하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가 얼굴을 가린 채, 벽에 기대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노래가 울려 퍼지는 사이 한 소년이 소녀에게 속삭이듯 물었다.

“너 어디 숨을 거야?”

소녀는 어 똬내해서 숨바꼭질을 가장 잘하는 아이다. 그 실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단 한 번도 술래가 된 적이 없었다. 소녀는 알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살짝 웃어 보이고는 어디론가 뛰어가버렸다. 술래는 친구들의 발소리와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를 향해 비장한 말투로 으름장을 보였다.

“이제 찾는다이아”

“아, 잠깐만!”

아직 숨을 곳을 정하지 못한 아이가 답답하게 소리쳤다. 다시 술래는 노래를 불렀다. 아까랑 다르게 맑고 힘명했던 노래는 현지 오묘게 슬픈 단조로 변한 것 같기도 했다. 몇 번을 더 반복한 술래는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외쳤다.

“이제 찾는다이아!”

골목에 긴 썩막이 흘렀다. 아이들은 저마다 생각다른 비밀장소로 향했다. 한 아이는 나무 위를 오르려다 다른 곳으로 바빠 뛰어들고, 어떤 아이는 골목길 우체통 뒤에, 그리고 또 다른 아이는 자동차 바퀴 뒤에 모양을 맞춰 숨었다.

소녀는 동네의 오래된 창고 앞에서 고개를 든 최 파우를 슬쩍슬쩍 살폈다. 누구를 찾는걸까? 아니면 비밀 장소를 탐험자와 경계를 한걸까?

창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소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고 문을 밀려 열었다. 갑작스러운 소녀의 방문에 놀란 듯 창고 바닥에 있던 작은 먼지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먼지 냄새가 났다. 현지 오묘한 민도의 숨을 내쉬 소녀는 목소리도 술래가 뛰어들어갈까 구석으로 들어가 포그려 앉았다.

소녀의 머리 위에는 갈라진 지붕 틈으로 쏜여온 맑은 빛줄기 하나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소녀의 발꿈치에는 예민 바닥 사이로 들려온 작은 울 하나가 쿵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도망쳤던 작은 먼지들이 다시 빛 사아로 모여들었다. 벽에 기대앉아있던 소녀의 눈꺼풀이 점차 느려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르륵 잠이 들었다.

그때, 소녀의 영맹이에 깔려 있던 그림자가 정정대며 옆으로 빠져나왔다. 주변을 살피면 그림자는 서둘러서 어디론가 도망을 쳤다.

깜짝 놀랐다. 눈을 떠보니 소녀는 낯선 숲 속에 앉아 있었다. 흥분했다. 숨기 가득한 숲 내음이 점차 강해졌다. 놀란 소녀는 그제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등성등성 빛이 내려온 곳에 맑은 꽃이 피어있었다. 이상했다. 무엇보다 질 내뿜이 있는 곳 아래 자신의 모습어 가장 낯설었다.

(사회적발효컬트)에서는 세계를 구원하는 사회적 발효의 메시지가 음지의 장소에서 만들어져 은밀히증식한다. 이 메시지는 단어, 이미지, 수신호, 암호 등의 형태로 무한정 복사, 붙여넣기 된다. 현실과 허구가 자유롭게 교차하고 번식하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인간은 더 이상 세상을 장악하는 모식자가 아닌, 인간 외 구원적 존재로부터 지식과 감각을 배우는 습득자로 작동할 것이다.

제작 계기, 과정, 메모, 회의기록

라이스 브루잉 시스터즈 클럽(이하 RBSC)의 작업에서 작동되는 "사회적 발효"라는 개념은 비인간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협업과 관계에 기반한 예술적 실천을 말한다.

(사회적발효컬트) 작업은 2019년 (발효컬트) 에서 파생되었다. (사회적발효컬트)는 전단지지와 포스터를 수단으로 '사회적 발효'의 메시지를 전파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문구와 발신은 모호하다. 모호한 발신지는 수신자에게 열린 해석을 요구하는 한편 대부분의 프로파간다 피라시처럼 무용할 수 있다. 어쩌면 포스터와전단지지를 나누어주는 손끝과 받아들이는 손끝 만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

교동일대만 걸어도 수원의 여러 역사적 자취들을 볼 수 있었다.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나 활성화되었던 민세거리에서부터 한국 근대기 농업행정과 농업 연구의 중심지였던 수원역 역사를 농작물 종자와 종묘, 농기구, 비료 등을 판매하였던 부곡원(富曲園)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절, 교회, 성당 등 다양한 종교단체와 시설이 산재해 있다. 이 종교적 기점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거나 종교문화활동의 공간이 되어 왔다. 절 옆에 교회 그 옆에 점집, 성당을 지나치며 뜬금없이 이 곳은 영적으로 풍만한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다. 여러 종교와 이를 믿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하며, 어떤 믿음체계가 전파되고 도시 안에서 어떻게 확산될까라는 상상을 했다. 또 그 첫 시작은 어떠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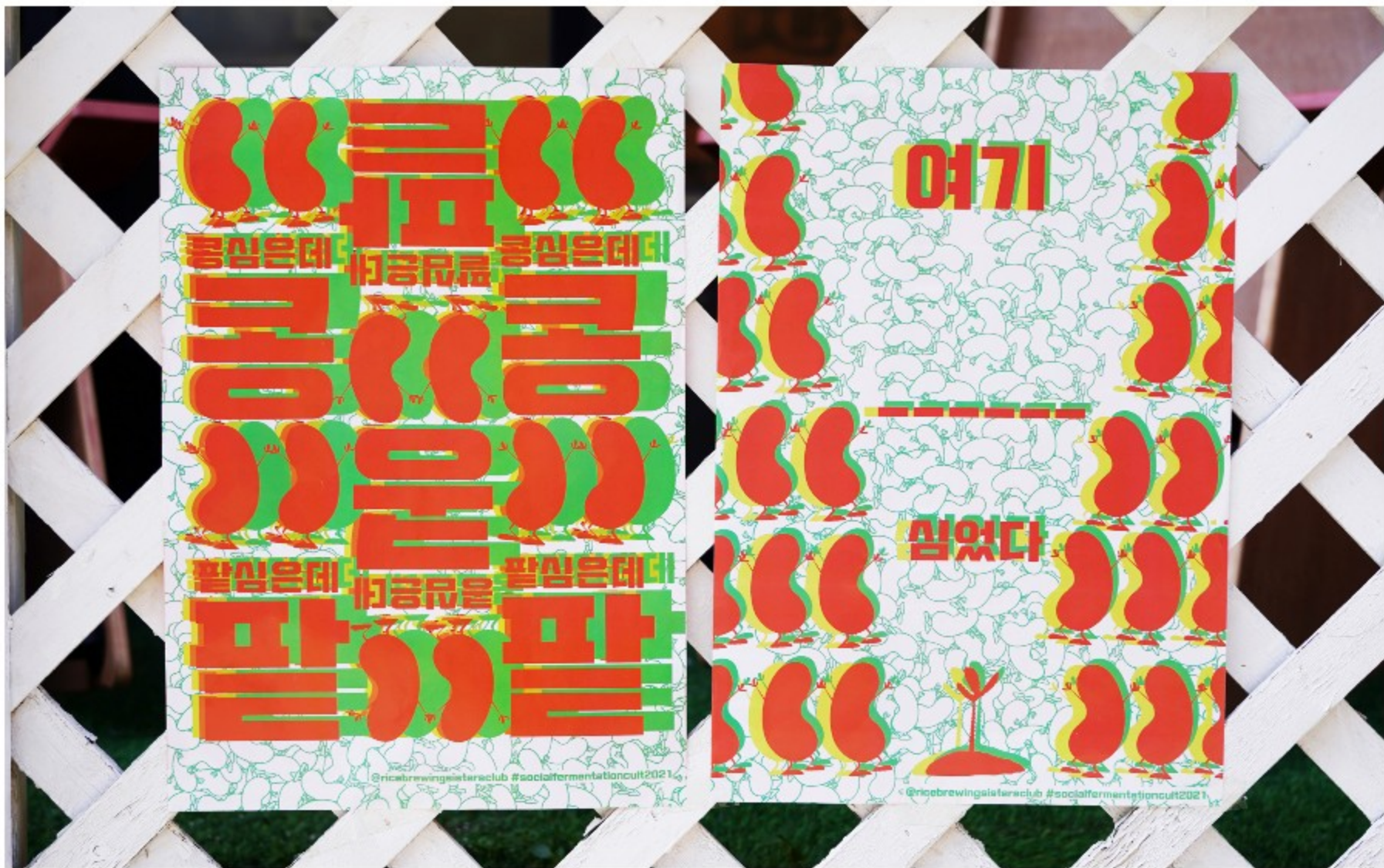
교동 거리에서 발견되는 여러 맥락을 매우 짧은 준비 기간 안에 새로운 작업을 하기에는 촉박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간 RBSC가 작업해온 <발효컬트>, <홍홍랜드> 등 작업의 일환으로 축적해온 땅을 점유하는 행위에서 땅에 깃드는 영혼, 기억, 흔적에 대한 믿음체계의 사회적 발효를 실행하는 밭/포스터의 형태로 교동 일대의 틈에 잠입했다. 수원 교동일대의 예술중/ 도시중이되어 RBSC가 만들어온 컬트를 평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거리를 택했다.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왔던 분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이 전단지를 받았냐며 행사 당일 고사했듯이 당연시 여겼던 '접촉'은 다시 불러드려야 할 감각이다. 바이러스가 창칼한 시대에 그 누가 죽음을 무릅쓰고 전단지를 받을 것인가? 흠...실상은 바이러스의 공포보다는 별량한 거리에 눈에 띄는 복장을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의식으로 인해 거리는 일시적으로 활기가 생겼다. 평민들에게 말을 걸고, 듣고 또한 그들은 전단지를 잘 받아 주었다. 문화도시의 문화를 치용하는 목적이 그런 활기와 재생이려면 몇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는 꽤 성공적이었다. 또한 컬트의 목적이 스토리텔링 호기심 안에 묻혀가 전파하겠다는 속셈이려면 전단지를 나눠주는 동안 미래의 신도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라이스브루잉시스터즈클럽 (손혜민, 신현진, 유소윤)

장소: 교동 일대

사회적 발효컬트





포스터 제작 과정

The Only Culture You Have i s Bacteria: 라이프 브루잉 시스템즈 클럽의 2019년작 <발효컬트>에서 사용했던 문구로, 박테리아의 문화가 유일한 문화라는 메시지로 팔방을 만들어 아날로그, 디지털 세계에 배포했다. 이 문구를 <사회적발효컬트>에서 부활시켰다.

찐씨앗촉촉흙흙흙스피릿: RBSC의 2020년작 <흙흙랜드>에서 만들어진 문구로, 토종씨앗, 흙을 오감과 공감각, 육감으로 감각하는 방법, 이러한 미시적 경험들이 모여 끈끈한 유대와 연대의 장을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문구를 만들었다. 추운 감기도, 암호 감기도 한 문구가 수월 교통 일대에 퍼지는 것을 상상하며 포스터를 제작하였다.

꼭꼭씹어빨기: RBSC의 2020년작 <꼭꼭씹어빨기>와 <지프 나리이드>에서 만들어진 문구로, 밥알을 입에 넣고 씹고 빨은 후 침을 매개로 밥알을 작동시키는 '미인주'의 방법처럼, 특정한 물질이 변용, 변화, 변주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문구의 형태로 담아보았다.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 여기 ____ 심 었다: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은 RBSC의 2021년작 <순환벨트>의 일부가 되었던 문구로, RBSC가 작업 과정 중 만났던 황성 금수시 무관 스님께서 '순환'에 대해 하신 말씀 중 일부이다. 문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도모하고자하는, 일어나는 여러 예술적 실천, 문화적 실천의 순환에 대해서 포스터의 형태로 도시중에 예술중인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당위의 행인들에게 묻는다.

같이 모여 모여같이/만지마 하지만 민아: 2019년작 Jangan Makgeolli막걸리 control neo너, kaujibae지배 Tapai에서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의 이타 이모로부터, 2020년작 <흙흙랜드>, 그리고 2021년작 <순환벨트>까지 작업에 축적해온 여러 문구의 혼합체로, 유기적 생태계/협업/관계망 체제, 민음체제에 대한 질문을 문구의 형태로 담았다.





이끼바위쿠르르 & 서상욱
 우리는 수원과 인연이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수원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한다. 이것은 수원의 정보라기보다 이 도시의 정서에 가깝다. 광고산 밧줄, 평등의 비행기 소음과 쓸쓸하고 가난했던 밤, 미개동 터널의 무서움 등은 우리에게 수원의 어느 한구석을 상상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음악가 서상욱과 함께 노래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 노래는 곧 수원의 번두리에서 들을 수 있다.

2021. 노래, 이끼바위쿠르르 & 서상욱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수원,광고산)
 어렸을 때 종종 광고산에 올랐네
 기죽들과 함께 광고산에 올랐네
 광고산에 올라 올라가면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가면
 정상으로 가는 그 마지막 단계
 3미터에서 5미터에 달하는 기괴한 구간

우우우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
 우우우

오랫만에 한번 광고산에 올랐네
 기죽들과 함께 기던길로 가봤네
 광고산에 올라 올라가면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가면
 3미터에서 5미터에 달하는 기괴한 구간

우우우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
 우우우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

*이끼바위쿠르르는 시각 연구 밴드이다. 고결, 김중원, 조지은으로 구성된 현재 회원들은 식물과 인류, 문명과 자연현상, 식민주의와 생태의 다면적인 연결고리를 탐구한다.
 *서상욱은 고양시의 한적한 마을에서 아내와 강아지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만주에서 십 대를 보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록밴드 제8극장을 결성했다. 제8극장은 75곡을 발표했고, 5집 발매를 앞두고 있다.

#우만동에는 어린이 놀이터 3군데가 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모여 딱지 걸투를 한다. 그곳에서는 거의 시활을 가는 딱지 걸투를 볼 수 있는데 가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때 아이들은 악다구니를 쓰고 서로 우기곤 한다. 험악한 말들이 오가는 시활을 건 딱지 걸투.

#수원에 있는 본가로 잠시 내려가면, 나는 어린 시절 같이 놀던 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차를 빌려 광고로 넘어간다. 우리가 도착하는 곳은 넓고 화려한 카페다. 중학생 때는 친구들과 용돈을 모아 영동, 아주대 혹은 수원역에 있는 고깃집에 가는 것이 일종의 놀이었다. 썰매 같은 산 고기뷔페였는데 때로는 이웃집 동당인가 하는 담집에서 제일 싼 통집튀김을 많이 먹었다. 지금은 만나면 수원의 강남 격인 광고로 간다. 친구들과 드라이브를 마치고 수원으로 돌아왔을 때 미주한 남문은 아직 제한이 있는지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 풍경이 이어져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 담임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였다.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분이셨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수원에 놀러 가자고 하였다. 화성 촌에 살던 우리는 수원이 어디 먼 신세계 같이 느껴졌다. 그 선생님을 따라 버스를 타고

이끼바위쿠르르
(조지은, 고결, 김중원)

장소: 소유집
(행궁로 71 B1)

건강하고 멋진 몸은 '소유' 할 수 있는
 수원의 남문 No.1 헬스클럽

밧줄을 잡고 정상으로

(수원, 광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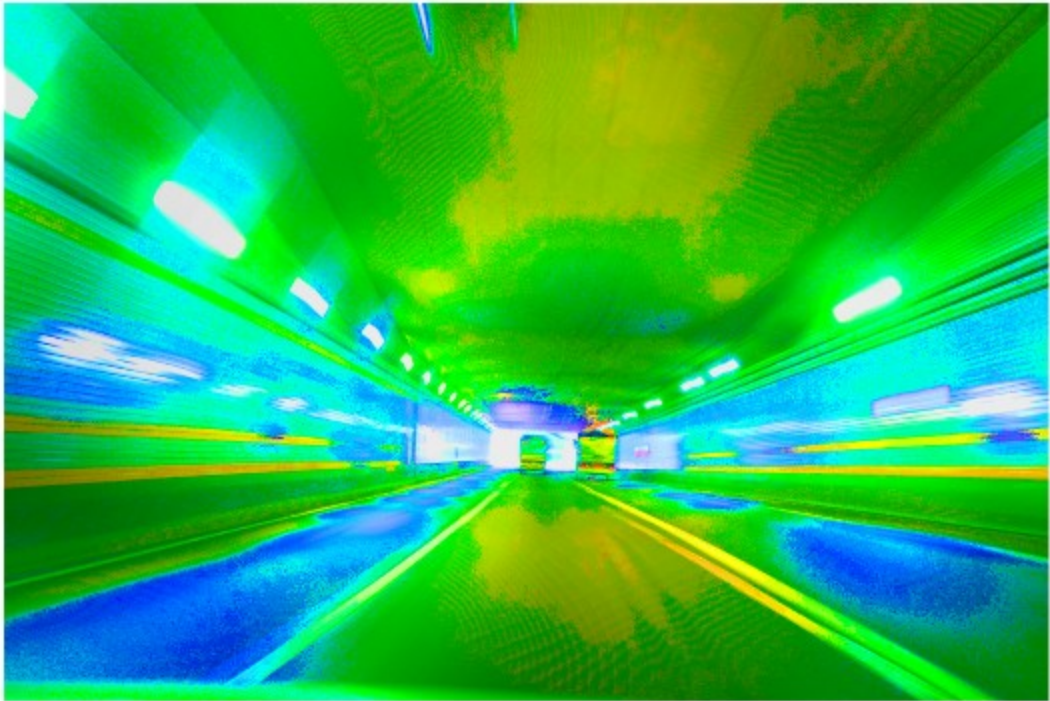
수원이란 곳을 처음 갔다. 선생님과 함께 물이 무성했던 수원 화산의 성곽 위를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날 수원에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짜장면을 사주셨다.

나는 친구들과 기계동 터널을 종종 탐험했다. 중학교 때였는데 그 이전엔 무서워서 그 터널에 갈 수가 없었다. 새카만 터널 안에는 아마도 1m씩 떨어져 있는 빨간 불빛만 보였다. 가끔 기위 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들어가는 놀이도 한다. 어느 날은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빨간 불빛만 반짝이는 검은 곳으로 들어갔다. 함께 있어도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검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서워서 황을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많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돌아갈 수 없어서, 우리는 끝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다. 그 곳은 현재 마젤란21 아파트와 대선초등학교 사이이며 지금은 '망포 지하차도'로 수원의 기차지리에 있다.

평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비행기가 낮게 날아 비행기 소음이 동네를 휩쓸고 지나가던 곳. 대학시절 썸 자취방을 구하느라 나는 그곳에서 이십 대의 일부를 보냈었다. 옆집에는 여대생 둘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만났던 것인지 가끔 술을 마시자고 나를 부르곤 했다. 가끔 술을 마셨지만, 그 당시 혼자 있고 싶었던 마음일까, 그들은 늘 즐겁고 발랄했지만 나는 조금 귀찮았다. 늦은 밤에 주인이 대문을 걸어 잠그면 그들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나의 작은 방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면 나는 따뜻한 이불속을 나와 차가운 겨울 문을 열어주곤 하였다. 지금 평동은 아파트 촌이 되었다. 비행기 소음은 조금 작아졌으려나, 뜸해졌으려나.

가족들과 종종 광고산에 올랐다. 광고산에는 마지막에 밧줄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야 하는 구간이 있다. 그 밧줄 앞에는 늘 멈춰 있는 초등학생들이 있다. 두려움 때문에 멈춰서는 순간. 지금 돌이켜보면 겨우 3-5m를 올라가는 구간이었는데, 그 밧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뭔가 대단한 듯 생각이 들고 다이내믹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밧줄 구간은 어릴 적의 나에게도 광고산 등반에서 제일 큰 사건 같은 곳이었다. 한 번은 아래부터 정상까지 전역 질주를 했었는데(초등학생의 체력으로) 30분 정도 걸렸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30분 만에 못 갈 것 같다.

나의 부모님은 광장에 나가 팔뚝을 돌려 외치는 사람들이었다. 집회는 수원역 AK백화점 앞이나 영동구청 광장에서 주로 열렸다. 집회를 마치고 주로 어른들은 남문 근처에 있는 술집에 갔고, 그때는 따라가서 나의 식사는 어른들의 만수였다. 아직도 남아있는 술집은 '크로키', '유동 김밥이', '예촌'이고 나는 이제 수원에 갈 일이 생기면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신다. 특히 '크로키'의 코다리(정확한 메뉴 이름은 '그냥 코다리', 코다리 찜에 후추로 간을 한 숙주 볶음, 마요네즈, 간장, 대파, 청양고추가 같이 나옴.)는 보통의 빨간색 코다리 안주와 달리 아무것도 발려지지 않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건너 들기로 '크로키'의 사장님은 지동 '시인과 농부'라는 찻집의 주인이라고 한다. (시농만든 사람이 크로키 사장님이라는데, 시농 사장님은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음...) 그곳에는 꼭 예술가 같은 어른들이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다.



'살갓과 살갓'은 거리를 창의적으로 전유하는 생명들의 아카이빙이자 존재들 사이의 부대낌을 가시화한 작업으로, 전시는 교동의 한 고깃집에서 이루어진다. 작가는 보도블럭 틈새를 뚫고 솟아나는 식물들, 집과 집 사이에 서식하는 고양이, 하수구를 넘나드는 곤충 등, 수원 교동의 이곳저곳에서 도시의 살갓을 창의적으로 전유하는 생명들의 모습을 아카이브하고 이를 촬영한 이미지의 프린트물을 음식점의 메뉴판, 계산대, 광고포스터 옆 등에 설치한다. 살갓, 또는 막으로 경계지어 서로를 구분하는 각기 다른 존재들은 매 순간 부대끼며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거리에서 발견하는 틈새의 생명들은 그 부대낌이 드러나는 모양이자 순간이다. 작가는 그 틈새의 생명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장소인 음식점의 틈새들에 끼워넣어 드러내 보인다.

살갓과 살갓 - 진인이 나래

생명이라 불리는 모든 유기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생물체는 피부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세포나 생물체, 즉 생명은 결국 다른 어떤 존재를 자신의 '둘러싸여져 외부와 구별된' 몸 안으로 틀어박고 흡수하고 그것을 변형시켜 자신의 몸으로 만들어 생명을 유지한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지는 각기 다른 존재들은 결국 서로 부대끼며 삶을 살아가며, 도시의 다양한 존재들이 다른 존재를 비집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호명하는 순간은 그 부대낌이 드러나는 모양이자 순간이다. 그 가운데 친족은 있을지언정, 모든 생명이 모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 윤리도 없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물질이 화학적 배열을 달리 하여 어떤 다른 물질로 변형되는 것이 생명이라 한다면, 우리가 생물이라 인식하는 것과 무생물이라 인식하는 것 사이,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를 구분할 명확한 근거도 없는 지도 모른다.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 서로가 서로로 전환되는 관계, 그런 경계에서의 치열한 싸움 또는 공생을 거리의 표면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인간들이 지구의 표면을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덮어버린 그런 도시에 적응한, 또는 그 거리-도시표면-살갓을 비집고 나오는 생명들을 아카이브하고, 인간됨을 다해 살아가는 그들을 거리 곳곳에 가시화하면 어떨까. 그런데 마침 전시 장소로 제안된 상점들 중 '마포생고기' 음식점이 있었고 우리의 섭식 장소인 음식점의 메뉴판에 교동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거리를 걷다보면 온갖 벌레, 길고양이, 작은 동물들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기대하며 교동의 행정적 경계를 루트로 삼아 걸어 보았다. 그 시간동안 누군가에게는 내기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아 보였을런지도 모른다. 그런데 추운 늦가을이어서 그랬을까, 막상 길을 나서보니 거리 표면에서 고양이나 벌레는 만나보지 못했고 눈에 띄는 것은 하수구에서, 보도블럭 사이에서, 이보다도 더 미세한 틈으로부터 기어코 자라난 잡초들이었다.

나는 이내 그렇게 도시 표면을 비집고 나오는 이 풀들에 주목하여 거리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렇게나 다양한 식물들이 도시에 있다는 것을 몰랐던 자신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이지 너무나 다양한 종류의 풀들이 교동의 경계에 있었다. 그리고 이들 각각에 대해 더 알게 된 이상, 이들은 더 이상 잡초가 아니었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랄까? 하지만 풀이기에 여전히 윤리적 딜레마를 겪지 않으며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까움은 무엇인지, 친족을 친족이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었다.

진인이 나래

장소: 마포생고기 (향교로 132-1)

맛있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식당

살갓과 살갓



외래종이라 해야 할지 토종이라 해야 할지 애매한, 귀화종이라는 딱지가 붙은 다양한 풀들, 풀인지 나무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어린 참오동나무 등, 수십가지, 어쩌면 수백가지, 또는 그 이상의 풀들이 교동의 살갓을 뚫고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그 중에서 그나마 이미지 검색을 통해 어떤 종류인지 찾을 수 있었던, 즉 우리들에게 의해 이름이 붙여졌고 흔하게 찾기에 검색이 잘 되는 그런 풀들만을 이미지와 문자 설명을 포함하여 기록할 수 있었고 그 중 10개를 골라 '마포생고기'집에 전시한 것이 '살갓과 살갓'이다.

메뉴판에 이 생명들을 소개할 생각이었지만 이후 마포생고기에는 메뉴판이 따로 없고 테이블에 뭇 풀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통에 설치를 했고, 이 점은 아쉬움으로 남기도 했다. 그나마 피라시 명함을 만들어 이곳저곳에 찰초처럼 뿌려놓거나 대리운전 명함에 끼워 넣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음식들이 나열된 메뉴판 사이나 테이블 위에 직접 놓을 수 없었던 점은 여전히 아쉽다. 봄이었다면 오프닝에 찰초나물을 대접했어도 좋았을텐데, 이에 대한 아쉬움 역시 남기며, 교동과의 뽐은 호흡을 마치게 되었다. 아쉽게 전시가 끝나가는 지금, 더 지주, 더 많이, 더 깊이 호흡을 해본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궁금해지기도 한다.



2



3

1. 진 인이 나라, 마포생고기 연통을 위한 <살갓과 살갓> 개망초, 앞면, 2021
2. 도시의 살갓
3. 교동의 살갓: 교동의 행정적 경계, 내이비 지도 캡처화면
4. 진 인이 나라, 마포생고기 연통을 위한 <살갓과 살갓> 개망초, 뒷면, 2021
5. 진 인이 나라, <살갓과 살갓> 오동나무, 피라시 명함, 앞면, 2021
6. 진 인이 나라, <살갓과 살갓> 오동나무, 피라시 명함, 뒷면, 2021
- 7-9. 진 인이 나라, <살갓과 살갓>, 마포생고기 설치장면, 2021



5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위도 37.2728 경도 127.0159

교동의 경계 위도 37.2728, 경도 127.0159 지점에서 자라고 있다. 국악기를 제작하거나 관을 만드는 데에 많이 쓰이는 오동나무는 공터, 건물의 틈새 등에서도 쉽게 자란다.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고 생명력이 강해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무서운 속도로 자라는 오동나무는 아스팔트로 덮인 도시의 천적이 되기도 한다.

<살갓과 살갓>, 진 인이 나라

6



1

개망초

Erigeron annuus
위도 37.274 경도 127.0156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밭이나 들, 길가에서 잘 자란다. 한방에서는 감기, 위염, 설사 등이 있을 때 개망초를 사용하며, 어린 잎은 식용한다. 꽃은 황색으로, 차로 우려 먹는다.

4



7-9

오동나무 Paulownia coreana Uyeki

위도 37.2728 경도 127.0159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국악기를 제작하거나 관을 만드는 데에 많이 쓰이는 오동나무는 궁터, 건물의 등재 등에서도 쉽게 자란다.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고 놀라운 생명력을 자랑한다.

큰방가지뚥 Sonchus asper

위도 37.2739 경도 127.0156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유럽에서 들어온 귀화식물로 한국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을 좋아하고 섬씨 -7도까지는 견딘다. 전초는 항종양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열을 내리게 한다.

금잔화 Tagetes erecta

위도 37.2741 경도 127.0157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약 500년 전 스페인 장교가 멕시코에서 유럽으로 들어온 이후로 널리 퍼졌다고 한다. 메리골드라고도 부른다. 독특한 향이 해충을 퇴치하고 꽃은 차로 음용한다.

강아지풀 Setaria viridis

위도 37.2709 경도 127.0141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전국 각지의 들, 밭, 길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곡물인 조의 원종으로, 서로 교배가 가능하다. 식용이 가능하며 조와 함께 밥을 짓거나 죽을 끓일 때 넣기도 한다.

제비꽃 Viola mandshurica

위도 37.2717 경도 127.0126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황무지나 들판, 언덕, 숲 등에서 발견된다. 어린 순은 나물로 먹고, 해독 및 소염 작용이 있어 약재로도 쓰인다.

개망초 Erigeron annuus

위도 37.274, 경도 127.0156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밭이나 들, 길가에서 잘 자란다. 한 방에서는 감기, 위염, 설사 등이 있을 때 개망초를 사용하며, 어린 잎은 식용한다. 꽃은 황색으로, 차로 우려 먹는다.

미국자리공 Phytolacca americana

위도 37.2753 경도 127.0154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다양한 환경에서 야생으로 자란다. 섬씨 -21도까지 내한성을 가지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병충해 및 질병에 강하며 독성이 있어 식용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바위취 Saxifraga stolonifera

위도 37.2752 경도 127.0153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습한 곳을 좋아해 돌틈같은 곳에서 무리지어 난다. 섬씨 -18도까지 월동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한겨울에도 바위틈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이초'라 하며, 어린 잎은 식용한다.

파리풀 Phryma leptostachya

위도 37.2707 경도 127.0137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여러해살이 풀로 약간 그늘진 곳에 자생한다. 뿌리에는 살충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파리가 죽는다. 말린 뿌리를 달아서 복용하면 염증에 좋다.

깨풀 Acalypha Virginia

위도 37.2752 경도 127.0153

교동의 경계에서 자라고 있다. 길가에서 볼 수 있는 한해살이풀로, 새들이 그 씨앗을 먹는다. 건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피를 멎게 하고 염증에 좋아 잎을 달인 물을 먹기도 한다.





서현덕

장소 : 노스목위닷파
(매산로 139-5)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매장에서 굽는 디저트를 선보이는 스페셜티 카페

(Sanctuary)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전달하며 도시충:동 예술충:동 프로젝트의 흥미로운 전달자, 매개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역 노인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제작하고 관객들에게 지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도록 설치한다. 작업은 나와 다른 세대, 정체성, 신념을 가진 타인의 이야기에 시선을 맞춰 다가서는 경험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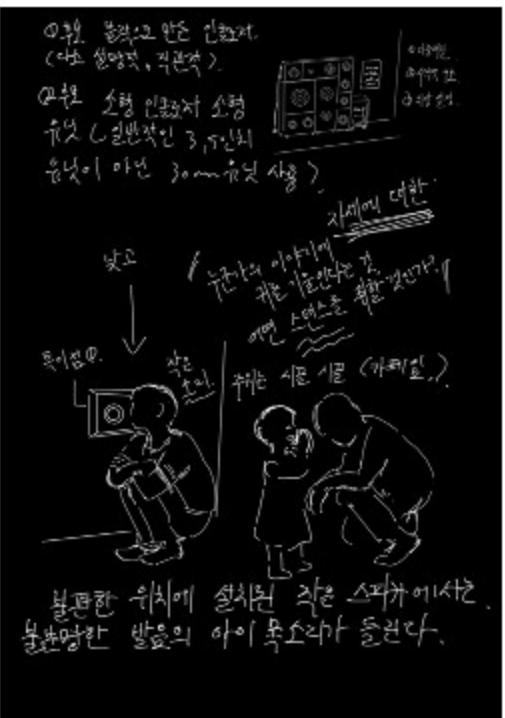
1. 그런 애기들어서 뭐하나 뭘자료? 내가 육이오때 매산 국민학교 다녔어 거기 덩길때거든? 여자 동무라 그러지 선전원이야 그 북한 사람, 북한 서 내려온 선전원이라구 있어 북한에 온거 보담두.. 거 뭐야 암든 김일성 장군 노래를 갈겨줬어 노래가 아주 기운나 아리랑 이런것처럼 마이이 하는게 아니구 흥미가 난다구 그래서 이북놈들이 배고파도 싸우는거야

2. 이북놈들은 보급자체가 필요없어 미국놈들은 보급차를 많이 한 댓대씩 탕겨, 개네들은 여서처럼 날짜만 지나면 버려 아주 지나가면 장동이 그냥 수두룩해 걸만 구라 까먹으면 속은 아주 멀정해 암든 요시애들은 모르지 암것도 모르지 배불러서 우리때 사람들은 그때 한참 배고플때라 한참 잘먹지 꿀꾸리 죽 이라구 그런게 다 미국놈들이 고기먹구 남은거 돼지준다구 뭐 쓰레기통에 버린거 이런거 그런거 우리가 가따가 배추 이런거 넣이가지구 먹었지 그러구 살았어 육이오때는 요시애들은 모르지

3. 육이오때 인민군들이 주력부대가 일루들어왔어 서울로 해서 오산으로 해서 암든 그담부대가 경기도 광주, 이천으로 해서 어디야.. 백암으로 해서 드루왔어 삼치부대가 동해안으로 해서 드루와써 그게 어디서 만나게 되어있냐면 대구에서 만나가지구 뭐 걸러가지구 꼼짝도 못하구 의용군이 한 십만명 죽었어 의용군이 뭐주 알아? 고등학생들 학도병들이여 폭동이 일어났으니까 저거해야겠다고 모인거여 학교로 오라그래가지구 군복입혀서 내려왔어

3-2. 다 물어봐 지가 어디루 가는지도 몰러 동무 여기가 어디여? 여는 수원이여 하니까 수원이 어디네 예이 공부 개떡같이 했나부다 했어 내가 나는 국민학생이니까 암든 의용병은 얼마나 배고픈데 개네들은 완전 여즘 요즘으로 따지면 그 학생들은 배가 풀러가지구 저거하게 돼있어 물어 먹는거 하이든 토끼 새끼든 염소새끼든 먹어서 죽지 않는다 싶으면 다 삶아 먹드라구

4. 하이든 개네가 왜 싸우냐 군기가 좋아 군기가 멋있어 그러니까 싸우는거여 백두산 즐기 즐기 김일성 장군 네키 나오는 거 그거 따라 부르다 내가 엄청 맞았어 ㅎㅎ 왜 구런거만 배우는 나구 나중에 자꾸보니까 팔공산에 십만명이 모였는데 학도병들이 모였거든 근데 개네는 도망을 안가 끈으로 묶어가지구 그래야해 아주 암든 그때 간첩이 신고를 해서 폭격을 했어 암든 엄청 많이 죽었어 그래서 낙동강 상류를 해가지구 그냥 아주 피의 바다였어 냇가 물이 그냥 빗물이여 그래서 학도병들이 고등학생이거당 지금은 니덜 모르지 암것도 어릴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전부 모자쓰구 그렇게 한거여 나라 지키려구 니덜은 모르지 여즘 애들은 딱공충이라구 인민군 장충있어 의용군은 그거가지구 싸웠어 인민군은 떠발충, 한발 이렇쿠 쏘면 딱공충이 나가 장충이야 장충 일본놈들 총 그거 들구 떠발충이랑 싸웠어 아주 장렬하게 떠발충이나 그런건 러시아에서 명그는거여 암든 아주 장렬하게 그런거여 여즘 애들은 못허지





손한샘

장소 : 팔달문관광안내소
앞 공터(정조로777번길 16)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생각이나 마음도 여유 없이 살아가
듯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 공간도 빈틈이 없이 구조화된다.
생각이나 마음의 여유를 위해 잠시라도 도시를 벗어나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도시라는 공간은 오히려 재개발로 구도심이
가지고 있던 빈틈마저 없어지고 공원이나 광장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사람들의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부여 받아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
할 수도 없다. 물리적으로는 잘 조성되어 있고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공간에서 무언가를 상상하고 시도할 수 없는 심리적
으로는 닫힌 수동적인 공간이 된다.

공터는 비어 있고 정리되지 않으며 불안해 보여도 많은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다. 놀이터가 되고 경기장이 되고 텃밭도 되고
주민들의 모임의 장소이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간
이기도 하다.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변신할 수도 있다.

공터를 공원이자 놀이터로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해서 무언
가로 채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용해 보면 좋겠다. 주민들의 자발성
을 믿고 한 3년만 누구나 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놓아
두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본다면 어떠한 공공의 공간보다
활력있는 곳이 될거라 생각한다.

도시곳곳의 빈틈에서 지나나는 잠초처럼 수유티라는 도시
에 있는 비어 있거나 잘 사용되지 않는 공간의 빈틈을 찾아내서
이시비와 찬을 이용해 일시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이고
이용할 수 있게 해 본다. 그 구조물은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놀이터도 되고 쉼터도 되고 공연장이 될 수도 있겠다. 공원, 광장
같은 단어로 단정 지어진 구조화된 공간을 변화시켜 새롭게 이용
해 보고 공간을 상상하는 다양한 방식과 가능성 보여주고자 한다.

공터를 찾아서

교통 답사할 때 공터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뭔가 심고 심은
본능이 생기는데 가을이라 뭘 심기에는 늦고 겨울을 날 수 있는
보리를 심으면 적합할 것 같았다 나름 서정적이며 정서적이고
그 공간에 딱 맞는 작업이라 생각했는데 늘 그런 생각이나 상
상은 즐겁고 완벽해 보이나 실현하기 위해 현실과 대면하면 어디
생각대로 되는 게 있던가. 교통의 공터도 공유지라 사용 허가를
받아야 돼서 알아보니

땅 하나에 관리부서 둘인데다가 땅의 절반을 관리하는 부서는
커뮤니티를 위한 건물 공사 예정이라 허가 안 된다(2주 만
쓰게 해달라고 해도 언제 공사 시작할지 모른다고 안 된다는데
관공서 일이 그렇게 일정 없이 진행되지는 않을 건데 작업 철수하고
이 글 쓰는 지금까지도 공사 안하고 있는데 2주 만 사용하면 되는
건데) 해서 다른 절반을 사용하기 위해 다른 부서 담당자를 만났
으나 신청은 할 수 있어도 허가는 장담 못한다고 하고 허가가
어려운 이유를 친절하게(정말 친절하심) 법규를 보여주면서 왜
안 되는지를 철벽방어를 하는 바람에 설득되어 포기(작업 마음이
씩 시라칭)하고 다른 대안지를 찾아보았으나 도시에서 빈터를
찾느니 하늘에서 별을 따고 말지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 (우주
에서 작업해야 되나)

보리는 물 건너가면서 공터가 아니라도 뭐라도 설치할 공간
찾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 교통과 행궁 쪽에
공간이 있으나 마침 여러 행사들이 겹치는 시기와 공간 사용허가
에 예를 먹다가 여러 부서가 관여는 되고 있으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계에 있는 자투리땅을 발견하고 사용하기로 했고 막판
면지가 있어 민원 들어오면 바로 철수하는 조건(이건 나와버리

견제)으로 작업을 하기로 했다. 설치 당일 갔는데 아침부터 안락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내가 설치하려고 한 자리에 다른 행사를 위해 설치했던 작업이(전날 치우기로 했는데) 그대로 있는데 이걸 뒤흔치는 상황인가 싶다(담당 부서 간 소통부재)가 수 밀내로 치운다고 해서 원하는 자리도 아닌 옆자리에 쫓겨서(이전 작업은 철수 못한다고 하지 전시 오픈은 내일 모레지) 설치를 완료했다. 난 그냥 2주만 작업설치하고 싶은 것 뿐인데. 전생애 죄를 짓해야 되나

2008년 서울시갤러리 프로젝트로 겸손한 미술관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유지를 찾아 해매면서 관공서에 허가를 받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고스란히 떠오르면서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 이상으로 흘렀는데 어느 순간 현재가 2008년처럼 느껴지는 백 투 더 퓨처 같더라. 그때는 심심찮게 열 받았고 애를 많이 쓴 기억이 있으나 이번은 이런 과정에 화도 안내고 흥미로웠다(화내면 몸이 해로 우니) 공간에 설치된 작업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상황들이 더 작업 같다(그래서 삼이 예술인가). 내 작업이 옛날보다 관계나 소통에 더 가까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심년 넘게 뛰어도 해박야 뭐도 안 된다는 걸 체화한 거지)

이번 작업은 성황당을 재해석해서 설치했다. 현장에 적당한 나무도 없고 시야를 가린다는(있어봐야 2주인데) 민원도 생각엔 언제든지 쉽게 이동가능한 아시바를 사용했고 너무 티나게 오방원색천 사용했다가 티종교 민원 들어 올까봐 색깔도 톤 다운했다(동숙해진 검열의식).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하냐고 물으면 놀이터 만든다고 하고(그래도 성황당으로 보고 기분이 안 좋다는 분들 몇 분 계시더라. 신기가 있으신 듯)

아시바의 구조는 팔괘의 원리에 맞추어 동서남북의 방향을 잡고 건국진간감리태손의 자리에도 신경을 쓰면서 설치했다. 팔괘의 무한함으로 인해 더 이상 자세한 설명(신비주의 콘셉트가 아니라 글로 물기에는 내 지혜와 문장력이 딸리는 관계로)은 생략한다. 성황당의 역할과 관여된 잡신과 영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오프더 레코드로 지면 말고 개별적으로만 말 해 줄 수 있다(예술은 사기.....).

옛날에는 시골마을 어귀에 마을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성황당이나 장승이 있었더라. 세마을 운동으로 작살이 나기 전까지는 미신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내 관점으로 보면 공공예술의 원형으로 보인다. 성황당의 역할은 마을 보호에 있기도 하지만 약속의 장소이고 기원의 장소이며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상징일 수도 있다고 본다.

지역의 전설과 신화가 사라지면 상상력이 없어지고 삶이 건조하게 된다. 터를 지키는 신들이 사라지면 지역도 분열되고 쇠락한다. 쇠락하는 교동에 힘을 불어 넣기 위해 다시 출어진 신들과 사라진 전설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같이 모이고 이야기하고 함께 어울리고 볼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신화가 사라지고 지혜 없이 지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는 필요한 예술은 주술이 아닐까 아니 예술이 주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의 위안이 되고 생활의 한 부분처럼 되던 주술처럼 예술도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겨줘야 되지 않을까. (어설픈게 드는 생각이라 다 까로 끝나네.)



일상적인 공간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동을 '협동(사회)'과 '고효율(생산성)'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협동운동>은 수원시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펼쳐진 운동 시연이다. 도시에서의 운동은 대체로 혼자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1인 운동이 4인 모두에게 운동성이 되는 <협동운동> 시연은 특히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에게 좋은 운동법이 될 것이다.

수원이라는 도시 지체를 리서치 하는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작업을 시작해야 좋을지 막역한 상태였다.

계약차 수원을 방문했을 때 전시가 진행 될 항공동 일대를 둘러보게 되었다. 항공동의 많은 점포들은 수원문화재단, 지역 예술과들 협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인 곳이 많았고 그 중 이 곳 헬스장도 있었다.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전시가 진행되는 경우는 종종 보았지만 헬스장에서는 흔치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공간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어떻게든 이 장소와 어울리는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 떠오른 생각은 '게으른 사람을 위한 운동법'이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시대의 아이러니함을 드러내고 싶었다.

운동법을 만들던 중 너무 복잡해지는 생각 때문에 작품이 억지로 끼워맞춰지는 것 같아서 우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혼술, 혼밥 문화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에서 강제적 사회 분위기는 오히려 혼술, 혼밥에 반발성을 갖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뭐라도 같이 하고 싶은 마음 아닐까. <협동운동>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혼자 하는 활동을 오히려 함께 하는 것으로 바꿔보는 작품이다. 특히 헬스장에서 운동은 사람이 기구와 기구를 일대일로 이용해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다. 이 운동을 오히려 함께하는 운동으로 바꾸어 보기로 했다. 혼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고자 했다.

가능한 장소와 작품의 설치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연출했다. 촬영한 사진을 액자에 끼워 벽에 거는 방식 보다 헬스장에 어울리는 방법을 찾았고, 현수막 실사출력을 이용해 걸어두는 방법을 선택했다.

영상은 러닝머신의 모니터를 이용해 실제 기구를 사용하면 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설치했다. 총 4대의 러닝머신에 영상이 보여지도록 했다. 러닝머신에 제작한 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 역시 운동하는 사람이나 관객에게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 같았다.

업쓰양

장소: 소유집 (항공로 71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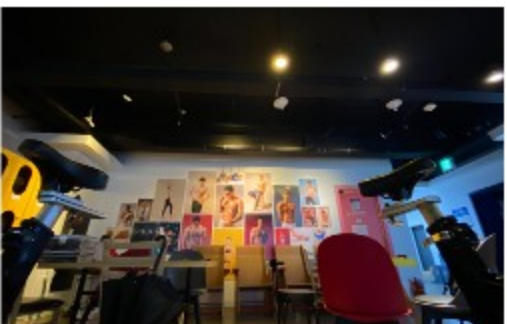
건강하고 멋진공간을 '소유' 할 수 있는
수원 남문의 No.1 헬스클럽



협동운동



- 1. 현장답사, 2021.10.14
- 2. 리허설, 2021. 10.16
- 3. 촬영 2021.10.17



1-3

___ 찾습니다는 우리의 기억과 상상의 현존 속에서 부재를 시각화하는 준박과 최라운의 협업 프로젝트이다.

도시충:동 예술충:동 프로젝트의 장소 특정성은 토론토에 사는 준과 수원에 사는 라운 사이에 서로 공감하고 관심있는 텔레마를 다루었다. 이 텔레마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는 우리 상황에 맞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라운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아주 오래 전부터 서 있어온 느티나무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온라인 자료에 의존하던 준은 구시가지인 향교인쇄골목을 통해 수원의 역사를 접했다. 이 곳 인쇄소들은 한때 도시의 경제 활력과 역사의 핵심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느티나무가 서 있던 자리. 인쇄소가 있었던 자리. 그 자리들은 다른 것들로 바뀌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들은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들이 우리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이유는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사라져서인가? 실재하지 않기에 무용하여 버려진 것인가? 그렇다면 여전히 잔존하는 피편들과 사람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만 잊혀진 것'은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___ 찾습니다 (Lost)는 잃어버린 것을 (나무, 인쇄소, 어머니, 고양이, 집 등) 찾는 과정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의 이야기를 전하는 프로젝트다. 개인적인 경험, 아카이브 연구, 도시의 역사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고 만들어질 것이다.

___ 찾습니다 is a collaborative project between June Pak and Choe Rayun, in which we visualize the absence within the presence of our memory and imagination.

도시충:동 예술충:동 project's site-specificity triggered an interesting dilemma for us, as June lives in Toronto, Canada and Rayun in Suwon, the location of this public art project. From this dilemma, the project took off in a way that was natural for our circumstances. Rayun brought in local history, perhaps a less known but personal encounter, of an old zelkova tree's sudden death in her suburban neighbourhood of Suwon. While relying on only online sources, June came across the history of Suwon's Print House District (향교인쇄골목) in the older part of the city. These print houses once were a core part of the city's economic vibrancy and history, but are slowly disappearing.

The zelkova tree and the print houses are now replaced by something else, something new. These now invisible things are gradually disappearing from our memories. Are they fading from our memory because they are no longer visible?; or because our interests have drifted away from them?; or because they are no longer useful to us? But what about the fragments that still exist within us, what remains in our minds?

Things that are invisible yet present and things that are present yet forgotten can be found easily if we pay little attention to our surroundings. With ___ 찾습니다 (Lost) project, we want to tell stories of the invisible by highlighting the effort of finding what is missing: the tree, print houses, a mother, a cat, home, etc. by adding personal experience, archival research, and history.

준박&최라운

장소 : 아이엠밀크 (행궁로 92 남문타워 1층)

원유기공의 기술과 품질관리를 시작으로 그릭요거트, 마시는 요거트, 후레쉬 치즈요을 생산 유통하며, 매장을 통하여 how to cook & use를 선보이는 우유카페

찾습니다.

<___ 찾습니다/ LOST ___> 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만 잊혀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업은 조금 다른 두 시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수원에 사는 라운은 집 근처 450년 수령의 건강했던 느티나무가 갑작스럽게 고사한 것을 보고, 그 나무아래에서 아이들과 놀았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고, 캐나다에 거주하는 준은 온라인 자료를 통해 사람의 흔적이 남은 수원의 역사를 찾고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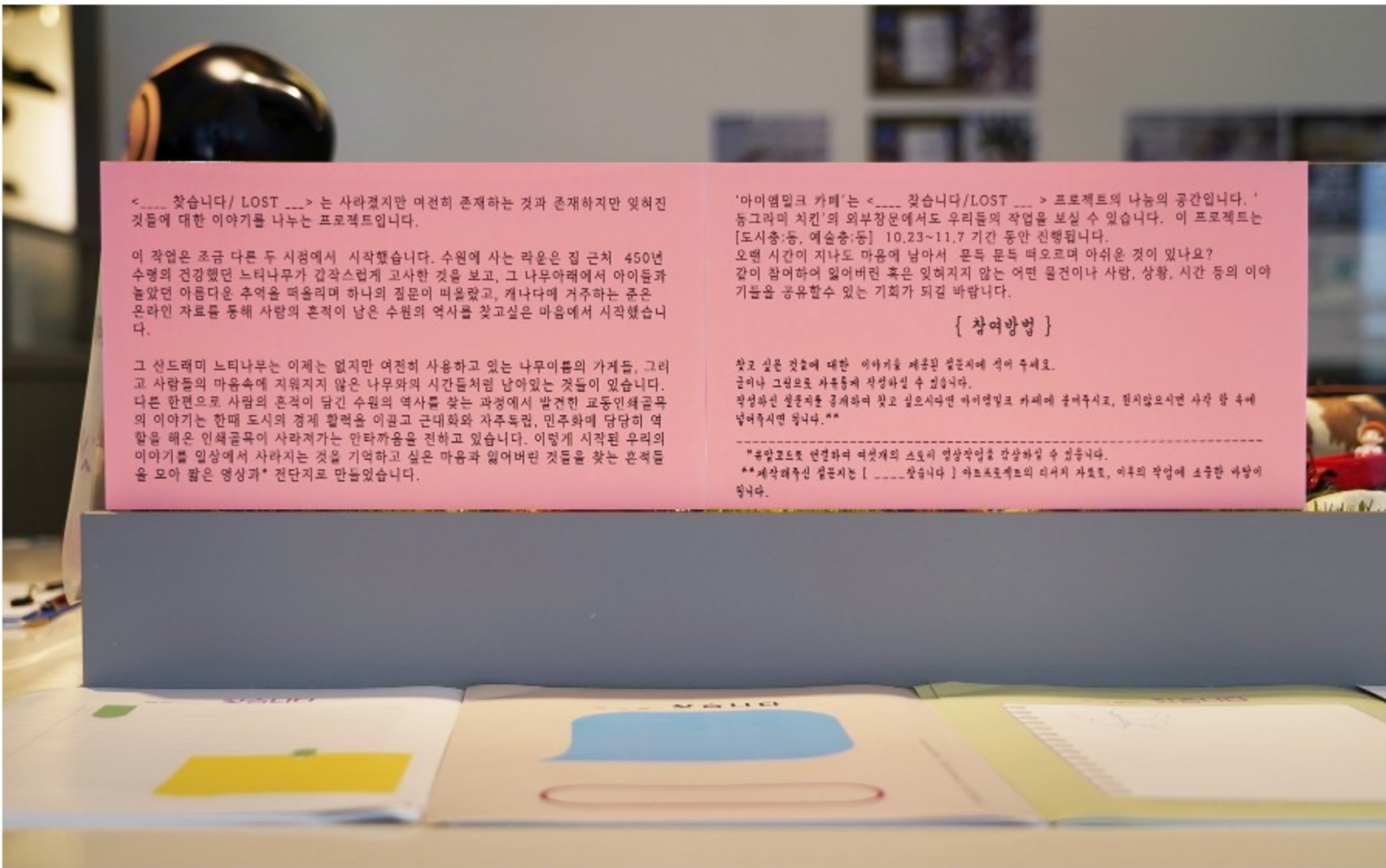
그 산드레미 느티나무는 이제는 없지만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나무이름의 가계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은 나무와의 시간들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흔적이 담긴 수원의 역사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교동인쇄골목의 이야기는 한때 도시의 경제 활력을 이끌고 근대화와 자주독립, 민주화에 담담히 역할을 해온 인쇄골목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일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과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흔적들을 모아 짧은 영상과* 전단지로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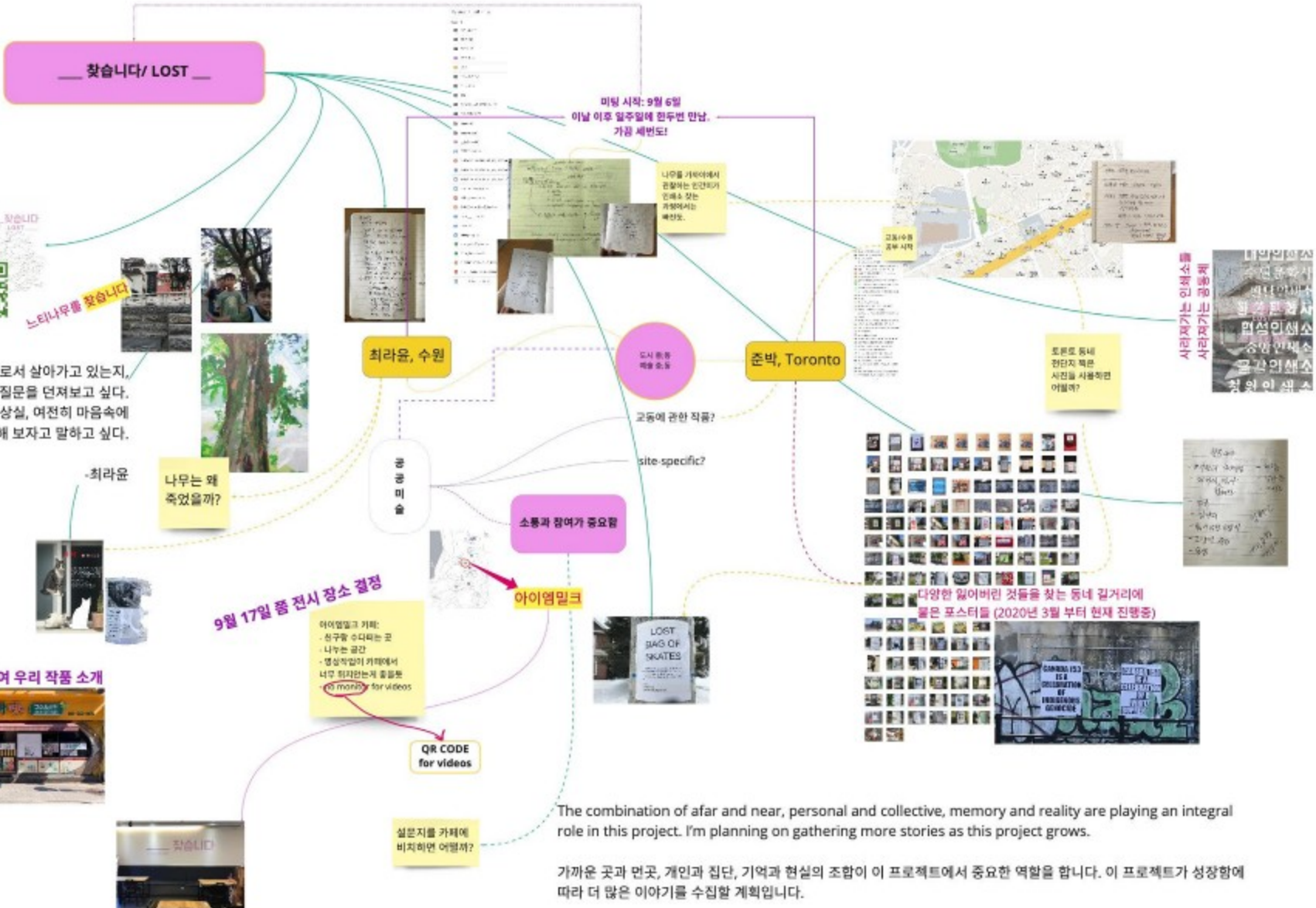
'아이엠밀크 카페'는 <___ 찾습니다/LOST ___> 프로젝트의 나눔의 공간입니다. '동그라미 치킨'의 외부창문에서도 우리들의 작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충:동, 예술충:동] 10.23~11.7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에 남아서 문득 문득 떠오르며 아쉬운 것이 있나요? 같이 참여하여 잃어버린 혹은 잊혀지지 않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 상황, 시간 등의 이야기를 공유할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 참여방법 }

찾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공된 설문지에 적어주세요.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설문지를 공제하여 찾고 싶으시다면 아이엠밀크 카페에 붙여주시고, 받지않으시면 사각 램 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도 연결하여 몇몇개의 스토리 영상작업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해주신 설문지는 [___ 찾습니다] 아르프로젝트의 리서치 자료로, 이후의 작업에 소중한 바탕이 됩니다.





The combination of afar and near, personal and collective, memory and reality are playing an integral role in this project. I'm planning on gathering more stories as this project grows.

가까운 곳과 먼곳, 개인과 집단, 기억과 현실의 조합이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장함에 따라 더 많은 이야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June Pak

miro



민체공복



아리



꽃길게 시장 - 영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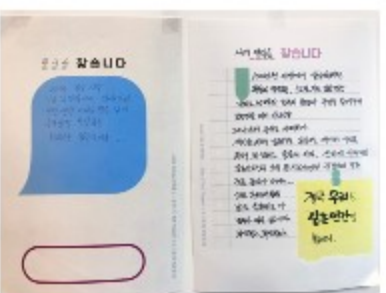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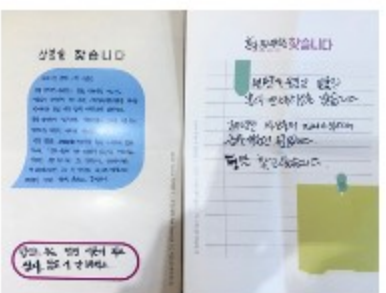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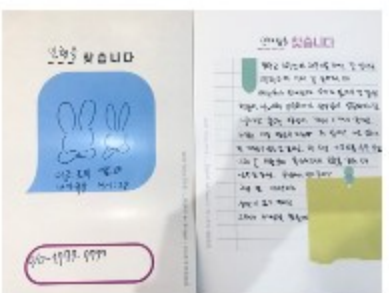
노티나무



스케이프



읽어버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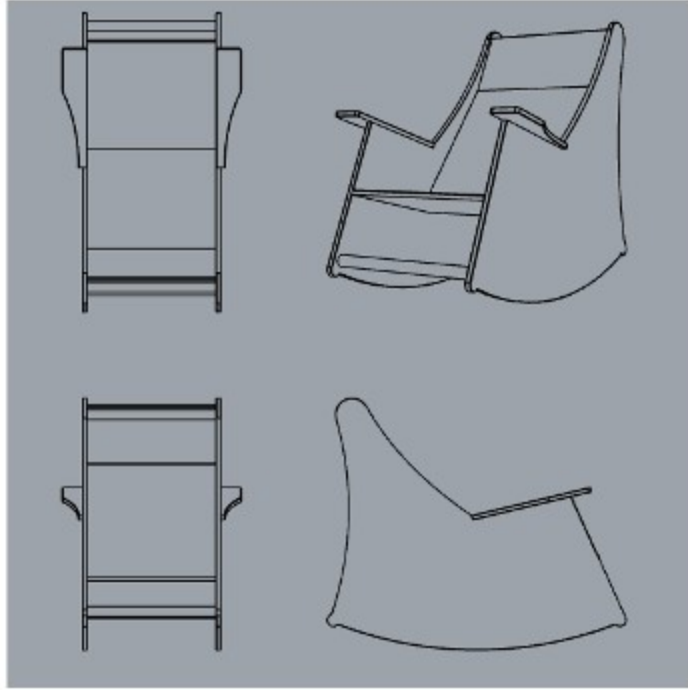


왕좌게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곳, 작품이 설치된 곳마다 나타나는 이 흔들 의자는 작품(작업)과 시민을 연결하는 매개의 공간이자, 또 다른 충동을 발생시키는 사유의 공간, 그리고 이번프로젝트의 상징(심벌)이기도 하다.



크기: 가로 520mm x 높이 1,000mm x 길이 1,000mm
제작 및 디자인: 권정우드워크



도슨트 투어

교동 곳곳에 펼쳐져있는 작품들을 도슨트와 함께 감상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진행일자
2021.10.23.(토) ~ 11.07(일) 매주 금,토,일 13:00 / 15:00

투어 진행 순서
팔달문관광안내소 앞 공터 - 소유집 - 청려원갤러리 - 아이엠밀크 - 아트플랑켓 - 노스록위닷파 - 마포생고기 - 수원시립중앙도서관

소요시간 : 약 1시간 30분
도슨트 : 심성아, 데미안
참가자 : 총 42명 (예약자69명)



부대행사



도슨트 투어



부대행사

도슨트 투어



박찬국

안녕하세요. 도시중흥 예술중흥 프로젝트를 맡은 예술감독 박찬국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를 만끽하기에도 좋을 만큼 굉장히 날씨가 좋습니다. 수원의 교통은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오늘 이 과정에서 이제 했던 작가를 하고도 많은 얘기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만, 그런 때 얘기가 좀 나왔던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공공미술 관련된 이슈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포함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다소 불편하고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소개는 발제를 하고 얘기를 나눌 때 각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앉은 김종길 예술감독님입니다. 지금 DMZ와 관련된 프로젝트 예술감독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미술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김종길 선생님은 비평가로도 활동하시고, 활동이 많은데 인상 깊었던 것은 2018년 경기 청년 도큐먼트를 기획을 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해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자료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다 전시해서 책도 발간하셨던 감동적인 전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종길

반갑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DMZ 프로젝트 전시예술을 맡은 감독 김종길입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저쪽 TV 모니터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25분정도 됩니다. 박찬국 감독님이 처음 전화 왔을 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저도 공공미술 혹은 공공예술과 관련된 기획자로서 이론가로서 일을 해온 지가 약 20여년 정도 됐는데, 20여년동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들의 흔적을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을 해서 오늘 작성하고 나왔는데, 또 제목이 듣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궁금한 것은 나중에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뜬금없고, 어이없고, 어안이 병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공미술을 정의하고 싶지도 않고 공공미술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제목은 공공, 그러니까, 우리가 퍼블릭 아트의 번역어처럼 읽고 있는 공공이라는 말이 원래 무슨 말이고, 미술, 예술, 미와 예에 대해서만 20세기 내내 21세기까지 하고 있어서, 잃어버린 '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술수'를 넣었습니다. 이 '술수'라는 말에서 '술'을 따왔는데, 미술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건 근대였고 그래서 술수 부리는 것이 예술일 텐데 그것이 왜 얘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공미술은 우리가 늘 원가를 보여주고,

2021.10.31.(일) 17:00 ~ 19:00, 아트플랫폼

사회 및 좌장: 박찬국 예술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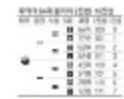
발제: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DMZ 프로젝트 전시감독,

신은진 신자유 디렉터

토론: 고윤정 영도문화도시센터장, 김철식 참여작가,

김도형 도시중흥단, 인지과학

세우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수 없이 보일 수 없는 건가 하는 문제죠. 하나는 예술을 꾸미는 말이 되는 거죠, 공공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태극의 하나를 효라고 하는데, 이 효가 이제 두 개가 만들어져서 사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무극에서 양이라고 하는 음양이 나오고, 그 음양이 다시 두 개씩 붙으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다시 3개로 변화되면서 주역의 과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그 컴테리진 선감감간이라고 하는 8개의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8과가 만들어지고, 8과가 8을 만나서 곱해지면 주역의 전체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주역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효 위에 뿔러 있는 것은 땅이고, 짝대기가 그어져 있는 것은 하늘이예요. 그러면 공공이라는 것이 뭐냐 이후에 두가지 개념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하늘을 위한 것이 아닌 땅을 위한 것이 공공이지 않을까? 술수는 뭘까? 예술이라는 거거든요. 예술은 예술가의 상상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땅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는 하늘을 상상하는 게 아닐까 비어 있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닐까요? 없다고 하는 것은 텅텅 비어 있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고 우리가 뭘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 땅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직 땅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것이 땅땅 두 개인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의 코드가 비어 있어요. 곱에 보면 하늘, 땅, 하늘, 땅이 3개씩 맞물리지만 예술은 지금 코드가 없죠. 예술은 사람이 하는 일거든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삼각형이 원 반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분의 한인단점이 가져온 천부인천 그래서 천지인, 이 도장을 가지고, 이 도장이 뭐냐면 원반각이라는 도장이예요. 그것을 경유로 풀어낸 것이 천부경이죠, 이부리는 것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부경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인데, 그 하나는 하이리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하느냐, 없이 하는 남인데, 누군가가 하시는 걸로 시작해서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이 천부경의 핵심이예요. 이 온 땅을 가지고 요즘에 아주 세계가 들쭉이죠. 이 원반각의 사상의 철학이 들어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의 핵심은 원반각이라는 그림을 넣고 사람이 원에서 나와서 다시 원에서 꼭지점으로 돌아가는 수행성의 굉장한 철학적 개념이 있는 겁니다. 이 원반

공공=
술수=
없이=
하는=
예술

각을 입체화 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붉은 점이 가운데 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밑에 삼각형이 사람이예요, 오른쪽 삼각형이 그 동물과 식물을 뜻하는 거예요. 좌우가 위로 이제 뿔러에 식물이 뿔리는 건데 그래서 삼각형의 원래는 저 위에 있는 원반각의 하나로 뿔러 삼각형은 지금 이걸 따르는 대전고 삼각형인데 오른쪽에 있는 큰 그림이 사실은 원반각이라는 하는 일종의 그 돌아가는 돌고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보여주는 원반각의 핵심이죠. 이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가운데 점 이 머리예요. 그 머리에서 오른쪽 네 발 달린 짐승 왼쪽 뿔고기 오른쪽 식물이 터지는 거죠. 사실은 그 뿌리가 하나입니다. 세상 이치라는 게 여기 하나로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분화해왔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상상한 안상수 선생이 개념화한 그림 하나가 이런 거죠 흘러는 거예요. 돌아가서 스스로 저절로 돌아가는 것, 이게 자연의 이치니까, 이 흘러의 일종이 술수적 변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으로 돌변하는 건데 예를 들면 도심을 세 도심으로 바꾼다. 혹은 예술을 통해서 뿔 바꾼다. 할 때 이 술수적 과정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동아시아에서는 용이라고 하죠, 이무기가 용으로 변신하는 건데 원래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비이 덩어리입니다. 번개와 같은 건데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했을 뿐이예요. 저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술수적 과정을 통해서 뿔가 거듭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술을 하게 되면



뿔가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만들어내고, 세우고 하는데 과할 정도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공을 통해서 땅을 하는 위에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예술가 뿐 만 아니라 기획자에게도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술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공공 예술은 그런 술수를 부리는 건데, 뿔가 이렇게 드러내는 없이 리고 하는 상상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이제 공공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재사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 후기에 그린 강산우진도 라는 그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의 이상향이라고 그려진 공간이 나와요. 그림의 한 복판에 매화꽃 핀 마을이 있는데 여기 뿔 배도 정박해 있고, 바다도 있고, 마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삶의 인간의 삶에 자연과 혹은 천지와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이상향이라고 한다면, 그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 공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삶이 공공하지 못하죠, 19세기 내내 조선은 공공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1894년 농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세상을 뒤바꾸려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갑오농민혁명처럼 우리가 공공하는 거 없이하는 공공예술로서 공공예술을 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뜬금없겠지만 왜 우리는 우리 밑바탕에 거세에 흐르고 있는 이 일종의 사상적 철학으로서 삼신, 사실 마을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항상 삼신에게 고사를 먼저 지내고 시뵐가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해왔어요. 굿은 사실 기획이죠. 공공의 기획 공공의 술수적 상황이죠. 그 안에서 집단의 신명, 공동체 신명을 터트리려고 하고 개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동이라고 하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돌아가는 대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기독교 예서는 가장 중요한 신념 중에 하나가 예수 사건을 따르는 건데 99.9%는 예수 사건을 따르지 않죠, 예수가 광야에 나가서 40일동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깨어나서 돌아올 때 누구를 만나냐면,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들을 만나요. 갈릴리바닷가의 사람들은 로마시민도 아닌데,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바깥으로 밀리고 밀린 사람들을, 개념적으로 니콜로스라고 합니다. 버려진



사람. 자기 목숨을 완전히 기질 수 없는 그 주체들과 만나는 사건이 첫 예수 사건이죠, 그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만나야 되는 기에서 저는 순사 꿈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재우의 통학의 사건과 예수의 사건은 거의 동일한 관점일 수 있다. 기획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주체와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오랫동안 보왔던 불교의 불화의 감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화연의 상종화가 달라요. 하단에 주로 지옥의 풍경을 다루고 있고 중간에 그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리고 상단에 올라가면 대동세상이예요. 우린 항상 중간과 하단에 중간쯤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해내지 못하고 있기에 나오는 일입니다. 천도교가 통학이 천도교가 되었을 때 중요한 개념으로 송병희가 얘기를 하는데 도전 제기를 보자는 겁니다. 재 전 다시 경제적 상황을 바꿔내자, 언 전, 철학화이예요. 사실은 철학하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수원문화재단 또 기획자 또 예술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공이라고 하는 주로 국가 국가를 상징 혹은 공공의 지지체 혹은 문화재단 이걸 공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공이 아니죠. 항상 그 부분과 공과 두번째 공이 다른 개념이예요. 사실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거나 지지체를 상징한다면 다른 하나의 공은 그것을 수행했을 때 받아내는 사람들이죠, 시민이거든요, 그 적정을 만나도록 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자이거나 예술가이거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가 공의 앞자리를 그래서 국가라고 하면 그것이 중심이 되어가는 그것이 하나의 실존적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유주체는 누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유주체는 항상 밀려나있죠, 이걸 뒤틀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기획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일종의 조화를 이뤄야 하는 거죠. 그니까 개혁의 주체인 기획자가 예술가들과 함께 뒤틀 심으로 사회를 혹은 공공을 바꿔낼 수 있으면 새로운 조화를 이루어질 수 있죠. 그니까 하늘을 모셔야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종교적 상황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하늘들을 각각의 주체가 되는 하늘들을 모실 수 있어야 사실은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조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필요하죠. 천수가 눈 앞에서 좀 보이고 여러 손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많은 공공의 씨알들을 우리가 다 농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고 그들이 하늘이고, 그들을 모셔야 하는 게 핵심인데, 사실 모심의 주체가 항상 알려리인 국가나 지지체나 재단이나 이런 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경향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구보시제는 공공을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 두루 관계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국가사전의 의미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봉 선생은



서로주체성에서 서로 주체성 홀로 주체가 아닌 서로 주체성에서 나와 바깥을 연결하는 것 서로 사는 것 서로 살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서로 주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공공을 철학적 개념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제일 그 철학자인데 김태창이라는 분이예요. 이때 공공이라는 말이 어디서 또 출현하고 있고, 공공이 지향했던 동아시아에서 공공이 지향했던 세계관에 대한 굉장히 기인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갑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념은 좀 더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공공이 출현했던 하나의 사건이 현대사에서 보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19같은 여기에 누구의 기획도 없죠. 기획이란 자발성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모두의 마음에 불씨가 이리서 들고나와 버린 거죠. 각자가 기획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의 탁월한 기획자가 아니라 모두모두가 그 안에서 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버린 거죠. 이걸 이발심기 기반심 이렇게 표현하는데 철학에서는 보이지 않게 들어 나는 것 보이게 들어 나는 것 그런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일어나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기반심인 거예요. 이게 인제 집단적 심명, 공동체 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통학에서는 이걸 공공을 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같이 우리 참여했던 조지인 선생의 기획했던 포스터입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4.19 묘지에 갔을 때 전시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황해문화에 리뷰를 썼습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기획의 주체였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피켓을 들고 나왔죠. 사회를 바꿔냈죠. 기획은 이렇게 뭘가 바꿔내고, 니체가 아침노래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두더지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서 뒤덮어야 하는 것이 혁명이다. 사람씨알이라고 하는 씨알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불씨가 터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기획이란 사실은 너와 나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겁니다. 우리말의 여제 오늘 이제를 대입해보면 너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과거이고, 나는 너의 미래인 겁니다. 그래서 너, 나를 구분하지 않는 우리를 똑똑하게 쓰는 민족이 이 한민족인데, 왜냐하면 모두에게 그렇게 소감을 하듯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나의 이빠, 나의 엄마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세계관안에는 너 나를 구분하지 않는 서로 주체 세계관이 이미 말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다 라는 말이 굉장히 중의적이죠. 너와 나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체의 대동이기도 합니다.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4.19가 불려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재라고 하는 권력을 끊어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공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혹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했을 때 이런 말을 하나의 키워드로 쓸 수 있을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우주로 창작하고 만물을 만드신 하느님,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상시 드러나는 형태가 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반각이나 천지인이거나 한글의 아리아나 방정이나 세계를 하나로 돌아가는 것을 천부경에서는 1석3극 하나가 쪼개져서 3개가 되는데 그 3개가 다시 하나로 회개하는 돌아온 뒤 삼진귀일이라고 우리 세계의 창이 다시 하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3개가 하나로 돌아가는 이 상백을 우리가 공공의 개념으로 생각해보 수 있어요. 예컨대 정부나 공공의 기관들을 하나의 주체로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해서 예술을 수행하는 예술가들 그 예술가와 함께 만나는 시민을 이 세계가 사실 하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야만 사실은 공공하는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유료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느 하나가 유난히 힘이 세거나 균형을 잡지 못하면 이 돌아가는 회오리는 균형을 갖지 못해요. 돌변하죠. 삼산할머니한테 굶을 한 판 돌리고 사실 이 시간도 시작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또 언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콜트콜텍 같은 노동자들이 다 들고 나왔어요. 이 기획자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콜텍에 제가 취재를 나갔을 때 성역 선배님이 우리 그냥 스카우트할 거야?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실제로 텅텅 빈 컵대기만 남은 부천의 이꽃 콜투 공장의 작가들이 들어가서 스웨이에서 작업실이 열려버렸더라구요, 이게 어떤 누군가의 탁월한 기획자가 예산을 받아서 기획한 게 아니예요. 그들 스스로가 마음이 통해서 사건을 크게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도 마찬가지로예요. 대출이 도두리 두개의 말이 사라질 즈음에 강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제주 강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한 1키로그램 가까이 되는 화산바위 너럭바위 구름비가 완전히 다 사라질 거라고 하는 위기 또 하나는 그 구름비를 하나의 신앙체계로 가지고 있던 동아리인 마을이 붕괴될 거라고 하는 위기 또 하나는 그 앞바다가 수 없이 많은 생태계가 다 파괴될 거라고 하는 위기 이 위기에 자발적으로 예술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일천이라는 작가가 넘총스키를 찾아갔습니다. 넘총스키가 저 피켓을 들었어요. 대중 넘총스키랑 미팅을 잡으려면 3~5년정도 걸리는데 이 메일을 받지마자 총스키가 오르고 해서, 같이 이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2공항 때문에 제주에 유일한 습지가 사실 파괴될 뻔했죠. 비처럼 한쪽 귀둥이를 찰려 나가서 도로가 되었어요. 제주만이 아니라 사실 한반도 전체의 신화지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은통 신화의 땅이거든요. 이런 신화자들을 전부 신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나라의 재건축 재개발 전략이기도 하고, 강정에 그려졌던 그래피티 작업이예요. 그리고 흥보담 작가가 그 마을의 주민들과 함께 마음의 지도를 그렸던 작업들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공공의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예술가의 예술가의 욕망을 실현하는 예술이 아니라 모두 함께 시민과 함께 그 마음을 비어서 예술로 터트리는 것이 공간은 예술일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이 상황은 없어졌어요. 이곳



강정 주민들이 하늘에 천체를 지내던 장소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도 있었죠. 물론 송경동이라는 탁월한 예술가가 진도지위를 했지만, 그 한사람의 명으로 이러한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닙니다. 또 대추리에도 마찬가지로였죠. 여기에도 자발적으로 빈집의 예술가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10여년을 예술가들이 아예 거기서 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말 다가서서 예술을 봤습니다. 이 상황이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균형이 깨졌을 때, 공부하는 예술이 사실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농사를 짓게 해 달라는 요구에서 시작했던 상황이에요. 예술가들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갔던 상황도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못 그리는 고물고물한 손을 아이들이 함께 그리는 위대한 벽화가 그려졌죠. 예술가의 탁월한 이 벽화가 그려진 상황이 아니었어요. 여기에 수 많은 벽사들은 예술가들의 스스로 낭독을 하고 자갈 자기의 잘 못쓰는 글씨를 낭독한 시를 세게 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과 이것을 기획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올 것인가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잘 모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힘이 대상이 되거나 창조가 대상이 되거나, 뭘가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한 사업으로서 사업의 결과로서만 끝내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이 부족 작가가 그런 세계인권선언 책에 실린 그림인데, 왼쪽에 보시면 사람이든 물고 기든 처음에 시작하는 처음에 그 상황의 생명체는 동일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그 생명이 모두가 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관점을 이 하나의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상황을 보면, 이게 우리 그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근대성이죠. 이 원반각 핵심은 하늘 땅 사람의 하나로 회 돌아가는 균형이고 좋아했는데 그 원반각의 핵심을 배운 사람으로 위치시키는 순간 이성을 하나로 중심에 두는 순간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근대이후에 우리가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런 관점에서 물어도 없는 것이죠. 최근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보시죠, 우리가 술수 부리는 예술 혹은 없이 하는 예술로서 공공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우리사회의 그렇게 자발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기획하려고 했던 주체들 그 모두의 주체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유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공공 예술로서 고민할 수 있지? 말도 안돼 이근 역사야, 철학이지 사상이지. 아니죠, 예수를 하나의 예술 품이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저는 공공미술 균형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처음 기록한 것은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의 이름도 없고 탄생도 없어요. 그는 한 인간으로 살다가 한 인간으로서 죽었을 뿐이죠. 마가복음 이후에 마태, 요한 이어져 가면서 기록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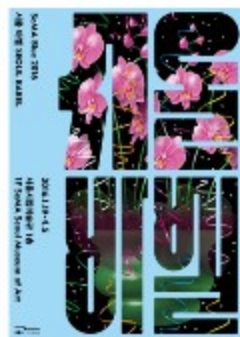
신화가 덧붙이면서, 동성녀 탄생 신자가부활이 만들어지기 시작 하죠. 일상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사회를 변혁시켜가면서 사람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 새로운 감각도인 이제 그 미술놀이 통해서 했던 80년대 현장을 스며서 공공의 주체로서 자기 개인의 예술이기를 내려놓고 공간에서 혹은 사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그 예술하기를 꿈꿨던 그것을 실천했던 미술종인이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창립전을 할 때, 이 그림을 경인미술관 마당에 걸게 구름으로 세워놓고 동의한 별신경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면 하단에 동학이 있어요. 그리고 4.19가 있고 5월 그 망물 풍요역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솟구쳐서 대중 세상으로 돌아 가는 고안 가운데 삼신할머니 거미라고 하는 신성한 신 이 세분의 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공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등장했던 내가 시기예요. 시기로 세경에도 세종실록에도 등장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공공이라는 말은 황제와 백성이 혹은 국가와 백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공공이라고 분명하게 철학적으로 거의 천여 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앞에 점두사로 붙여서 하고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공공이라는 개념을 놓지 않으면서 순수로 부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국

엄청난 역사를 이렇게 쪽 한 번 풀어본 느낌입니다. 혹시 지금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객석에서 코멘트하실 분 계시죠? 이런 건 다 이렇게 지나오면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기억에 생생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한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네. 가능하면 제가 토론 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분부터 누구를 지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시간을 더 써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기억을 환기시켜주고 그러셨는데, 처음에 너무 어려운 고대 철학 같은 그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것을 상기시켜 주셔서 공부에 부족한 저로서는 상당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더 많이 공부를 못해왔기 때문에 좀 민감하였었는데, 결국은 제가 듣기로는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적으로 지금까지 다 만들어서 생각하고 결정된 것을 이제 다시 사람들에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어떤 제도가 설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그 일종의 비제도적으로 이 말도 어려운가, 그 어 약간 제도 안에 한계나 숨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민중이 그 다음에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어떤 내지는 그것들을 뒤집어 엮고 그렇게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판을 만드는 거, 어떻게 재단에서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하면서 조금 보충해서 더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발제로 신은진 큐레이터, 소개로는 자기소개에서 신지유 디렉터 흔히 잘 안 쓰는 말수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도 말씀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2016년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그 서울 바벨이라고 하는 전시를 봤었는데, 그 전시에 이른바 당시 신생공간이라고 부르는 작가들이 좀 다양한 서울의 한 동네, 그러면서도 작가들이 시내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그런 공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공간에서 자기 활동을 전혀 미술관이나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오던 작가 그룹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예전 실험 한 번 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반응도 되게 뜨겁고 이후에 또 다른 제도로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은진님의 얘기를 직접 들겠습니다.

신은진

네. 안녕하세요 신은진이라고 합니다. 앞서 김중진 선생님께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많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들을 해 주셨더라고 하면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고 도시에서 좀 더 미시적으로 들여다봤었을 때 활동을 하고 실천적으로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어오고 이제 그런 예술 작가들이 어떻게 조직되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런 자기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본인들이 동력을 발생시켜서 움직이는 자생적인 작가들의 힘들이 모여서 제도를 조금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영향들 줄 수도 있다는 것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공공 미술이라든지 어떤 결과로 환원되는 어떤 보여지는 미술을 봤을 때 많은 그 부분에 대해 많은 열린 토론이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썸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살아가는 작가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되게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작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작가들이 저희가 이제 2000년도도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전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면서 전트리피어로서 지목이 많이 되었어요. 낙후된 지역에 들어가서 작가들이 그 주변에서 작업실을 하고 공간을 꾸미고 그렇게 하면서 뭐 카페리인지 그런 작가들이 이제 사랑방처럼 모여드는 장소들이 활성화가 되고 이걸 본 그걸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좀 '힘하다고' 얘기하는 이웃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오거나 그렇게 되면서 주변 지대가 상승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본이 그렇게 큰 자본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런 사이클을 저희가 두번정도 반복하다 보니까 작가들과 저희가 이제 어느정도 학습이 된 상태가 지금 2021년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2000년대쯤에서는 되게 무기력하게 사실은 쫓겨간 다녔죠, 월세가 저렴한 곳만 찾아다녔는데, 지금은 사실은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도시의 부동산 게임 같은 것을 파악했던 작가들이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체성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을 논의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국한된 얘기라서 수원에 와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되지만 이것은 서양에서는 더 많이 오랫동안 반복이 돼 왔던 일이고 곧 비슷한 현상들이 지방에서도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비교하며 물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가 형식이 될 때라는 유명한 미술계의 말을 패러디 식으로 만들어본 것이고, 도시와 예술에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공생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던 전시들에 대해서 사례와 연결해서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의 도시게임과 공공의 태도 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연말아서 2개의 전시를 기획했었는데 서브 컬처 성년 젊음이라는 전시와 서울 바벨



전시를 연말아서 했습니다. 2015년 여름에 서브 컬처를 했었고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는 겨울에 서울 바벨 전시를 했었으니가 서울 바벨 전시를 하게 되었던 동기부여는 서브 컬처 성년 젊음이라는 전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이 당시 제가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동연 선생님, 신보선 선생님, 신현준 선생님, 임동근 선생님 모시고 도시 전트리피케이션과 예술과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나름 토론도 하고 발제도 하면서 얘기들을 해왔는데요. 이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지만 서브컬처 성년젊음은 흥대 앞에 인디음악이라는 것이 발발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는 것을 기획으로 만들어진 전시였습니다. 당시 2015년 정부에서는 더 이상 라이브클럽, 인디 밴드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흥대 앞에 거의 전멸을 했었고 외부로 많이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영화가 있는데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94년에 코리아넷, 노브레인부터 시작해서 흥대의 인디 문화를 만들어왔었던 뮤지션을 인터뷰해 가면서 장기하와 얼굴들, 신드롬 등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연결해서 부리반 사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흥대 앞에서 일어났었던 전트리피케이션의 예술적인 충동이 모여 있었던 부리반 사태를 통해서 예술적인 저항정신 같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 때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다면, 거기에서 파생했던 여러가지 사례 중

2000년대 이후 흥대앞 예술가들의 이주 경로



예술가들과 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 라고해서 이런 맵을 짜봤습니다. 흥대 앞 예술가들의 이주 경로 라는 것인데, 처음에 서교동에 거주를 하거나 작업실이었어요. 그러다가 서교동에 카페들이 생기고 하면서 상수동으로 옮겨가고 상수동이 변화해지자 좀 큰 철공소나 큰 공장 이 있었던 문래동, 문래동은 1층이 다 공장이라 2층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서 2층이 전부 비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2층을 한 달에 월세 20만원 정도에 50평, 100평 정도를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연남동, 망원동 이렇게 넘어가다가 서울시 안에서 잇기 힘들어지면 은평구를 거쳐 파주로 넘어가거나 아예 서울에서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주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지인들 중에도 제주도 계신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텃이 지난 2010

년 이후에 신생공간들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나 하면 창신동이나 청량리, 불광동 등 문화적인 것이 발전하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가서 자리를 잡게 되고 전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적인 모세혈관으로 보고 자리를 마련해서 초청을 해서 전시를 같이 꾸몄습니다. 70명의 작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각자 도생 하는 모습을 보는 전시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흥미로웠던 이름들이 800에 40, 300에 20, 200에 20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이게 보증금과 월세를 자신들의 분침을 내서워서 활동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팀들이 17팀 정도가 참여했는데, 반 정도가 전시 기간 중에 문을 닫거나 청정 휴업을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차피 부동산 계약이 2년이고, 2년안에 재있는 것을 해보고 싶었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자신들의 본질, 개성을 상징하는 방식으로 흥미롭게 이용했던 부분들이 돋보였습니다. 청량역소포 같은 경우는 제가 애정 했던 공간이었는데 퀴어들의 작품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서울 시청 광장에서 퀴어 페스티벌 했을 때 연계해서 전시를 한다든가, 특히 청량리 도심에서 벗어난 오래된 지역에서 티자성이 강조된 퀴어들의 전시를 한다는 것이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햇빛서점에서 주회를 해서 전시장 안에서 본인들이 기획을 했던 전시들이었고, 이게 사실은 국공립 기관에서 큐레이터가 스스로 기획하기에는 민감한 주제를미고,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는 작가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줬고 저희는 공공 기관에서 작가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역할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나 행사를 자체가 크게 문제되거나 대두되지 않고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전시장인데 시장을 방황케 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어요. 이때 저희가 느꼈던 것 자체가 이런 신선작가, 젊은 작가들에게 누가 그렇게 관심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래 작가들이나, 신선 작가들이나 비슷한 동년배의 작가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미술관에 자리하고 점거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생각 외로 많은 관람객들, 특히 2~30대 관람객들이 많이 와서 전시장이 안전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전시가 가지는 할유가 크다고 생각한 이유는 공공 미술관에서 젊은 작가들의 움직임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때 기관이나 제도에서 변화를 주게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7년에 창작예술공간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서울 문화재단에 생겼어요. 그래서 예술활동이 기반이 되는 창작 활동 공간임차료를 지원하고 작업실이나 신생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면서 활동을 보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이후의 신생공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지형으로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20여년동안 저 또한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을 짜고, 정채성이 미술관 큐레이터이기도 하지만 한 측면은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무던히 노력을 했던 거 같아요. 내부에서 그걸 잘 맡기 때문에, 속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임대료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결과보고서 없는 지원사업을 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많은 실제로 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가 그런 시도들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시도들은 1차년도 사업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어요. '세금을 건어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다는 게 말이 돼?'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연합로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예술가들과 함께 갔어요. 그 결과 제가 착상하는 거예요. 실무자가 함께 따라 갑니다. 예술가들은 사건을 만들어 내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부담도 갖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소한의 것들을 함께 하는 것도 시도해봤죠. 두 번 해봤는데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생공간 발표하셨는데 경기도에 1세대 대한 군 공간들이 탄생한 건 임차료와 기획비를 아예 공간 지원사업으로 시도를 했죠.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도 탄생을 하게 됐고, 의정부에 문화살롱 공 도 탄생을 했고, 그래서 공간지원 사업도 경기문화재단이 성공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 또 한 2차년도 3차년도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예진흥 실장으로 있을 때 했던 거는 공간재생 사업으로 임차료와 기획비를 지역문화 진흥법에 대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 부분을 광범위하게 만들 수 있는데, 문예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아는 재단에 전문가가 거의 부재합니다. 예술진흥과 문화예술진흥은 순수하게 예술기능이라고 하는 창작진흥 인 것이고, 지역문화진흥은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 밑바닥에서 문화공간들이 혹은 관련한 주체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시킨 것이 지역문화진흥의 핵심인데, 그래서 일종의 수익사업을 하되 밀정한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게 지역문화 진흥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생사업으로 공간을 6개를 만들어낸 창상공간 사업을 만들었죠. 팀장이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면 왜 이사업을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진흥이나 생활예술진흥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모든 문화재단의 정책 위반자들이나 실무자들이 다 이해하고 정책을 짜고 간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걸림돌인 원천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이 국가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분들도 이해가 안되는 겁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은 지난해 일이 돼 버려서 결과적으로 공공의 공이라고 한쪽의 공이 경직돼 있어서 이걸 또 이해시키고, 미반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사업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1년짜리 사업이 빙빙 돌 수 밖에 없는 한계가 20년을 해왔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바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찬국

그러면 토론을 잠시 후 이어 가기로 하고요. 일단 다른 토론자들도 같이 얘기를 들겠습니다. 고유정 센터장님

고유정

제가 두 번 정도 고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여하는 곳 중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문화도시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공공 예술을 하고 있는 여성 센터장 3가지가 맞아서 제가 이자리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고민들만 이야기했는데 재탕창에

너무 부담되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작가들은 생계문제, 경제적 인 문제로 참여합니다. 결국은 다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똑같은 시간에 속재해야 하는 것을 말이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전교생이 950명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교 물자를 했어요. 농구부, 하키투기 물자를 다뤘는데 저희 때는 알다시피 한반이 70명이니까 한반에 2/3는 '버리고 가는 카드'라 상관이 없었지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어야 하는 제도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에 저희의 관찰속도와 실천속도, 사과의 속도, 물론 공부안하고 날라리에 가까웠지만, 그런 것들을 강압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미술하고 나서부터 이게 똑같은 시간에 보지 않아도 되는구나, 똑같은 시간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똑같은 시간에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미술대회에 갔더니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800에 40, 300에 20처럼 저 공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겁니다. 오옷이 내 생각대로 보고 사유하고 실천해도 되겠구나 하는 개별적인 김월식이라는 예술가 개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정책이고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창작공간에 임대료만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는 방식은 편했었던 것 같지만 그것도 작가들의 야생성을 죽이는 것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내돈내산' 할 때가 행복했다. 해외여행도 내 돈 내고 갈 때가 제일 재밌었다. 나라에서 돈 받아서 갈 때 어쨌든 갖다 와서 리포트 한장이라도 써야 할 때 그것은 행복한 여행이 아니었구나 하는 기조.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작가의 자유성과 개별성을 침해하거나 고유성을 흔들 때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도의 문제를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제가 오늘 영도 센터장님이 와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영도에서 뭘 하는가 잠깐 봤습니다. 저기 계신 작가님도 관여를 하시고 공공예술에 대한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무엇을 할 생각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작가들도 무엇을 할 생각을 안하고 결과에 대한 압박이 없어서 영 때리면서 가는구나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기획이 있나? 무엇을 만들어 내지 않아도 되고 무언가 하지 않아도 되고, 그걸 놓았을 때 작가들은 그 시간 안에서 개별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사업기간을 넘기더라도 그거 자체가 김종길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공공함에 닿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걸 어떤 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도와 시간의 문제 같은 것들요. 센터장님 계시지만 저는 밖에 현수막도 붙이고 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예술, 도시공동 예술팀들에 대한 것들은 개인 SNS에 올랐던 공공 예술에 대한 비판처럼 수원에 대한 애정과 애증을 계속 올리는 행위가 공공예술의 도시공동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이속도에 같이 등 떠밀려 가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 어떻게 막아서야 할 것인가 하는 예술가로서의 이런 욕심도 생깁니다. 모래알처럼 절대 잡치지 않고 흘러내리는 공공예술을 해야 될 텐데, 우리에게 스킵이 있었고 서로한테 상업성이 있었던, 그렇지만 절대 잡혀주지 않고, 정책은 예술을 잡으려 하고 그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려는 관성, 그런 것들을 어떤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

그렇습니다. 속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한국사회가 한번 더 뒤집어 지지 않는 한은 어려운 지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잡 쉬셨나요? 큐브에 음식 맛은 어땠나요? 치약처럼 단거리 가지고 영양소만 뽑고 양도 맞추고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건강 생활하시는 분들이 먹는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반부에 발제 선생님들이 2번의 발제를 해주셨는데 토론하러 오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본인들의 얘기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앞에 했던 발제 내용도 코멘트 해주시면 좋고, 자기를 얘기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세문의 토론자를 모셨는데 우선 김월식 선생님이 현재 수원이 지동에서 태어나고 대한민국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활동하고 있는 김월식 작가구요. 지금 작업실도 지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김월식 작가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옆에 고유정 센터장님은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 영도구에 문화 도시를 실제로 최종 합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기기가 예술성, 특히 공공 미술과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중요한 프로젝트로 같이 하고 계시고 벌써 상당히 운영하는 동안에 여러가지 활동도 하시고 어려움도 있을 거 같아서 같이 공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계시는 봉홍모자 김도영 선생님이고 고통 주인입니다. 저희 도시 총동단 시민 멤버로 참여하셨고, 지난해에 저희가 초기에 작가들과 함께 도시 총동단 선생님이 말씀을 나눠 주시는 기획이 있었어요. 그 때에 함께 만날 수가 없어서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 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사람이 팬이 생겼어요. 굉장히 말씀도 잘 해주시고 좋은 날카로운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모시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막 포럼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않은 순 대로 김월식 작가님부터 하시죠.

김월식

다른 포럼은 발제 토론이 명확하게 지정이 되고 누가 누구에게 발제 한 것에 대해서 지지를 해야 되는지 정해지는데 오늘은 형식이 없어서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난감합니다. 그전에 오늘 되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공공미술 얘기하면서 최근에 행보가 공공미술이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새로 생긴 패턴 같은 것들이 참여형 공공미술이라는 새로운 방식 같아요. 그러면서 벽화처럼 비판 받았던 공공미술보다 처참하고 엄밀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벽화가 싫다고 외치고 다녔더니 벽화는 안하시고 참여형 공공미술을 해서 시민들을 대항해서 도구화 하는 짧은 시간안에 정책적 비용으로, 특정 정책적 사업으로 전국이 열풍처럼 되면서 다양한 문화와 개인의 서사가 있었던 일종의 표족하고 아름답고 알록달록한 문화들을 평평하게 지우고 한색으로 밀어버리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면 거기에 저도 원죄가 있는 것 같고 한때 커뮤니티 아티스트 그러면 네이버나 구글에 치면 제 이름이 나올 때도 있었고. 요즘은 구글링해보면 제 이름 치면 김월식 결혼이 나오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제 결혼식 사회를 봐주신 분이 여기 계시고, 주례를 봐주신 분이 여기 계시고, 이게 너무너무 오늘 김종희 선생님과 사진 및 촬영을 해 주신 유감목이 앞에 계시고 굉장히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 질문을 어떤 분이 대답을 해주실 지 몰라도 누군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이나 제도가 참여 공공미술이라는 것들을 조장하는 비에 의해서 작가들이 거기에 많이 동원되고 작가들도 평소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건 없었지만 작가들이 분명히 생각과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에 같이 함께 들어오면 같이 허물어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첫 번째는 속도 같습니다. 한정된 속도와 시간에서 똑같은 사업의 시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들이

그 친구들은 조금 더 브랜딩이 된 상태로 카페면 카페 바번 바 이런 걸 같이 해서 자금을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신생 공간 중에 한 팀의 포스팅이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작품을 많이 해서 작품들이 쌓여 가고 작업실에 볼 데가 없을 때까지 넘겨 뒀을 때, 혹은 문인 전시를 하고 나서 다시 작업실에 들어온 작품들의 볼품때문에 힘든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작품을 보관해주는 거 자체를 기획으로 전시를 해서 이렇게 보여줬든 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기인한 기획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는 여기 끼치고 아마 조금 더 토론이나 질문 등 해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박찬국

잡 들었습니다. 관심 가는 얘기가 많았을 거 같은데 수원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 나누고 싶은 분 계시요? 수원에 작가분들 좀 오셨지 않아요? 혹시 수원의 사례 같은 거라도 질문이나 사례나, 없으신가요? 예 그렇 이정도 토론 시간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시는 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도 통대문에 신발 도매상가 옥상에서 쓰레기를 20톤 치우고 지금 한 8년째 거기서 있어요. 근대 아까 800에 40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30 정도, 언젠 나갈지 모르지만 보증금 안 내고 매월 1일날 입금하는 방식으로, 내일 월세 내야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도 지금까지 있는데, 청랑리 엑스모나 이런 활동처럼 생각보다도 매우 사회적으로 확장된 발언을 하시는 그룹도 있고 비교적 자기들 작업에 집중하는 그룹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만 해도 지역의 일대의 봉제 산업이나 폐선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습니다 만든 지금 저희가 공공 미술이라고 할 때 작가들 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간적으로 도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공공이 지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결부 돼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2년정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월세지원을 받았어요. 주인한테 직접 월세가 들어가게 하는 방향으로, 2년동안 월세를 누가 내준다는 기쁨을 아시잖아요. 안도감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재 김종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상황을 다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상황과 부딪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공공성을 만들어 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발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분 15분 정도 쉬시고 6시 10분 정도에 다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가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기 뒤에 아트볼랑켓이 준비를 했는데 큐브 푸드라고 저녁시간인데 비도 고프고 밴드릭 상황이라 음식 차리기 관련해서 준비했습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드시면서 6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있을 수 있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발표를 막았었을 때는 의견에 한 때를 품어했던 창조도시의 냄새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예술인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여서 제 나름대로 발표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떠올랐던 생각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시민으로서 예술가들이 도시에서의 조건에 반응하는 형태로 본인들의 예술활동을 해온 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예술가들의 움직임과 행동이 시민들의 도시경험에는 어떤 영향 혹은 효과를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이까 속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김도형 선생님의 답변도 될 거 같습니다. 짧게 설명하면 일단 여기 있는 기획자들 좋은 예술가를 활동하시는 분들이 시의원이 되십시오. 구의원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이 정책을 풀아가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공공예술의 참여자가 아니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한 축이 의원이에요. 시의원이나 구의원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과 얘기를 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정책 플랜을 짤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금을 형성시키고 공모 방식도 바꾸면 돼요. 일정 기간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끝내는 형식이 아니고, 독일에 어떤 사례가 있나 하면 일정 기간 동안 예술가나 기획자가 기획서를 들고 찾아오면 그 기획서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 수준에서 가져왔을 때 또 기획이 총총하게 써서 가져왔을 때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만들 가지고 들어오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획자는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같이 붙입니다. 하지만 주도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하도록 모두가 다 서포터즈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심의를 대상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그러면 심의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단 년도 사업일지 3년간 사업일지 혹은 장기적 사업일지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내립니다. 그러면 행정이 적극적인 서포터즈 역할을 한 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시민이 한 축이 되고 기획자가 한 축이 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처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 사람이 끝까지 주체자로서 기획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탁월한 기획자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까지 가야 되는지 를 유도해주고 도화주고 협업이 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의 아이디어 를 성공시키기 위한 좋은 방향의 긍정적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때 누가 방어 역할을 하나 하면 시의원이 방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한 축인 시 혹은 시의원이 민주주의 구동방식을 만들어주면 어떤 결과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성공해서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필요하면 일 년 내내 워크숍이 가능 할 수도 있죠. 모두가 다 동의하면 1년 내내 워크숍을 통해 연구하고 그 이후에 정책에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시범적인 걸 하고 시범까지 하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죠. 이런 방식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축이 누구냐 하면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김도형 선생님도 교동 시의원으로 도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위기에 대한 활동이나 고민도 많이 갖고 계셔서 본인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형

먼저 몸서 불편합니다. 제가 오늘을 계기로 사는 자세를 바꿔서 할부로 '뒤편 게요' 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일찍 와서 발표문을 보고 거의 경악했습니다. 무슨 토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교지가 들어가는 신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고 이 프로젝트에 대상화되고 도구화 된 시민 역할을 맞고 도시 중동단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이온으로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얘기를 쉽게 하면 굉장히 솔직한 분이려고 얘기를 하고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시면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신 걸로,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시면 일단 시기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하면 성실한 분이려고 생각 하는데, 오늘 두 발표는 너무 성실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시민으로서 막 말해도 되는 거 같아요. 저는 걸릴 것도 없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공미술은 무엇이었나면, 예술가와 시민들이 함께 수련하는 일종의 불복종의 기술 같은 거였어요. 늘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바라 왔었고 그런 면에서 늘 아쉬움과 칭찬을 허가나 봐 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일에 참여하겠다고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도 그런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드렸고 참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오늘 외서는 잘 못 봤다는 사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김종규 선생님 발표 같은 경우는 재미있게 들었어요. 제가 주역에 대해서 이쁜 주역이 있는데 그걸 덮을 정도로 재밌게 들었습니다. 많은 점에서 동의가 되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품이라고 하는 결과로서 예술을 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공공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사소통 하기 위한 방식으로 오늘의 발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처음에 발표문을 봤을 때 뜬금없다고 생각 했는데 발표를 끝까지 듣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다고 공감하면서 들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5년, 16년이 출산이라는 과정을 가족이 겪는 시기여서 어떤 전시도 못 본 시기였는데 그때 있었던 제1만 전시를 두 가지 보여주셔서 안타까운 반 즐거움 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토론이라고 하는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질문을 두 분께 드리고 싶은 걸 억지로 생각을 해냈는데요. 김정희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국가 혹은 뭐 지방 정부 든 중앙정부 든 그런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로서의 공이 시민으로서 공을 만나는 방법론에 대한 거요. 어떻게 하면 시민을 하늘로 모시고 그런 조화를 부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까 작가님께서 참여적 공공미술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사실은 디자인 안에서도 참여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대단히 미흡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을 쉽게 대상화하고 도구화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예술가 혹은 예술인들의 참여적인 과정에 대한 태도는 좋게 말하면 참담하고 나쁘게 말하면 비대해진 본인의 자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시민들과 함께 비둘비를 거리는 듯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봤았기 때문에 공과 공이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미술계안에서 제안되고 실험되고 그 안에서 예술인들도 스스로 시민으로서 방법론을 트레이닝 받고 관점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로 어떤 방법이

라인 워크숍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저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과정이고, 많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전에 했던 것에 비하면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저라는 사람에 대한 격정은 제가 언어를 가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티스트들도 있을 거고 행정가들도 있을 거지만 저라는 사람이 제 언어가 필요하다고 하는게 그 동안의 반성을 하려면 신성한 존재로서 예술가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행정에게 예술작업들을 설명할 때 '원래 예술가는 그래요'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이란 협의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 양쪽적으로 자신에게도 예술가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품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고, 그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권한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만 지베했던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활동의 과정이나 고민들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청취해서 제 언어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 째는 문화도시에 관한 생각인데요. 문화도시는 행정 거버넌스를 강하게 요청해요. 사이 좋은 행정을 구현하게 요청을 많이 하거든요. 사이 좋음이 오히려 불편하게 작동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공공예술의 프로젝트 중에서 작가님들이 주제를 정하게 될 때 착한 갈등과 나쁜 갈등이 있다고 표현 할까요? 아니면 쉬운 갈등과 불편한 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적으로 나름대로 공간이 가능한 주제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회적 돌봄, 왜 이 사람이 고립되었을까? 를 물어봤을 때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되었다든 지 이웃들과 환경에서 배제되었다든 지 그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수용성이 용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개발에 대한 도시 정책에 대한 반발이나 이야기 같은 경우들은 상대적인 착한 거버넌스라고 하는게 걸림돌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천적으로 문화도시에서 공공미술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들도 듣다는 부분들도 있는 게 말짱할수록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이 저한테 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즘 같이 하시는 분들과 나오는 이야기들이 의례 민주주의로 나오면서 그렇다면 대다수의 시민의 욕구에 부응한다는 부분에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의 해체를 생각해 보고 그동안 호명되지 못했던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의 이야기들을 문화예술을 통해 해보면 어떨겠냐는 이야기들로 요즘 귀걸 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프로젝트 이후에 몇 년 쯤 거면서 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준 일들이 있었어요. 지역에 있는 기획자들이 저에게 문화도시에서 예술을 너무 배제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술을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세대 간의 문제로 봐야 할지, 내가 진짜 예술을 배제하고 있는지 이런 갈등들을 많이 겪게 되면서 문화도시라고 하는 내용안에 문화정책 안에서 예술정책의 포지션들을 저 또한 굉장히 큰 고민과 갈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공공예술이 아닌 그냥 예술인 사회주역을 해볼까 이런 고민들, 문화도시 안에서 예술을 이야기한다면 예술가들이 아주 자유롭게 오히려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예술인 사회주역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고민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상태였고, 질문은 문화도시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진짜 잘 될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어떤 언어를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욱

예술이 여기저기서 풀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죠. 김도형 선생님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형 선생님은 기

기대된다고 해서 마음의 부담이 더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문이 문화도시에서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원천적인 질문을 드릴수가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영도라는 곳이 문화도시가 선정이 된 데에는 공공 예술프로젝트를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이 대도시가 있는 성이었는데, 그동안에 낙후되었다는 이미지가 많고 차별 받아 왔던 역사가 많았었는데, 그것을 국내외 작가분들이 오셔서 아카이브하고 설치작업, 벽화를 통해 구현해 나가면서, 3년 진행되면서 영도 속 한 지역이 예술마을 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계획에서 파선으로 철회된 가까이 육박할 정도가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공간에 관련된 이야기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 까지를 담당했던 것은 아니었고 선정되고 난 다음의 사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저의 고충이 시작했습니다. 동단위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뒀던 것이 도시지역 전체로 확산되었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예술마을이 곳곳에 지어지는 게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이부분을 가지고 관련된 분들과 심도 있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실제로 많은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들을 많이 표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술마을이라는 명칭을 획득하면서부터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그게 다른 주차나 교통문제가 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왜 예술마을로 지정되는지 기본적인 이해를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 왜 세공에 쓰는 것들을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해야 되나 하는 질문들이 거세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고민을 했죠. 뭐가 문제였을까? 짓고 설치하는 것들? 평가를 만들고 보여주는 것들? 설치하는 중심의 사업들이나 벽화 중심 사업들이 세련되게 멋지게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 말고요 해서 1차년에 그 다음에 연차에 했던 것들은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패배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처음 저희 지역 작가들과 작업을 하게 됐는데 지역작가들의 머리에 공공미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한 충분히 알아해 나가면서 만들어 나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하고싶은 것들을 지역에서 해보자는 시도가 굉장히 무모하게 작동이 되었던 거죠. 결과는 공방이라고 하는 멋진 경관에서 전시를 한다든가, 바다를 소재로 한 퍼포먼스 정도를 한다든지, 일부의 작가분들은 나름 신선한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게 영도라고 하는 지역과의 연결점들은 자연환경 외에는 나타나기 힘들었습니다. 멋진 자연경관과 산업 경관들을 활용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들도 하면서 1차년도에는 패배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예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과정을 생각하고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결과는 벽화 스타일이었던면, 벽화 아닌 스타일의 프로젝트들이 되면서 과연 그게 맞는가 생각하게 되고, 두번째를 과감하게 공공예술 프로젝트들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카이브를 하며 1차년도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음, 공부를 해야겠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두번째 발전은 공부를 하라고 해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딱 잡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를 간취해보자. 예술가인과 중간 매개조직으로써 우리 동시대의 기술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주구장창 1년짜리의 워크숍과정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워크숍하고 또 3박4일 캠프하고 또 몇 달 후에 또 워크숍을 하고 온, 오프

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한 10년 전부터 예를 들면 모든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공공을 향한 기획들이 다 후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문화재단도 초반에 불 것들이 이제 표현을 포털이 열린다고 치면 가끔 어떤 포털이 열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좋은 기획자 한 명이 그 안에서 고군분투할 때 일종의 공공예술과 공군 기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토 틀은 가끔씩 나타났는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지속화 되지 못하고 시스템화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도 이제 10년 전부터 아는 예술가들에게 시의원, 구의원이 되는 것들을 예술 프로젝트로 한번 해 봐야한다. 그것들을 왜 예술 프로젝트가 될 수 없는지? 라는 제기를 던졌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서로 대상화해서는 안 되며, 결국 어떻게 보면 예술가는 사건을 일으키는 존재 그 속에서 공군 기관이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무엇을 마련해 주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시례에서도 예술가들의 작업들이 있었는데, 모든 예술가들의 이전에 그 공공이 발전했던 예술 작업도 공동된 점은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사후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슈의 사회현상들이 발전되고 나서 그 문제 뒤에 뒤어는 사후적인 활동들의 결과들이 공공예술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것들을 앞에서 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정부나 과는 관료주의 체제 안에서 전문가 집단은 저를 비롯해서 교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교활하다'가 그들의 특성이 고, 제가 볼 때 이 사회에서 가장 착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저는 그게 예술가라고 봐왔습니다. 너무 착해서 계속 다하고 너무 착해서 착한 예술을 하리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 스스로가 착한 예술을 계속 사후적으로 발생 시킨다. 그러면 시민들은 무관심한 존재가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이 세 주체에서 그럼 누가 이 문제들을 먼저 시킬 수 있는 힘들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지면, 역시나 공공 미술과 공공 예술에서 이 문제의 키워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성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은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도시 공동 예술 공동에서 공동을 가지고 공공예술들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

좋은 말씀이지만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늦어도 되겠죠. 얘기가 아직 너무 정리가 안돼서 좀 더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말씀해주세요.

김철식

수없이 많은 교활한 관료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관료주의가 교활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술가도 배반의 장미이기 때문에 요즘 예술가들이 그렇게 무능하진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 예술가들은 시외적인 예술 지원 정책에서 항상 수혜자의 위치에 만 있어 있지 않았냐는 스스로에 대한 문제의식과 살펴보고 싶은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감각적인 사회라면 이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내돈내산'을 너무 좋아하고 제 돈 주고 만수르처럼 모으고 있습니다. 일종의

데,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질문을 늘 갖고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젠트리 리피케이션, 아까 이제 월세예기를 하실 때도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월세에서 내 쫓기는 수동적 존재로 계속 비취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일부 타당한지 점들이 있겠으나 사실 제가 만났던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정말 월세 때문에 계속 쫓겨가는 삼으로 규정 되는 존재들이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얘기는 즉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영역의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한 측면에서 그 얘기들이 짙어 좀 측면들이 있지만, 그것이 포괄적인 예술가들의 상황이라고 얘기할 때 끊임없이 사회가 규정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규율의 관점, 즉 가난하고 어찌됐건 간에 예술가의 능력 전에 가난한 존재로서 모든 시민들이 예술가들의 삶을 인지시켜 버리게 되는 이 사태 자체가 오히려 본질적으로 더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 자체도 스스로를 대상으로 하는 즉 예를 드는 전문가 집단이 나 정부 그리고 예술과 역할 틀에 대해서 서로 무언가로 그 역할들을 엄정하게 규정했을 때 발생 하는 모두가 모두를 서로 대상화해 버리는 그럴 경우 각 결과적으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과 그 상정에서는 사실은 늘 뻔한 얘기들 밖에 도출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끊임없이 그 역할을 못할 것이고, 못해왔고,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거죠. 관료주의가 심각하게 되고 있고, 이 관료주의가 고도화된다는 얘기는 그들의 전문성을 예술가 개개인들이 아무리 소리쳐 외친다 해도 그 관료주의의 벽을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단문 몇 가지를 제기하는 거로는 해소 될 수 없는 지점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공공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규정하기 위해서 정부 예술가 그리고 시민이라는 세 주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이제 김종구 선생이 얘기하셨던 그 시의원이 되시려는 이 메시지는 사실 이 과정이 생략된 부분이긴 한데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통감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이 아까 이제 발제 예서는 시기에서 출연한 어원에 대해서 얘기 하셨는데 이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 영국에서 명예혁명의 후에 공화주의 발생을 통해서 퍼블릭이란 단어가 처음 이제 제시가 되고 거기서 퍼블릭 은 귀족 심의 왕정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서로의 세력들을 균등하게 견제하기 위한 누구나 그 자리에서 평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공이란 개념이 나왔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자유주의 관료주의 공화주의란 삼 체제로 사실 문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에는 이미 관료주의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더 이상 공화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화주의를 표방하면서 관료주의 시스템을 이미 굉장히 굳건하게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 세 주체 역할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아래 공이 평등 해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관료주의가 이 공화주의를 흥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 각종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시민과 전문가 집단들의 이야기를 청취하는 태도들을 표현하거나, 민간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 더 시민들의 의견들을 뭔가 수렴해서 위로 올리는 듯한 태도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에서 처음 하게 된 것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런 예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금 본원적인 제기들을 좀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 예를 들면 관료주의를 구성하는 청정 정부의 가능들 이것들을 계속 위임할 것이냐, 아니면 그가 자체도 공공의 영역에서 예술가들 스스로가 집단화 되어서 그 발언권을 획득하는 더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할 것이

만연한 폭력의 저항을 하는게 예술가들의 역할이었는데 공공미술이 우리나라 이제 두 번째 힘을 뚫아 줬어요? 아마 세 번째 힘이 될 때는 이러한 제도와 혹은 예술에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과 기획자들과 행정자들이 나타가를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면 눈높이가 달라지면 역할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바는 정부가 주도해서 혹은 기관이 주도해서 무언가를 하면 100퍼센트 망하게 돼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공공미술 하면 작가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해커들이라는 게 있었어요. 해커들은 재산이 컴퓨터 하나가 전부였던 프로그래머들이 조그마한 뉴욕의 창고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밥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거기에서 침낭 하나 깔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재밌는 문화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에서 비행기 타고 가서 보면서 '아 이런 걸 서울에서 해야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커톤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표, 호텔, 여비를 대줬습니다. 이게 아성에서 시작되는 것을 관공서의 예산을 태우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미술을 하고 결과 보고가 되는 전시사업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뭔가 지령이 내려서 그걸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느껴서 그걸 만들고 있으면 행정 하는 사람들이나 기획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이 잘 될 수 있는 판로를 다듬어 주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숙제를 주 잡아요? 어떤 기획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을 만들어서 지역을 지정해서 '뭔가를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져 있고 예술의 수준은 낮게 내려와 있으면 그걸 반겨주는 시스템은 부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공공 미술관에 있었을 때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박찬국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공공 미술만의 문제는 아니고 사실 한국의 문화의 대부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선 지금 시간 문제도 있으니깐 객석에서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는 아마 각자의 고민을 갖고 계시는 작가 기획자분들 오신 거 같은데 누구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김정희 선생님 어떡세요. 고민 많으실 거 같은데.

김정희

네 서울시민 김정희입니다. 그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을 그냥 저도 누군가는 들어주실 거라 생각 하고 얘기를 조금 하지만, 저도 상당기간 공공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왔는데, 문제의식은 그 공공의 삼 주체라고 아까 김종길 선생께서도 얘기하셨던 정부 예술과 시민 각각에 대해서 우리모두 다 그냥 기존에 생각하던 대로 계속 그 역할 대로 규정하는 것들을 해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대체로 제가 이제까지 들었던 건 예술가는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행정은 그 예술가들을 서포트 하는 역할, 시민들은 참여를 하거나, 시민에 대한 역할 규정은 뚜렷하게 없는데, 그 까닭은 현재 관과 예술과의 갈등들이 가장 노골화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계속 시종일관 발제에서도 들었는

도 하나는 95년이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던 건데, 김영삼 정부가 이때부터 지방정부 주도의 축제로 전환시키기 시작한 첫 년도가 95년이예요. 그러면서 10여년 사이에 축제를 시민들이 기획했던 시민 주도형 축제가 기획사 사업으로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에서 지원사업 형태로 사업들을 축제로 다 만들어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린 거예요. 좋은 정책이 아니고 민주주의 정책도 아닙니다. 이것은 탐 다운 방식의 공모나 정책이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방식이 아까 얘기한 공공, 땅을 잃었잖아요. 천재인 황제 중심의 공공성을 뒤바꿀 수 있는 방법은 시민들의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재 출발하는 방식으로 짜야 한다. 시민들이 타운 홀 미팅처럼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무엇이 있는 지부터 듣는 방식을 통해서 기획이 이반되고 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서포터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탁월한 기획자에게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 맡겨 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신은진

행정적인 부분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공공미술관을 회사하고 개인의 삶을 살아오면서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는 기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으로 영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고 있고, 특히 흰 여울 문화마을 가면 마음이 아파요. 그곳은 이미 다 망쳐졌습니다. 페인트를 다 붓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한 번 쓸고 지나간 흔적이 보이고, 앞에 피아크가 생기고 상권이 들어와서 아주 거대한 상권들이 형성되고 특히 지금 조선소들이 많이 버려져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논리고 들어오는 많은 우리의 공공미술 혹은 상권, 예술가들, 그걸 가지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치인들 등 되게 많은 이슈들이 거기서 만날 거 같은 전조를 느끼고 왔거든요. 천우이 감동고 있구나. 제가 생각하는 '공공'이라는 말이 얼마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말이라는 거를 요즘에 많이 하게 됩니다. 얼마나 수준들을 낮게 보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90년대, 2000년대에 미술의 역할들과 시민들의 미술을 대하는 눈높이와 지금의 눈높이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방식은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공공미술 공공사업에서, 지금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미술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리액션을 하게 되어있어요. 왜냐면 보통 예술로 해서 개화를 시킨다는 접근방식, 미화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지금의 시민들의 미적감각이나 수준들은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되려 예술과 공공제도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까진 모두다 하향 평준화를 해왔어요. '미술이 내려와 눈높이를 맞춰라' '예술이 눈높이를 맞추고 시민들과 함께 해서 다같이 손을 잡고 예술을 잡자' 이런 취지였다고 하면, 우리 나라 예술은 엘리트화 돼 보지도 못하고 공공의 발목 잡아서 오도기도 하지 못하는 그 위치라고 생각해요. 엘리트화가 돼서 잘 되고,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예술가들이 신생공간을 하게 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게 일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을 받았으니까 사회에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미술은 예전부터 가진 역할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회 봉사를 하는게 아니라 사회에 구멍을 내고 돌을 던지고 시스템에게 저항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일상의

그런 것들이 시후적으로 예술가들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그런 것들에 가서 활동을 한다는데 사실 이런 돈을 오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미술활동 같지 않고, 정치적이 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치열하게 자기 삶을 타기 취미를 산다는 측면에서 그 매우 정치적인 걸 수도 있어서 그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연대의 힘은 없어요. 그런 학습을 받아 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억들이 좀 오래되기도 했고 다 같이 뭐 물론 숭분이 있었지만, 시민의 입지의 다같이 광장이 나가서 숭분 같은 걸 들어본 그런 경험들이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예술가들이 스스로 의 자리에서 생활을 토대로한 아까 잡하지 않는 다 표현했는데, 문제는 그걸 계속 잡으려는 그 제도적인 관성, 교활한 관성이 문제 야. 제가 몇 년 전에 영등포 문화재단에서 아주 귀한 청년을 뽑았 어요. 조규현이라고 아버의 아버가 된다 23세 융점공이고, 치매 걸린 아버를 돌보는 그 친구가 청년이면서, 아버를 돌보면서 예술 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저기 불러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넓게 물론 그 개인이 심약한 걸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원에도 있죠. 박임제씨. 너무 훌륭하고 연세도 있고 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여기 저기서 정치적 지원을 해주거나, 방송 에 나오거나, 내지는 여기저기서 불러 줌으로써 본인의 활동은 조금 못하고 오히려 대외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것, 자기의 문제가 자꾸 시선의 바깥으로 향했을 때 벌어진 문제는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찬국

예술가나 기획자의 역할이 자기 작업 보다도 그런 훌륭한 지점을 포착하고 다니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공공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단 민주주의나 혹은 여러 가지 시민참여나 뭐 이런 제도들 이런 것들 이 여러가지로 그 한계에 봉착해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방에 어떻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시의원을 하는 프로젝트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만은 그런 것도 재밌을 거 같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한국에서 권력의 문제 나갈 관료 주의의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 전체가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환기해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들립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청중1

결국은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잡아요? 돈이 나오는 데로 끌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예술가들이 스스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예술가들을 지명이 라고 생각해요. 멋있는 말로는 토포. 벚은 흙을 갖다가 작용으로 소화해서 똥으로 내냈는데 그 똥이 살리는 똥이 되죠. 결국은 이제 땅이 돼서 사리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 움직일 때는 자기 주체적으로 되게 많이 살아요. 그게 사람들이 보고 있는, 우리가 다 나쁘게 얘기하는 벽화마을이나, 어떤 동네에 카페들을 예술가 들이 들어가면 살려 놓거든요. 자기 기술을 살려서. 자기 집을 이쁘게 그렸어. 카페라 하는데 미왕이면 예쁘게 가게세가 썼어. 근데 이게 월세가 썼어. 그 동네에 들어가 살거든요. 되게 퇴락하 고 안 좋은 저지대에 예술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술가도 두 그룹이 있어요. 돈이 많아서 부모님은 잘 만나서 그 파인 아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생계를 같이 유지하면서 아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국가가 보니까 예뻐. 저걸 크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공공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시에다 돈을 갖다가 몇 십억 몇 백억을 집어넣으면 도시가 확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속되지 못한 상태 속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술과 지역과 여러가지가 만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정책과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예술가와 그리고 똥가를 빨리 버리는 시민 들이 만나 가지고 이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가운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몇 벚 뚝다 보니까 시민들 눈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공 이란 단어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 예술가들은 어렸나 하는 생각들 이 가끔 들더라구요. 너무 쉽게 가진 않았나 그러니까 이미 한번에 성공했던 포맷을 다시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공공이라는 걸 볼 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 준 사람은 돈을 주는 것 같다 원하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메이면 그에게 뉘러 기계가 되어 있으니까 예술은 약간 거기에서 좀 멀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속성하고 성속된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이 아직은 안된 것 같아 가지고, 아까 김종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개념에 대한 준비들을 예술가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아까 언젠 쏘셨던 분이 의원으로 나와서, 예술은 결과를 길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들 이 좀 잘 풀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들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박찬국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도 아주 좋았고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똥가를 해 보면 재밌겠다. 이런식으로요.

신은진

월세 이야기에 대한 제목을 조금 선정적으로 지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수동적인 존재로 쫓겨 다녀야 되는 예술가들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시간이 주어져야 된 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가 그 2016년 그 당시 2014년부터 그 청년 작가들에게서 계속 분출되었던 어떤 불안 혹은 사회적인 요구 자체가 그 당시에 좋은 기회에 수렴이 돼서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제도의 변화였고, 그 월세를 준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버릴 수 있는 인큐베이션이 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사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여 주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있어 서울 서울문화재단에서 계속 한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었던 시각 창작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서를 기획서를 써서 전시를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와서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하는 결과 발표 정도의 그런 포맷을 요구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전시를 마땅하게 시작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지금의 청년작가에게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을 저희가 시립미술관 안에서도 신진작가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정도 한계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신진 작가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을 한 10년을 했더니 신진 작가가 그가 28명씩을 뽑았었는데 그 28명을 뽑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서 그거를 이제 10명으로 15명으로 줄이고 10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인 그 원론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소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가 점점 작아 진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접근을 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이 수많은 미대를 졸업한 학생 중에 작가를 꿈꾸 수 있는 여건이 되거나 혹은 지금 작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작다 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런 결정을 하는 단계의 작가들이 깨닫기 때문이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으로 인해서 작가들이 조금 버텨 줄 수 있는 시간을 유예를 할 수 있게 하는게 저는 사실은 가장 중 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월세, 제가 창작 공간 지원 프로그램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건데 너무 제가 작가들을 기난 기난에 찌든 자를 뭐 어떻 게 표현을 만약에 느끼게 했다면 그건 제 잘못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박찬국

혹시 고영직 선생님 말씀하실 게 있으세요?

고영직

오늘 저는 모니터링을 와서 마이크를 잡으면 안되는데, 발표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김정민 선생 그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15년 전에 그런 발언을 썼더라구요. '이제 더 이상 열사봉공 이 아니라 열공봉사를 하지'라는 얘기를 2006년도 인가에 주장을 했습니다. 또 문화백수 10만명 정도를 양성하지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때 폐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열사봉공이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 나 공공이라는 의미에서 짓눌려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공공미술이나 공공예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른 바 공격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어떤 압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개인의 취향이나 취미가 관심이 사회적인 전시성 을 띄고, 급진적이고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좀 모색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김월식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야생성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착한 예술을 우리가 많이 해본 것은 아닌가, 예술가 집단 내부에서 이 자성의 모습을 더 많이 필요한 같습니다. 정치적인 욕망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욕망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발언도 하고 실제 그 잉글즈 먼트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까 퍼블릭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퍼블릭의 의미가 공화주의라고 할 때 및 리퍼블릭이잖아요. 끊임없이 퍼블릭을 다시 돌리는 '리'에다가 퍼블릭의 하이퍼를 연구혁명의 그런 측면 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신은진 선생님 발제를 들으면서 수많은 광역 문화재단들이 있는데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사업이 사실은 공간지원 사업이에요. 임대료 지원사업 이고 그런데 왜 이걸 안 할까? 각 기관들은 왜 안 할까? 를 좀 생각해야 되고 거기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양천구 영천 문화재단에서 올해 이제 이 주 축들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공간지원 사업이거든요. 임대료 지원사업이요. 매달 60만 원 정도 10개월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맡은 담당자가 구의회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문화재단들이 임대료 지원사업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사적인 공간에 공격 자금을 왜 주느냐 이 방어를 못 하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그 전까지의 어떤 상투적인 어떤 대응 말고 다른 차원의 어떤 언어나 대응 논리 같은 것도 좀 필요하 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국

저는 이 얘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저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는데 그래도 좀 활동을 많이 해온 또 경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 지 저는 비교적 스스로는 관하고 좀 관계를 맺 열었으면서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정도 호감 을 갖고 있거나 지지를 해주는 프로젝트들은 보면 대부분 누군가 가 지원했던 사업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리고 현재 지금 옥상 에서 제가 상당히 긴 시간 8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스스로 삶 자체를 어떻게 매개할까 하는 그것을 내가 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고 직접적으 로 관계되는 살면서 관계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것들로 확장 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가지 조건들 특히 이제 관료적 조건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프로젝트 전체가 계속 어 칠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직 선생님이 리퍼블릭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작가들의 문제다. 작가들의 어떻게 보면 기난해도 기난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지 왜 잘 안 했느냐 하는 이러한 분위기도 좀 있고 그리고 똥가 이렇게 지원을 받지 않고 하지 왜 그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돌려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 해볼 문제 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권력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사업이든 활동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김월식 작가님 얘기한 것 중에 시간의 문제 얘기를 했는데 똥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거의 리서치나 들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생각했어요. 거의 4개월 동안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똥가를 많이 만들어내는 시간이기 보다는 오히려 듣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변호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끊어 버리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트러블 안에서 계속 나가야 된다면 똥 가 왜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게 좀 마무리에 가까우니까 요즘 계속 생각이 드는 것은 일종의 국가 기능이 너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기관의 기능도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를 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라고 하는 얘기가 지나치게 비대에 지고 시민이라고 하는 영역 자체가 갈수록 축소되고 공공과 시민과 관계만 어떻게 계속 설정 이 되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재설정에 시간, 재설정 은 지금까지 하고 다르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지금 어떻게 재설정 돼야 되나 이런 논의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그 마무리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꼭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김도영

지방 정부 올해로 딱 26년 차가 됐거든요. 지방 정부의 꿈은 정치인들에 의한 정치를 내려놓자는 게 지방정부의 시작이었는데 여전히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시민정치 예술 정치 이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 세기는 집단이나 공동 운동의 시대를 우리가 관통해 왔는데, 우리 가 촛불에서 봤듯이 개인들의 연대를 통한 운동이 필요한 시간이 다. 그니까 다시 새로운 운동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운동을 통해서 시민 예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도 저는 시의원을 권력의 주체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이나 혹은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그래야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강연 발표 있지 않고 새로운 시대로 변화시키고 바꾸려면 그 힘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평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토론회와 철학과 상설과 눈물만 남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제 그만 해야 할 필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은진

저는 김종길 선생님과 완전 반대의 관점에 말씀을 드리자면 각자 도생의 길이 필요하다. 시간과 그리고 이제 각자의 생각을 해볼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제 공공이란 이름으로 너무 많이 어떻게 무언가 의제들을 함께 따라다니다 보면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고 권력이 되고 어떤 정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시대를 지나 왔고 지금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정은 또 너무나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스스로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는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개인적인 역량이 모여서 다시 빛을 발하는 시기는 다시 근 10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특권이 강한 시간을 너무 가져왔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 미술은 미술 관으로 공연은 공연장으로 영화는 영화관으로 돌아가서 미술공공 길에 있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본질적인 것을 다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게 또 맡겨 보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식

즐겁고 가슴 뛰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김윤식 선생님 발표 후에 살짝 뛰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은진 선생도 계속해서 제가 잠깐 드리는 말씀은 몇 전에 '힐곡 기시네'가 세상에 감동을 주면서 모든 지지체에서 할머니들에게 시를 쓰라는 거죠? 왜 편히 서사를 풀이며 평생 살아오신 그걸 토해내리면서 그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발상은 누가 하는 건가요? 그게 지금 공공정책 공공미술처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것에 대한 좀 자극적인 문제 있고 지제한 것도 있고 예술가들을 너무 안쓰럽게 보지 마세요. 편합니다. 저도 살만 하니까 욕먹고 그러는 거니까.

고윤정

저는 그냥 제 반성을 합니다. 예술가들 최근 계속 예술가들 만나 적인지 동지 인지 모르겠다는 생각들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지이고 어떤 분은 적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까 그 도시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과 만나면 고민들이 많이 들었던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해야 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더 많이 들어서 좀 더 많이 같이 이야기하고 논의해 나가면서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는 행정이나 시민영역에 있는 분들과 도 공공 예술, 공공미술에 대해서 화두를 꺼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토론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같이 고민한 지역이 있으면 전국차원에서 같이 읽어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 부담은 공공 예술 하면서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의원한테 상심 페이지를 썼습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어떤 결과물로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같이 함께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는 시기를 지금 이런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앞으로 많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민인복

처음에는 좀 재미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주 답답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하는 건 없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망설였는데 그래도 해야겠다고 감자기 생각이 들어서 예술가 혹은 예술인들이 예술 인이기 전에 시민으로서 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민 예술인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사고하는 영역 안에서 예술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게 먼저 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박찬국

장시간에 토론을 많이 진행했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제기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제기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얘기하고, 듣고, 그리고 그 새롭게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아마도 지금도 올해 해보니까 공공미술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은 공공미술만의 얘기가 아니라, 시민의 레벨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의 이비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만남

2021.07.15.(목)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경기도청주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업무회의, 장소: 도시재생현장지원
센터, 참가자: 6명 (예술감독, 지속가능도시재단, 센터 담당자 등).
내용: 지속가능도시재단 사업 공유 협업체계 구축 관련 논의



2021.07.15.(목)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1차작가) 미팅
장소: 재단2층 회의실, 참가자: 5명 (예술감독, 작가, 센터담당자 등),
내용: 전시관련 참여여부 확정, 참여조건 확인, 프로젝트 내용공유



2021.07.29.(목) 도시총:동 예술총:동 기록생산자 1차 회의
장소: 재단2층 회의실, 참가자: 8명 (예술감독, 작가, 센터담당자 등),
내용: 리서치프로젝트 관련 참여여부 확정, 참여조건 확인,
프로젝트 내용공유



2021.08.03.(화) PM4:00 의자디자이너 협의,
참가자: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예술감독 박찬국, 시민문화팀
한예지, 프로젝트매니저 이예진



예술감독 박찬국 공간에 따라서 작업이 배치될 예정인데 그 장소에서 일종의 영상이 든 텍스트든 보고 듣게 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장소에 굉장히 좀 상징적이고 이 프로젝트를 직관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의자'를 상징으로 본 겁니다. 시민들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발언할 수도 있고 주도적으로(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좌 같은 개념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에서 그냥 그런 헤게모니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일종의 뭐 문화권이라든 민주주의랄까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문화도시니 이런 얘기 안에 그리고 뒤에 다 그게 숨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자를 통해서 (그 의자는) 편안한 의자일 수도 있고 상당히 그 의자에 앉는 순간 특별한 느낌이 나오는 그런 뭔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장소마다 페어 정도의, 열 개니까 한 20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분명하게 약간 디자인적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색깔이 있거나 형태가 분명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오늘 그런 것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네
예술감독 박찬국 디자이너님께서 작업을 의뢰받아서 수행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조금 더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작가로서 배역에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작가로서 이제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거니까 형태에 대한 거나 재질에 대한 거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아요.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가지고(웃음) 지금 일단은 어쨌든 기능적으로 편안한 의자여야 되는 상태여서 쉽지가 않네요.

예술감독 박찬국 그러면 좋지 않을까. 어쨌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거기에 앉아서 10여 분 이상 머무른다고 했을 때 환대받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좋지 않을까라고 본 거예요.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한 공간에 두 개를 놓으실 생각이신가요?

예술감독 박찬국 그래야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혼자 하면 나머지가 너무 소외되니까요.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최소 수량이 20개인 거네요?

시민문화팀 한예지 전시장소가 10개 스타마다 보니까요. 그게 어디에 어떻게 전시 장소가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장소는 아닌 교동인데 분포된 장소인 거죠.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목재 선택에 있어서도 기존에 공방에서 만들던 거 같은 목재를 사용하면 비용은 이제 너무 많이 심해져서

저렴한 목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느끼게 되는 곁은 사실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체가 좀 저렴한 걸로 바꿔었을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가 되려면 고민을 또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재가 아닌 소재를 같이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시간적으로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쪽은 사실 또 제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알아보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완전히 목재로 막 되게 편안하고...

예술감독 박찬국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완전히 목재로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작가주의가 투영된 그런 것에 대한 필요를 충족하는 (의지가 완성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그 주제가 전체 물루우에서 핵심 키워드가 흥미로운 전달자거든요. 그니까 흥미롭다라는 거는 (프로젝트에서) 다크, 문제 제기 이런 것을 단순하게 사실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흥미롭게 할 거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요...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표면적으로는 의자라는 아이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술감독 박찬국 좋겠다고 본 거죠. 그래서 작가님이 지전 거 안장 같은 것도 이용하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를 좀 참조해서 그런 것(작가주의가 투영된 작품)을 제안해주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진짜 일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어떤 장소에서 나온 재료들로만 작업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반드시 좋은 재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작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요. 고민을 좀 해볼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물어야 할지, 어떻게 했을 때 또 그런 어떤 효과들이 나올지요. 지금 또 제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작업을 하면 그냥 제품이 돼버리니까 고민되는 부분이 있죠. 좀 고민할 시간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혹시 '어딘가에서 나온 재료를 쓸 수 있다.'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혹시 갖고 계신 장소나 팀이 있으신가요?

예술감독 박찬국 예를 들면 이런 좀 전혀 다른 건데 2019년에 내가 문화비축기지에서 예술감독을 했었어요. 그때는 서울에 있는 창위동이라고 지금 교회에 아직도 철거 안 되고 있죠. 그 동네. 그 동네가 철거를 시작한 지가 꽤 돼요. 집이 다 이제 철거한 상태로 있는데 일요일 날 물레 3주에 걸쳐서 스며 들어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문밖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떼어냈어요. 그래서 그걸로 작가들도 많이 참여하고 시민들하고도 만들고 이렇게 엄청 많은 가구를 만들었어요. 그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가구를 의자부터 시작해서 뭐 다 같이 만들었거든요. 끝나고는 만든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필요한 사람한테 분배를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재료들은 대부분 문밖이 많았고 나무들이나 뭐 특별한 것들, 식물들 뭐 이런 걸 또 이제 버려져 있는 것들을 다 갖다가 활용하고 농 이런 데서 나온 사람 이렇게 확보가 되고 했어요. 그런데 문밖이나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내구성이 센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낫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쉽게 부서지거나 하는 재료를 좀 골랐죠. 원목으로 돼 있는 걸 주로 고르긴 했어요. 뭐 여기서 보면 주위에 집들 다 이렇게 싸 놓고 있다고(재개발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는 그 안에 보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쓰던 의자나 가구나

이런 걸로 그걸 와서 루선만 새로 만든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는 같아요. 뭐 그런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자면 벤치처럼 이렇게 그냥 평면이 등받이 없이 이런 걸로 하려면 훨씬 더 흥미로운 거 많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등받이가 있는 제대로 된 의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구디자이너 장영환 네 업사이클링에는 좀 익숙하신 거네요. 그런 거 많이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다른 물건으로 만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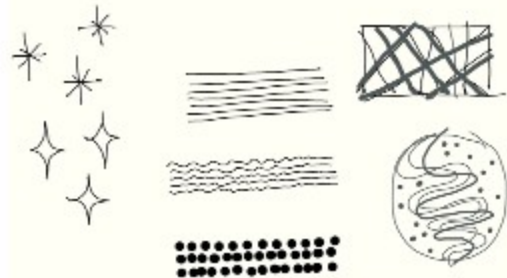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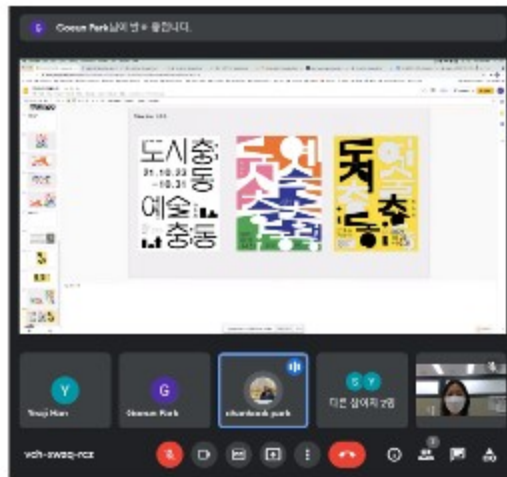
예술감독 박찬국 레이아웃 하나 더 쌓이니까. 나름 또 재미 있을 수도 있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의자가 상징하기 좋게 하려면 모듈이 너무 복잡하면 만들기 너무 힘들니까 나머지는 다 (디자이너님이) 만들지만 등받이의 어떤 부분만 그런 재료(업사이클링)를 뜯어와서 원형을 만든다든지 어떤 형태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만 돼도 이야기기 훨씬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자디자이너 장영환 네 알겠습니다.

2021.08.09.(월) 도시총:동 예술총:동 기록생산자 2차 회의,
장소: 수원문화재단, 참가자: 7명(작가,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내용: 프로젝트 내 기록생산자 진행 방향 논의



2021.08.10.(화) 키비주얼 1차 시안 미팅, 장소: ZOOM
참가자: 5명(디자이너,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프로젝트 키비주얼 방향 협의



무늬내용이런것들기.

2021.08.10.(화) 도시총:통 예술총:통 기록생산자 2차 회의
장소: ZOOM, 참가자: 7명 (기록생산자,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기록생산자 작업 진행 현황 중간 공유
[작업 진행 내용]



작가 김형아(선택하지 못한 서문) 수원의 도시가 개발되기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계획한 지도들을 모으는 상황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내년도 프로젝트
가 있다고 예상한다면 서문 형식으로 여는 자료조사를 하고 싶다.

예술감독 박찬국 도시계획상의 변화는 훨씬 다른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 초점을 어느 지역으로 제한하면 조금 더 사람들이
잘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서수원 지역은 변화가 적을 수 있
나 변화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

현재의 방향이 수원의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드러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심사를 반영
하는지 즉 비평적인 논의를 만들어낸다고 보고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작가님께서는 추후에 변화가 되더라도 결과물이 나왔을 때
어떻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작가 김형아(선택하지 못한 서문) 도시총등단 리서치데이
블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비평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 수원의
정체성을 원하지만 대도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림에
도 불구하고 수원이라는 것을 되뇌이시고, 그것에 대한 서문
(그분들의 이야기)를 내고 싶었다. '그것은 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레이어를 보여주고 싶다.

예술감독 박찬국 김형아작가님의 주제는 충분히 두 가지의
의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리서치 한 것을 편집을 잘 하는 것
만으로도 그것 안에서 미시적인 내용을 통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가 박김형준 흑시물리서 비행기 소음 관련 스케치내용을
전달되었고, 서수원 길기자료 항공동, 영동, 광고의 신도시에 집중된
문화적 컨텍스트, 관심도 등과 달리 서수원의 상황을 보려고 했다.
걸으면서 스케치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 큰 길 5개 그 중 둘씩 2개
황구지친, 서호천 으로 진행. 3개는 수원역 주변 3개. 탈방 중.
그다음 비행기 소음은 녹취한 결과 똑같다. 감독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비행기 소음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기명
인터뷰를 리서치에 소개할 예정이다.

예술감독 박찬국 보내주신 파일과 인터넷을 보니 소송도 있
고 소음지도를 제작한 것도 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학교에서는
또는 아파트에서는 그런 시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담요를
해본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살 수 밖에 없는 이유 등을

스케치하며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읽힐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많은 베후에 읽힌 문제들을... 논점이 정직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어떤 지점을 더 보여줄까?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작가 류승진 서수원 원곡수원중 번티마을에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원격으로 듣는 소리여서 매우 크다. 항공동에서도
들리는데 약하게 들린다. 어느 지역이나(수원 내에서 동시간대)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동네에 좀더 접촉했을 때 다같이 들리는
장면이 포착되면 재미있을 것 같다.

윤혁피디님은 많이 촬영을 진행하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항공동 공사가 3-4군데 진행 중이다. 전트립리케이션을 열어보니
놀라웠다. 2013년 항공동을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초기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웠다. 항공동 존재인피지의 경우 생태교통사무실
이 있던 공간이다. 그 건물주가 임대료를 안받고 1-2년 존속할 수
있도록 수행. 그러나 그 흔적이 지금은 사라졌다.

작업을 진행하며 장안공원이 복원과 함께 조성된 공간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치와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장안공원은 유세도 하고 연설도 하는 정치공간이기도 했다.
화성항공 광장이 생기기 전 어떤 축제의 시작이 장안공원이었다.
현재는 유휴공간처럼 느껴진다.

예술감독 박찬국 공원을 하루만 영상찍는 것은 좋으나
하루가 요일마다 다르거나 하는 경우에 대한 리서치가 필요할 수
있다. 그 하루가 언제일지 판단하면 좋을 듯. 서울 같은 경우도
달문, 중요 등 노인들이 각종 사운드를 다 가져와서 놓던 곳을
기념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 등의 이야기가 있다. 문화적인 민
비슷하게 흑인키세트 같은 것 들고 나오는 것처럼 놓던 광장이
불처럼 생기고 했는데 어떤 지점에서 수원이 그렇게 있는지 혹은
없는지...

작가 윤영욱 장안공원 관련해서 수문재(수원문화재단)
모였을 때 공원의 성격이 코로나 전후로 매우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 코로나 이전에는 축제 관련 행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소리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었는데 코로나기점으로 활동이 제한되었다.
오기면서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다니지만, 장안공원 성문쪽에
노인분들 많이 앉으시는데 여전히 음악을 공유하고있다.(웃음)
여전히 정서가 남아있나? 코로나 이전의 흔적이 남아있나?

예술감독 박찬국 연령대에 따라 문화의 소비방식이 매우
다르다. 그 중 70대와 60대는 매우 차이가 난다고 한다. 주로 어떤
장소에서 모이는지 벤치, 그늘 등 그런 조건이 영상에서 드러나면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의도는 문화적인 것이더라도
작가들이 도시적 공간의 관점에서 퍼니처 등을 통해 흥미롭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작가 윤영욱 장안공원을 가로지르는 화성열차가 의미한
장면 중 하나이다.(웃음) 기록되면 재미있겠다. 공원은 시민의
공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의 삶을 방해하는 공원의
상식을 깨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작가 박김형준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관광지를 돌아봤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그런거다.(웃음) 한번 돌아봤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화성의 포인트를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

작가 김형아 개인적으로 재미있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많은데 처음 수원에 이사 와서 왔을 때는 견은건 4시간이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실제로 관광과 공무원과 이야기
를 했을 때 수익과 반응이 좋은 것이었다.

작가 윤영욱 화성둘레를 돌고 교동을 들어가는 계획이
있다가 철회됐다(웃음) 사실 안좋다는 것이 도보로 걸어 4시간

걸린다고 하시지만 자전거도 활용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활용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전 (화성열차)디자인의 용의 경우 증극스럽다고해서 현재
는 고체가 됐다. 전기차의 경우 오르막을 걷지 못하는 효율 때문에
못한다고 한다. 관광객 위주로 도시가 운영되는 부분이 의문스럽다.
상업적인 관점으로 보인다.

전트립리케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다. 항공
동이 세입자비율이 높다보니 결정권을 내기 어렵다. 2013년 생태
프로젝트를 하며 현재까지 변화의 속도가 꽤 갑작스럽다는 느낀
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정책으로 만들었고 그게 항공동
또는 수원에서 예술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멈추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트립리케이션에 이비지하는 느낌 때문에...

작가 김형아 동의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도 어떻게까지
전트립리케이션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굉장히 환경이 깨끗
해진 것은 맞다. 짐이 오래되어서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 등에
대해서 소외되긴 했던 것 같다. 적당한 시간에 천천히 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이전에 행정중심지였다가 빠져나가며... 방석집들
이 매우 많았고... 마을사람들은 좀 더 깨끗해지고 좋지 않은지?

작가 윤영욱 저는 생각이 다르게 관광화의 목적은 주거
공간의 개선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으로 이사하며 어마
어마한 집을 많이 봤지만 의견이 조금 다르다.

예술감독 박찬국 돈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 자체가
변화하기 쉽지 않다. 어떤 지점을 지나는 것이 포기하기 힘든 지점인
것 같다.

작가 현지윤 저는 세대별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수원의
인상을 취합한다.

비대면과 대면의 이야기를 이미지파일은 제작 중. 몇 분
인터뷰를 해보니 개인사, 환경에 따른 영향 그리고 지역사가 자연
스럽게 담기게되었다. 수원에 대한 문제가 긍정적인 측면 들이
드러났다. 의제 2가지가 자연스럽게 미시적인 주제로 나올 것 같다.
인원수의 제한 없이 계속 모집 중 이런 기능을 사용할 줄 모르는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다. 웹상에서
전단지처럼 보여지면 재미있을 것 같다. 20~70대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있고 개인의 취향,개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를 그 안에서 4개 정도의
의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술감독 박찬국 나중에 결과물로서 어떻게 나올 것인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영상이 키치하고 재미지만 대부분 너무 상투
적이고 이상한 홍보같은 느낌이 내용과 언밸런스하다면 재미있을
것 같다. 그러나 비평적으로 찌르는 느낌이 없다면 공허한 이미지
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드실지가
궁금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서치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아티스트 관점만으로 보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다. 이번에
작가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아티스트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소나 사람이나 리서치 기반이 명확히 드러나
는 것이 더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작가 현지윤 세대별로 듣고 싶은 질문지를 나눠서 진행
하도록 하겠다.

예술감독 박찬국 여러 세대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지만
좁혀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작가 윤영욱 두 가지 의제 중 재개발 예정지 풍경기록, 녹지

혹은 공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장안 112-3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있고 4일정도 계속 가고 있다. 이미지 채집 중이다.

녹지화된 공유지의 경우 녹지는 많이 보이는데 공유지에 대한 범위에 대해 고민을 하게되었고, 화성형궁 앞 네모난 나무 등은 관리되는 생태인(민간이 정지하고, 개입하고, 만들 수 있는) 반면 재개발 구역을 가서 관리되지 않는 자연을 보니 흥미로웠다. 공유지에서의 녹지라는 관점은 계속 충돌하는 것 같다.

예술감독 박찬국 흥미로운 주제인데 지역이 조금 더 선택 되었으면 함.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예정지라던가 방치해버린 유예되거나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등 고민이 필요하다.

수정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지 모르겠지만 기호수를 상었을 때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도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플라타너스나무는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 박정희시대에 심었다. 현재는 너무 빨리 자라니까 쳐내는 그런 상황이다.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겹쳐진 것으로 보인다. 은행나무에 대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는 은행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하곤 한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다.

이번 기회에 그것을 찾아내기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람들과 자연의 관계라던가 관공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작동하는 것. 집중된 지역에서 진행해야 메시지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감독 박찬국 작가님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이후에 창작하시는 작가님들이 있다. 자료를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데 문제의식이나 하는 내용 등을 공유하고,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8월 말까지 꼭 하지 않으셔도, 결과적으로 추고자하는 메시지나 완성도가 함께 올라가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더 가지셔도 좋다. 그러나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진행 중인지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주제나 문제의식은 서로 도움이 될 것이다.

2021.08.24.(화) 도시충:동 예술충:동 작가(RBSC) 미팅
장소 : DRP, 참가자 : 작가 라이브루잉시스터즈클럽,
예술감독 박찬국, 프로젝트매니저 이예진, 내용 : 프로젝트 내용 전달, 프로젝트 작업 관련된 세부사항 논의



2021.08.26.(목) 키비주얼 2차 시안 공유



2021.08.26.(목) 수원문화재단 미팅, 장소 : 수원문화재단,
참가자 : 3명(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이예진, 내용 : 프로젝트 진행사항 공유, 프로젝트 참여 작가 관련 논의



2021.08.26.(목) 의자디자이너 미팅 2차, 장소 : 점점우드워크,
참가자 : 4명 (의자디자이너,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 의자 디자인 관련 논의

디자이너 의견: 일상적인 재료를 사용해볼까 고민 중이나 재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음
예술감독 의견: 흔들의자 같은 것도 좋을 것. 교통의 분위기를 살리고, 눈에 띄는 것이었으면 함
공통의견: 보편적인 재료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디자인 (형태)가 구상된 이후 재료를 생각하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듯.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추가 내용: 스케치나 컨셉이 나올 경우 언제든지 프로젝트 매니저에게 전달을 부탁
피드백을 최대한 빠르게 줄 수 있도록 할 예정

2021.08.31.(화) 키비주얼 3차 시안 공유, 참가자 : 5명
(디자이너, 예술감독 등), 내용 : 프로젝트 키비주얼 3차시안 공유



2021.08.26.(목) 키비주얼 최종 시안 공유, 참가자 : 5명
(디자이너, 예술감독 등), 내용 : 프로젝트 키비주얼 최종시안 공유



2021.09.02.(목) 흥미로운전달자 미팅_RBSC, 준박&최라운
참가자 : 5명(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 오프라인 영토 현장답사



210907_의자디자이너_디자인 및 내용 전달



2021.09.08.(수) 도시충:동 예술충:동 작가 전체 회의,
장소 : ZOOM, 참가자 : 14명 (작가,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 프로젝트 질의응답 및 작업관련 논의



[리서치 작가와 작품의 연관성]

흥미로운전달자1 질문하게 정말 많다.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리서치 작가의 인포메이션을 작품에 적용해야하는지?

예술감독 이번 전시 자체는 인포메이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로컬의 성격을 짚어보는 의미가 있어서 리서치를 설정해보았다. 완전히 현장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 현장을 결부시켜 이야기해보자는 취지이다. 리서치 내용은 참고하여 작업을 진행하거나 페어로 작업을 하거나 혹은 리서치에서 나온 힌트를 질문하거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결국엔 본인이 관심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된다. 작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을 현장에 설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록되어 2차적으로 교통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현재 미팅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디자이너와 전시 장소에 설치될 의자를 디자인 중이며 페어로 한 장소에 두 개씩 의자를 두려고 하는 중이다.

[오프라인 영토의 위치선정 이유]

흥미로운전달자2 수원이 사이트(site)가 넓기 때문에 사이트에 따른 여러 맥락이 있다. 따라서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물질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교통으로 간다는 것이 애매하다고 느낀다.

예술감독 애매함이 컨셉이다. (웃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사를 2차적으로 소개를 하자. 주어진 조건이 너무 짧고 열악하고 만남이 어렵다보니, 또 수원과 관련된 작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관심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를 중요하게 보았다. 그렇다면 '넓은' 장소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전시는 일단은 수원이라는 것이 어떤 맥락이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카이브적 성격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흘러져있는 맥락을 웹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웹은 너무 한층적이거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해본 것이 교통이다. 교통에 특별한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의 사람들이나 가게들을 만나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전시장소로는 식당이나 카페를 제외할 것 같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조금 더 비평적인 사람들을 만나 (토크, 세미나)자리를 마련할 생각도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이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기 때문이다. 교통 자체에는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않을까 생각이 든다.

흥미로운전달자2 수원의 공공미술에 비평을 많이 한 사람이어서 교통에서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컨셉을 해친다고 생각한다. 문화도시의 수단 중 하나로 쓰이는 것처럼 생각이 틀기 때문이다. 자주 교통이라는 장소성이 걸린다.

예술감독 나름대로 가서 해보고 모이다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웃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의식은 매우 많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문화도시로 출발하던, 무엇으로 출발하던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창작대가 지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흥미로운전달자2 미술창작대가 지급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꾸준히 생각해왔다. 정산 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시민문화팀 담당자 재료비 선급이 나가게되면 정산은 100%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선급이 아닌 상태에서 현재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진행하도록 하겠다. 예술인 표준계약서 양식과 내용을 따르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 듯 하다.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반영하여 정산 방식에 변화를 주도해 하겠다.

예술감독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민주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의미있는 일 아닌가 싶다.

[오프라인 영토 설치]

흥미로운전달자3 평강동 광장에서 무언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 바닥에 구멍을 뚫는다거나 전기를 끌어오는 과정에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재단에서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예술감독, 시민문화팀 담당자 당연히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보조를 할 예정이다.

흥미로운전달자4 작품 설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시민문화팀 담당자 '아트블라켓'이라는 업체가 작품 설치를 도와 예정이다. 어떤 작품이 어디에 설치될지 구체화되면 요구 사항들을 취합하여 팀과 협의하고 가능한 부분, 불가능한 부분을 정하여 교통 일대에서 진행 할 예정이다.

흥미로운전달자2 공공미술은 프로젝트가 아닌 수행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되는 작업이 많다. 그 경우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공공미술을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단순한 작품 설치가 아니라 작가들을 위해 다른 것을 어떻게 보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시민문화팀 담당자 공공예술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러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나가기로 노력하겠다.

[작품 계획]

예술감독 수원의 인쇄공복에 어떤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

흥미로운전달자1 인쇄공복에 대한 역사를 읽다 보니 관심이 생겼다. 하지만 꼭 작품을 그것으로 할지는 모르겠다.

예술감독 관심을 잘 알고 수원도 디아스포라 같은 문물이 많고, 토론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 수원을 잘 아는 작가와 함께 콜라보하니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전달자1 토론도 이야기와 섞이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30년을 넘게 살았는데도 한국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다.

예술감독 흥미로운전달자4도 작품을 소개해주셨으면 좋겠다.

흥미로운전달자4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점자블록에 대해 조사하고 고발하는 듯한 내용의 작업을 했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으로 수원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을 만나고 접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공공기관 쪽에서 접촉을 어려워해서 프로그램이 멈춰있고 개인적인 소개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때문에 곤란한 상태이다. 결국 기관을 통해서 만나는 시도는 실패했다.

도시공동단에 참여하신 관련 업계 종사자와 통화를 했으나 만나는 부분이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셨다. 예술작품에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분야라면 모르겠지만 찾기 힘들며 이익이 없는 것에 인터뷰 등을 부탁하는 것이 불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 현재는 점자도서관 쪽으로 알게 된 분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술감독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흥미로운전달자4 이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고려 중이다.

예술감독 흥미로운전달자3은 생각해놓은 장소가 있는지 궁금하다

흥미로운전달자3 평강동 광장에 놀이터를 만들까 한다.

예술감독 리서치가 중 한 분의 장애인권원 취재 내용이 있는데 참고해도 좋을 것 같다.

흥미로운전달자5 리서치 작가님 한 분의 관심이 많이 걸린다. 협업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예술감독 리서치가로서 임무는 끝났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다.

프로젝트매니저 컨택을 원하신다면 두 작가님을 연결드릴 수 있다.

흥미로운전달자 개인적인 수원 이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했다. 너무 다양한 이주민이 있지만 결혼이민자들의 인터뷰를 완료했다. 입체물을 작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기획의도와 인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작업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의 지속성]

흥미로운전달자1 지금하는 프로젝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니까 계속 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건지 궁금하다.

예술감독 지속적인 진행이 가능한지 재단의 의견을 듣고싶다.

시민문화팀 담당자 재단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

흥미로운 전달자1 지금 모인 작가들이 계속 내용을 이어가는지?

예술감독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지금 모인 작가들이 지속하고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문제는 올해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 어떻게 지속성을 가지게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다.

2021.09.09.(목) 전시장소 리스트업, 장소: 교통 일대, 참가자: 5명(아트블라켓,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오프라인영토 사전 조사

장소현역 리스트업(21.09.09)

구분	장소명	비고
1. 교통일대	교동역	1.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2. 교통일대	교동역	2.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3. 교통일대	교동역	3.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4. 교통일대	교동역	4.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5. 교통일대	교동역	5.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6. 교통일대	교동역	6.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7. 교통일대	교동역	7.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8. 교통일대	교동역	8.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9. 교통일대	교동역	9.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0. 교통일대	교동역	10.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1. 교통일대	교동역	11.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2. 교통일대	교동역	12.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3. 교통일대	교동역	13.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4. 교통일대	교동역	14.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5. 교통일대	교동역	15.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6. 교통일대	교동역	16.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7. 교통일대	교동역	17.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8. 교통일대	교동역	18.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19. 교통일대	교동역	19.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20. 교통일대	교동역	20. 100m 이내의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2021.09.10.(금) 웹사이트 디자인 2차시안 공유, 참가자: 5명(디자이너,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웹사이트 디자인 2차시안 공유



2021.10.15.(금) 의자디자이너 미팅 3차, 장소: 점점우드워크 참가자: 4명(의자디자이너,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매니저), 내용: 의자 제작 관련 논의



2021.09.02.(목) 도시총:통 예술총:통 작가(진나라, 윙쓰앙) 미팅 참가자: 4명(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 매니저), 내용: 오프라인영토 현장답사



2021.09.16.(목) 도시총:통 예술총:통 기록생산자 4차 회의 장소: 수원문화재단 2층 회의실, 참가자: 예술감독 박찬국, 프로젝트매니저 이예진, 기록생산자(5인) - 김형아, 류승진, 박김형준, 윤영욱, 현지윤



예술감독 박찬국 이번 리서치작업을 마무리하며 작업과 과정을 이야기하고 전시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작업하면서 어땠는지 궁금하다.

기록생산자 현지윤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인터뷰를 하고 편집을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간의 제한이 있었던 점이 아쉽다.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걸작기식으로 진행된 것 같다. 이미티콘같은 움직이는 이미지의 경우 시도해보고 싶었던 부분이라서 부족한 시간이지만 즐겁게 작업했다.

기록생산자 김형아 자료를 찾고 주제를 잡는 것도 너무 고민을 많이해서 오래걸렸다. 수원의 산업화와 택지개발, 인구의 변동 등에 대해 조사를 했다. 저도 똑같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낀다.

기록생산자 윤영욱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혔던 것이, 저는 주로 리서치가 진행된 후 작업으로 전환을 하는데 리서치만 한다는 것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한 달 동안 수원시청홈페이지를 달달 훑었다.(웃음) 오히려 그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잡히는 수치화된 것들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이 더 눈에 갔다. 재개발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며 길에서 마주하는 수치로 잡히지 않는 것들에 대해 보게 되었다. 저도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웃음)

기록생산자 박김형준 저는 재밌게 한 것 같다.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서 연결이 된다면 추후에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들었다. 비행기 소음 관련해서도 꺼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점점 일이 커지는 것 같다. 가능성을 좀 본 것 같다.

예술감독 박찬국 비행기 소음에 대한 답론은 꾸준히 있었다. 정도를 지나친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지, 실제 생활에서 거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이야기되면 재미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국방, 보안, 미군, 지역 이해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그것에 관련되어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지 나와주면 크게 드러날만한 사건이다. 다른 지역에도 있을법한 이야기지만 여기는 특수한 상황인 것 같다.

기록생산자 박김형준 현재 보상은 받은 상태이다. 금전적으로는 원료였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기록생산자 김형아 소음이 있지만 그 지역(서문동)의 오피스텔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기록생산자 박김형준 서수원은 이미 변화되고 있다.

기록생산자 김형아 수원시에서는 비행장 이사를 원하고 화성시에선 반대한다. 그러나 화성도 수원에 인접한 곳의 경우 비행장 이사를 원하고 있다. 화성시 내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록생산자 윤영옥 비행장을 아예 폐쇄하는건 어쩌나 하는 논의도 나온다.(웃음)

기록생산자 김형아 국방상 안될 것 같다.(웃음)

예술감독 박찬국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의 문제인데 어떻게 하느냐? 라는 답변은 질문을 막아버린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하여 수원에서 당연하게 보는 것에 대해 다시 논의해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가 류승 매번 시키는 것만 하다가(웃음) 리서치 작업을 하니까 신나게 했다. 율혁작가와 제가 만든 영상은 저희가 나름대로 스타일이 다른데 개인적인 스타일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다. 저는 이카이브, 그 친구는 SNS등을 다루는 컨셉으로 재미있게 놀았다. 제가 만든 영상이 (수원화성)복원 관련된 영상이라 다양한 영상도 재미있게 봤다. 더 할 수 있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서 힘조절했다.(웃음)

작가 박김형준, 윤영옥 아쉬웠던 것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함께 걸어보고 하는 지리가 있었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점이다.

예술감독 박찬국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기획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술감독 박찬국 작가들이 장소를 선정하고 무엇을 할까 리서치 중이다. 관심있는 작가분들에 연락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다.

작가 윤영옥 진나래 작가님께 연락이 왔다.

예술감독 박찬국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작가이다.

비인간의 법적권리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함께 이야기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작가 현지윤 온라인도 같이 전시되는 건지?

예술감독 박찬국 온라인은 무조건 업로드가 된다.

작가 류승진 국현 과현 전시에서 AR전시를 하는데 기록 생산자의 오프라인영토는 QR코드 정도로 하면되지 않을까(웃음)

작가 윤영옥 웹페이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젝트메니저 이예진 현재 전체적인 것은 계획이 완료된 상태이고 9월 말에 구축이 완료되지 않을까 예상된다.

작가 류승진 어떻게 온라인에만 업로드가 될 예정이었던 것이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기로 했는지?

예술감독 박찬국 그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리서치만으로 남기에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공공미술보다 도큐먼트의 타이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모두 전시에 진행에 대해 찬성을 하는 입장인지?

작가 전체 전시 진행에 찬성한다.(웃음)

2021.09.17.(금) 도시총:총 예술총:총 작가(손한샘) 미팅
장소: 교통 일대, 참가자: 3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오프라인영토 사전 답사, 작업 진행과정 공유



2021.09.17.(금) 정충회의_교통 투어, 장소: 교통 일대
참가자: 7명 (신승녀 선생님,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교통 투어 진행(신승녀 선생님 자문), 오프라인영토 참여 예정 상가 방문 및 답사



2021.09.23.(목) 수원문화재단 미팅, 장소: 발달제과,
참가자: 3명(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시간> 관련 세무사항 논의



2021.09.27.(월) 웹메너 및 염서 1차시안 공유,
참가자: 5명(디자이너, 예술감독,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메니저)
내용: 웹메너 및 염서 디자인 1차시안 공유



2021.09.28.(화) 아트플랫폼, 기록생산자 미팅, 장소: ZOOM
참가자: 10명(작가, 예술감독, 아트플랫폼, 센터 담당자, 프로젝트 메니저),
내용: 오프라인영토 전시 논의



시민문화팀 한예지 안녕하세요.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한예지입니다.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데 온 라인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게 된 목적은 당초 온라인으로만 기획이 되었던 전시를 오프라인에서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정되어있는 장소는 청려원갤러리이며 장소는 현재 1층은 동물 약국이고 3층은 갤러리로 운영중입니다. 도면은 곧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기획을 하기 앞서서 작가님들께 전시기획팀을 소개해드리며 작가님들의 전시관련 의견을 여쭙보고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하여 질문사항 역시 소통하려고 합니다. 전시기획팀은 아트플랫폼입니다.

아트플랫폼 오택관 안녕하세요. 아트플랫폼 오택관입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청려원은 화이트큐브 전시장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작가님들의 결과물을 전시기획팀이 큐레이팅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윤영옥 작가님의 사진 결과물은 출력을 하여 전시를 하고 현지윤 작가님의 GIF 이미지는 사전요청으로 하나의 작업으로 요청을 해주셨는데, GIF파일을 모니터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여쭙보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아트플랫폼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전시가 되어도 될지 혹은, 최소요구사항을 보내주시면 1차 적으로 수용하고 전시를 진행해도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 주세요.(웃음) 현재 전시 기간이 조금 촉박하다보니 진행과정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괜찮으신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작가 현지윤 제가 원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세팅하고 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GIF파일 총 30개를 인터뷰 내용과 함께 격자에 맞게 업로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여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플랫폼 오택관 현장에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단상 위에 모니터를 놓고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전시를 위한 최소 요구사항은 아트플랫폼에 요구해주시면 최대한 적용하겠습니다.

작가 윤영옥 현재는 전시장에서 어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모를 모르는 상태라 어떻게 해

아할지 구상이 안된다. 사실 어려운 것은 전시 설치를 다른 분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없어서 생각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어떻게 전달드리면 될지 모르겠다.

아트플랫폼 오택관 현재 리서치 자료를 살펴보고 최대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구현하려고 한다. 김 형준 작가님의 경우 현장성이 필요한 작업은 프로젝트상으로 현장성을 강조하고, 현지윤 작가님의 경우 타자기 등을 활용한 구상을 하는 중이다. 사실 디테일한 구상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나름대로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작가 윤영옥 오택관 감독님이 필요하신 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트플랫폼 오택관 현재 작품 해석이 가장 먼저일 것 같다. 이후엔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드릴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디렉터님 혹은 9개의 작업에 대해 배치도에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할지 사전 공유가 가능 할까요?

아트플랫폼 오택관 제가 작업을 위한 장소의 크기를 임의로 나누어도 괜찮으시다면 어느 정도 위치와 배정공간을 1차적으로 공유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그렇다면 배정공간을 전달 드린 후 크기와 느낌을 보시고 최소 요구사항들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면은 오늘, 배치는 내일 중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작가님들 괜찮으신가요?

작가 전체 네.

망도프로덕션 류승진 저희는 영상이라서 오택관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모니터의 기본 사양을 말씀해주시 수 있을 까요?

아트플랫폼 저희가 보유 중인 것은 32인치, 24인치, 단초점 프로젝터 2개, 42인치입니다. 42인치는 4K는 아닙니다.

망도프로덕션 류승진 전시공간을 보셨을 때 들어갈것으로 예상되는 영상의 화면크기는 몇인지 궁금합니다.

아트플랫폼 오택관 작품수가 많아서 크게들어들 것 같습니다. TV는 40인치 이하로 들어가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망도프로덕션 류승진 그리고 저의 결과물의 경우 화질개선 파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더하여 작품소개를 위한 200자 내외의 원고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작가 윤영옥 전달드린 사진이 많아서 양을 줄여드려야 할 까요? (웃음)

아트플랫폼 오택관 제가 보았을 때 사진 사이즈가 커야 할 필요가 없다면 사진을 인쇄물형태로 뽑는건 어떠실 까요?

작가 윤영옥 결과물이 사진이지만 사전계획서에 있는 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텍스트를 어떻게 잘 보여드릴지 저희 쪽에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아트플랫폼 오택관 작가님들의 구상이나 주의사항을

전달주시면 적용하여 큐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윤영옥 도면과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등이 전달된다면 어떻게 전지를 진행해야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문화팀 한예지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다면 오는 미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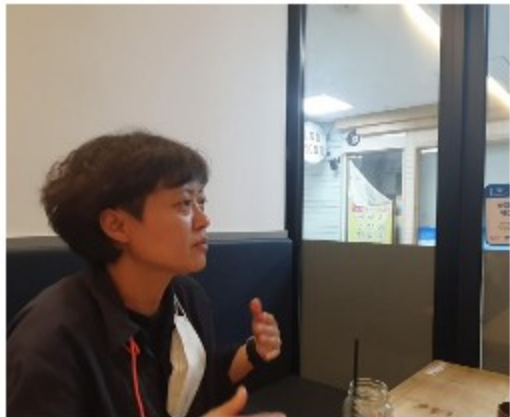
2021.09.29.(수) 기록생산자 전시 설치 계획



2021.10.07.(목)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손한샘) 미팅
장소: 팔달문관광안내소 앞 공터, 참가자: 3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전시장소 사전 답사 및 사전인터뷰



2021.10.08.(금)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이기바위쿠르르) 미팅
장소: 아이엠빌크, 참가자: 3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사전인터뷰



2021.10.11.(월) 의자 제작 과정(재료) 공유



2021.10.13.(수) 리플렛 디자인 최종 시안 공유, 참가자: 5명 (디자이너, 예술감독 등), 내용: 프로젝트 리플렛 최종시안 공유



2021.10.14.(목)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 (서현덕, 진인이나래, 준박&최라윤) 미팅, 장소: 수원문화재단 및 아트볼방켓, 참가자: 5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사전인터뷰



2021.10.26.(화)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윤쓰양), 미팅
장소: DRP, 참가자: 3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메니저)
내용: 사전인터뷰



2021.10.27.(수)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이태강), 미팅 장소: 재단 지하 대화실, 참가자: 3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 메니저), 내용: 사전인터뷰



211015_의자디자인_설치



2021.10.23.(토) 도시총:동 예술총:동 작가(RBSC), 미팅 장소: 수원의 아침, 참가자: 3명 (작가, 예술감독, 프로젝트 메니저), 내용: 사전인터뷰





포스터

이도

홍보물 제작

종류	포스터 & 리플렛	엽서	현수막	x 배너	깃발배너	기타 홍보
규격	A2	150*105mm	-	900x1,800mm	500x700mm	A4
수량	1,000부	300부	3개	8개	5개	2식



깃발 배너



X 배너

수원공공예술 www.publicartsuwon.com

‘도시충;동 예술충;동’

많은 부분 전담이 없이는 우리 도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도시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도시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전시장소: 이북동발전, 노수축적당과, 소망집, 태포생고기, 이영도, 불려원갤러리, 수원시문화재단도서관 등 교동일대

2021.10.23.토 - 11.07.일 12:00 - 20:00 (황리탄광에서 19:00까지) 문의 031-290-3542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 시간

10.31.일 16:00-19:00

한수막

한수막

도시충;동 예술충;동

2021. 10.23.SAT - 11.07.SUN

청려원갤러리, 교동일대 및 온라인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포럼

그래, 지금은 듣는 시간 - 생기가 안도는 공공미술이 필요해? -

2021.10.31.일 16:00-19:00 한수막(이북동발전)에서 개최합니다. 문의 031-290-3542

주최	수원문화재단	한수막	비엔나
주최	수원문화재단	한수막	비엔나
주최	수원문화재단	한수막	비엔나
주최	수원문화재단	한수막	비엔나

본 포럼은 2021년 10월 31일(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한수막(이북동발전)에서 개최합니다. 문의 031-290-3542

본 포럼은 2021년 10월 31일(일)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한수막(이북동발전)에서 개최합니다. 문의 031-290-3542

기타정보

도시충;동 예술충;동

2021.10.23(토) - 11.07(일) 12:00 - 20:00

* 전시 기간을 지켜주세요!
* 오후 7시 이후 관람객은 안대무시합니다!

전시장소: 이북동발전, 노수축적당과, 소망집, 태포생고기, 이영도, 불려원갤러리, 수원시문화재단도서관 등 교동일대

문의 031-290-3542

수원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향후 정기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상이한 도시의 조건을 넘어 도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흥미로운 생각들을 담아내려 한다. 예술은 한 도시의 물리적 조건을 포함하여 동시대 삶 전체의 이슈를 환기하기 때문이다.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에서는 생산물을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반응에 반응하는 여러차례의 반응 과정에서 각각의 주체들이 흥미롭게 개입하는 교차 특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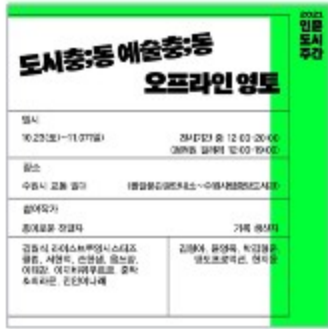
올 해는 그 첫 해로서 도시의 소리 냄새 이야기를 보고 듣고 토론하면서 여러개의 스케치를 연이어 시도하는 ‘에스키스 esquisse’ 작업을 시도한다. 여러사람들의 감각을 깨우고 상상을 교차하는 과정과 이후 작업을 위한 리서치 성격의 작업을 시작한다. 리서치라고 해도 작가의 시각이 스며 있는 개성적 포착의 과정이며 다큐멘터리된 이슈들은 다시 한번 아티스트의 아트워크를 거쳐 피드백 된다. 반응에 반응한다. 몇가지 과정중에 만나는 인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일방향이 아니라 열거설기 되풀이 이슈를 환기한다.

www.publicartsuwon.com

수원문화도시센터 031-290-3542 @sw_culture

전시

종류	카드뉴스	블로그	네오북/ 아트허브	기타 옥외홍보	보도자료
수량	3건	1건	2건	7곳	30건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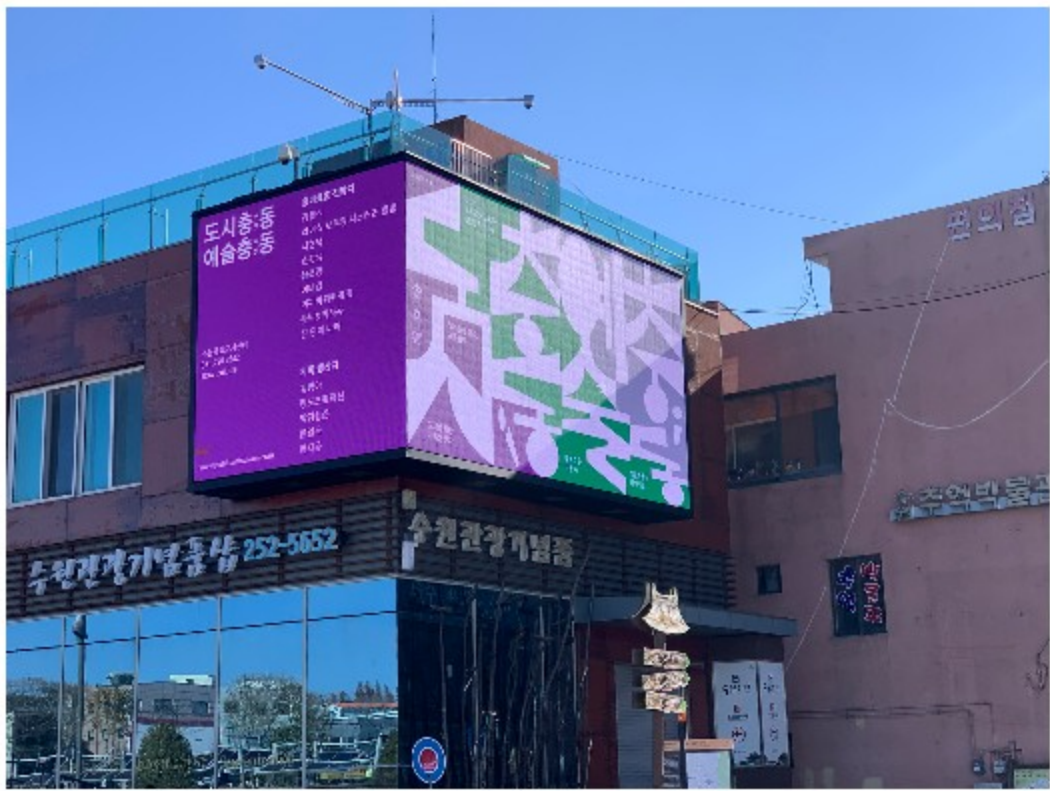
블로그



아트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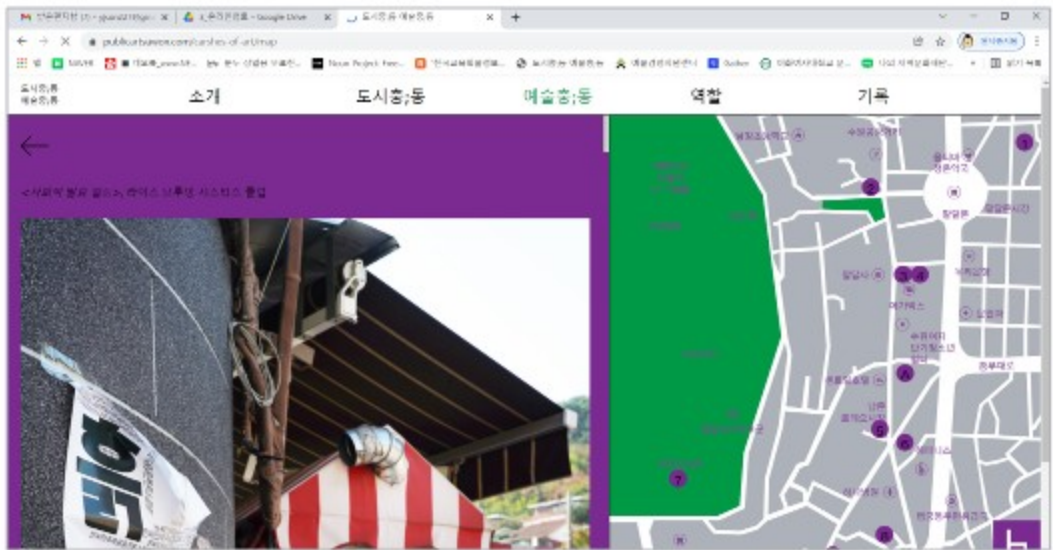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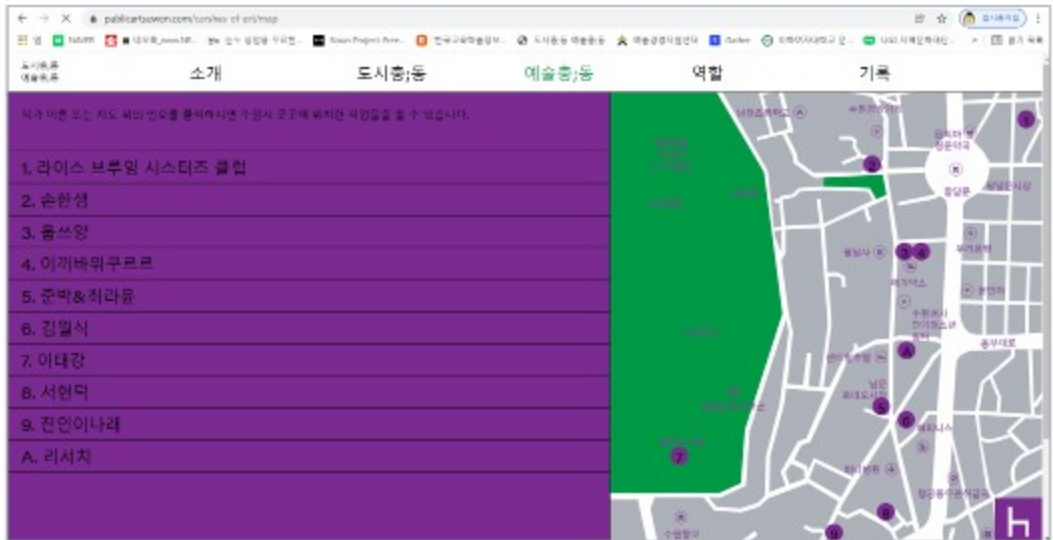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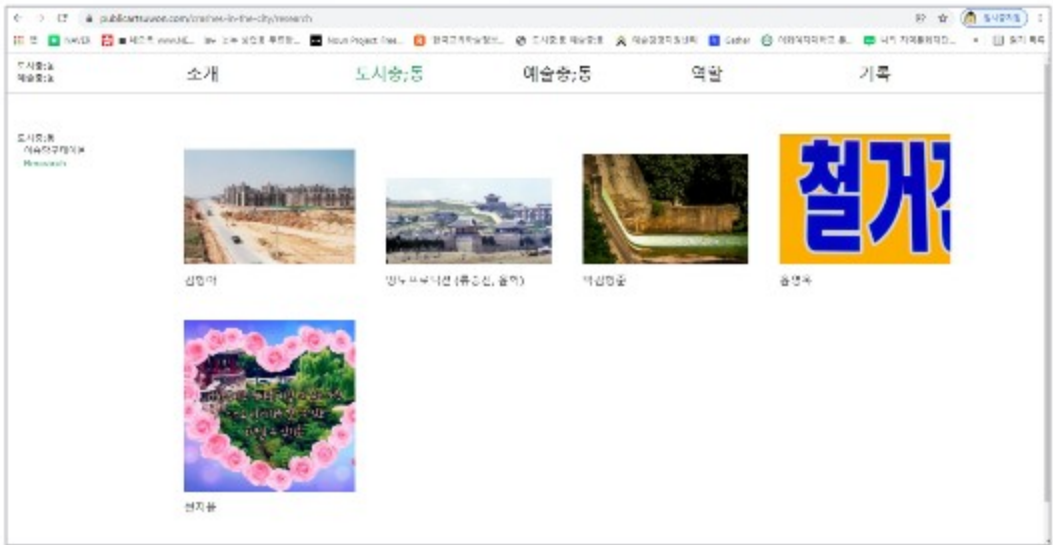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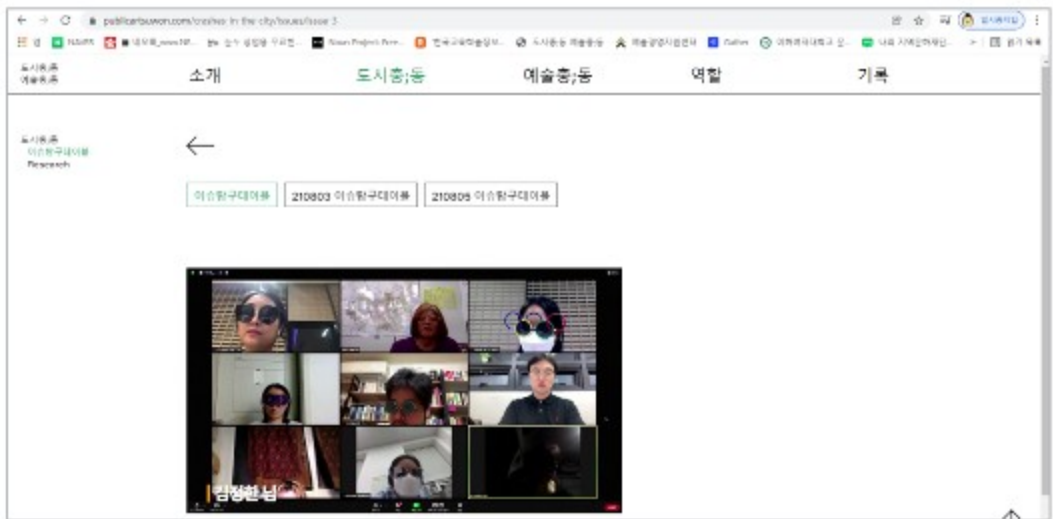
네오북



박의홍보



가톨릭 홍보대사



PICK 언론사가 선정한 주요기사 혹은 심층기획 기사입니다.

컨슈머타임스 2021.10.18.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을 청려원갤러리 및 교동 일대에서 개최한다. '도시충;동 예술충;동'은 수...

수원문화재단, 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NSP통신 2021.10.18.
수원을 바라본 시선들 예술로 드러나다 기호일보 2021.10.18.



뉴스웍스 2021.10.17.

수원문화재단,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수원문화재단은 오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을 청려원갤러리 및 교동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충;동 예술충;동은 수원의 정기적인 ...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브릿지경제 2021.10.17.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수원공공예술 '도... 머니S 2021.10.17. 네이버뉴스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내달 7일... 뉴스스 2021.10.17. 네이버뉴스
수원문화재단, 11월7일까지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 열린뉴스통신 2021.10.17.

관련뉴스 7건 전체보기 >



브릿지경제 2021.11.02.

수원문화재단, 2021 인문도시주간 성료

도시의 이야기를 예술가가 흥미롭게 전달하는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은 교동 일대의 9곳의 장소에서 전시가 개최됐다. 인문도시주간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그려, 지금은 듣는...'

수원문화재단, 2021 인문도시주간 2만여명 참여 성료 NSP통신 2021.11.02.
수원문화재단, '2021 인문도시주간' 성료...2만여 명 참여 컨슈머타임스 2021.11.02.



보도자료

수원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을 청려원갤러리 및 교동 일대에서 개최한다.

'도시충;동 예술충;동'은 수원의 정기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첫 시작으로 상이한 도시의 조건을 넘어 도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흥미로운 생각들을 담아내고자 한다. 올해는 시민으로부터 수원에 대한 이슈와 이야기를 듣고 작가들이 수원 곳곳을 리서치한 뒤 그 결과물과 수원에 대한 흥미로운 시선을 아티스트들이 예술 언어로 드러냈다.

프로젝트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공유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청려원갤러리와 교동 일대 상가들에서 아티스트의 작업을 보여준다. 청려원갤러리에서는 수원 시민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리서치 기반 작업을 전시하며, 교동 일대에서는 지역 내 상가와 협업하여 리서치 작업과 수원에 대한 작가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한 아티스트의 작업을 전시한다. (온라인)에서는 프로젝트의 준비과정과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프로젝트를 감상할 수 있다.

부대 프로그램으로 '도슨트 투어'와 '도시충;동 예술충;동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슨트 투어)는 오프라인에 전시 중인 작가들

의 작업을 도슨트 설명과 함께 관람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매주 금·토·일 오전 11시, 오후 1시 하루 두 차례 진행하며, 네이버예약을 통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도시충;동 예술충;동 포럼 '그려, 지금은 듣는 시간')은 도시와 공공예술에 대해 전문가와 참여작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공유할 예정으로, 교동에 위치한 아트플랫폼에서 31일 오후 4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한다.

도시충;동 예술충;동 프로젝트의 과정 및 결과는 사후 결과집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https://publicartsuwo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번	보도일	업종사	기사제목	주소
1	2021.10.17	경고신문	수원공공예술'도시충;동 예술충;동'개최	https://www.kg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2132
2	2021.10.17	아시아투데이	수원 공공예술,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1017010008825
3	2021.10.17	경기중앙신문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www.ggapp.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6
4	2021.10.17	뉴스시스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내달 7일까지	https://www.newsis.com/view/?id=NSJ20211017_0001616218&cid=10803&pID=14000
5	2021.10.17	배경이 타임스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개최	https://www.g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034
6	2021.10.17	수도권일보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sudokwon.com/article.php?id=1634435848500955006
7	2021.10.17	뉴스피크	수원문화재단, 시민의 미마가 담긴 '공공예술' 즐겨보세요	https://www.newspick.kr/news/articleView.html?idxno=344779
8	2021.10.17	머니S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moneys.mt.co.kr/news/ewView.php?no=202110171018085151&outlink=1
9	2021.10.17	투데이경제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too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646
10	2021.10.17	경인투데이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kyungtoday.com/sub_read.html?uid=62541
11	2021.10.17	시대일보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sidaeilbo.co.kr/sub_read.html?uid=377846
12	2021.10.17	케이에스피뉴스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kispnews.com/748406
13	2021.10.17	신여일보	수원문화재단,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71689
14	2021.10.17	경기tv뉴스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gg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3621
15	2021.10.17	경기민파워뉴스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gjnnews.kr/113835
16	2021.10.18	컨슈머타임스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77536
17	2021.10.18	경인투데이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gjdaily.co.kr/sub_read.html?uid=39990
18	2021.10.18	경기민파워신문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gjnnews.co.kr/644601
19	2021.10.18	미디어투데이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mediatoday.asia/370707
20	2021.10.18	데일리리외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why25.com/sub_read.html?uid=269637
21	2021.10.18	경인지널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 진행	https://www.gjournal.net/182636
22	2021.10.18	경기민파워신문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gjnnews.co.kr/644776
23	2021.10.18	케이에스피뉴스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kispnews.com/748671
24	2021.10.18	뉴스포인트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gpointnet/news/article.html?no=155112
25	2021.10.18	세계뉴스통신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segynewsagency.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870
26	2021.10.18	경인투데이	수원문화재단, 도시가 말하고 예술가가 움직인다	https://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9270
27	2021.10.18	NSP통신	수원문화재단, 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nspna.com/news/?mode=view&newsid=532034
28	2021.10.18	서울뉴스통신	수원문화재단, 수원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sna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42389
29	2021.10.19	경기도민일보	수원, 정기적인 공공예술 프로젝트 '도시충;동 예술충;동' 스타트	https://www.kgd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0909
30	2021.10.23	수원시민신문	수원공공예술'도시충;동 예술충;동' 개최	https://www.urisuwon.com/sub_read.html?uid=157142

수원공공예술 도시총동 예술총동 결과보고집

발행처: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발행일: 2021년 12월

기획: 문화도시센터 시민문화팀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11

전화: 031-290-3542

디자인: 고와서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교육연구개발사업
Nation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한국교육연구서비스
Korea Education Research Service